

건축사

大韓建築士會誌

19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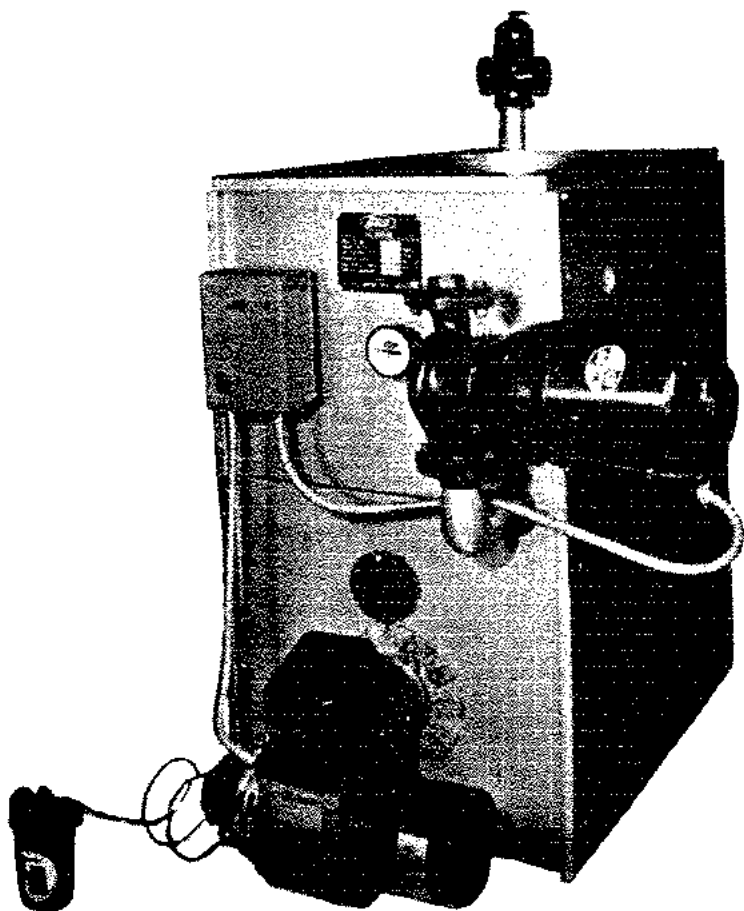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유티카 商事

서울 · 中区 忠武路 4 街 126 의 1 號
進洋商街 라 102 號

TEL. 26-2026, 2807

輸出用 낙타표 크링카 타일

(東南亞 美國 日本 欧羅巴地域)

製品案内

2"×2"	3"×3"	6"×6"
2"×4"	3"×4"	3"×6" (계단용)
2"×9"	4"×4"	3"×4" (HEXAGON)
3"×9"	4"×8"	3"×3" (LAN TERN)

製造元 江南産業株式会社

輸出用

(美國 日本 欧羅巴 東南亞地域)

内外装用 귀리타일 (GLAZED QUARRY TILE)

(깨스特殊处理品)

製品案内

2"×2"	3"×3"	6"×6"
2"×4"	3"×4"	3"×4" (HEXAGON)
2"×9"	4"×4"	3"×3" (LAN TERN)
3"×9"	4"×8"	

色相 STRAWBERRY, ORANGE, GREEN, BLACK, YELLOW, BROWN外20種

H·D

製造元 現代窯業株式会社

製造元

江南産業(株)

総販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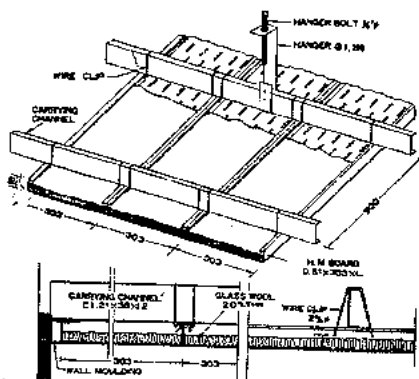
江南産業社

서울特別市 中区 乙支路4街 28 ㉞ 7228, 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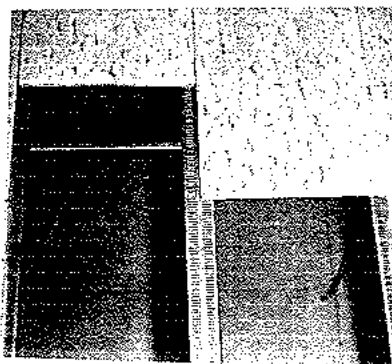
建築近代化에
寄與하는

韓一의 不燃建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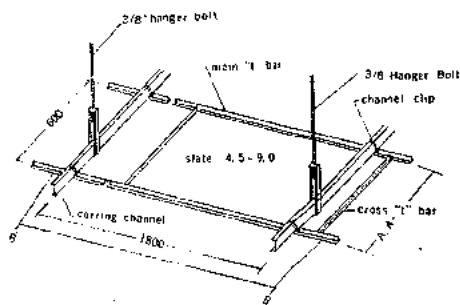
H. M 보-드



S. M Bar



G-T-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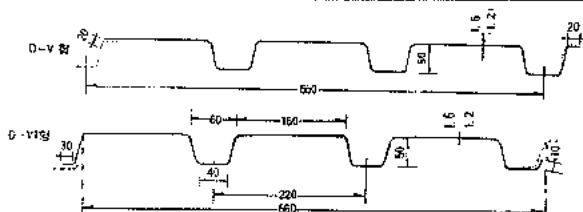
其外 M-Bar H-Bar SH-Bar T-Bar HT-Bar 等 多様な 製品を 量産 普及하고 있습니다.

輕量形鋼 (LIGHT GAGE)



▶ 輕量C形鋼 ▶ 輕量U形鋼 ▶ 輕量L形鋼

덱크 플레이트 (DECK PLATE)



營業種目

H·M 보-드

各種 輕量鉄骨天井틀

- ▶ M-Bar ▶ SM-Bar
- ▶ H-Bar ▶ H. T-Bar
- ▶ T-Bar ▶ SH-Bar
- ▶ G. T-Bar

HI 移動칸막이 (PARTITION)

各種 窓다類

- ▶ 스프링式 ▶ 電動式 ▶ 파이프 ▶ 원도

키스톤 플레이트 (Keystone Plate)

- ▶ S. V形 ▶ H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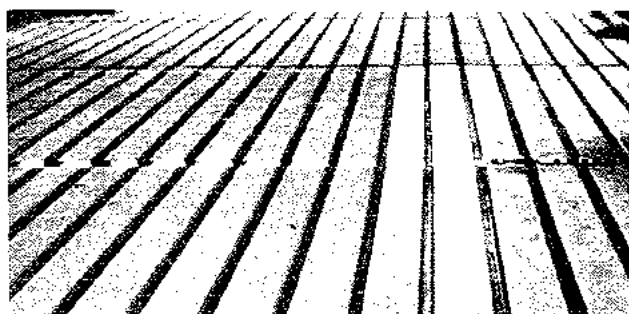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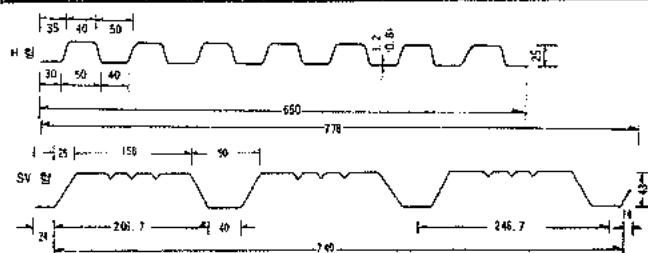
C形輕量形鋼 (Light Gage)

- ▶ 輕量C形鋼 ▶ 輕量U形鋼
- ▶ 輕量L形鋼

덱크 플레이트 (Deck Plate)

- ▶ D. V形 ▶ D. V1形

키스톤 플레이트 (KEYSTONE PLATE)



不燃建材의 總 메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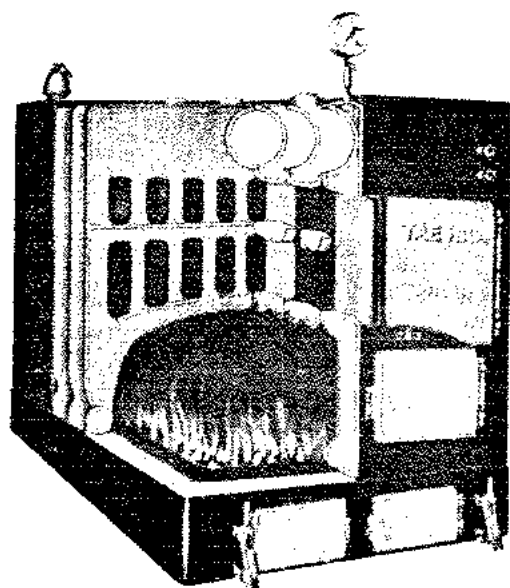
韓一建材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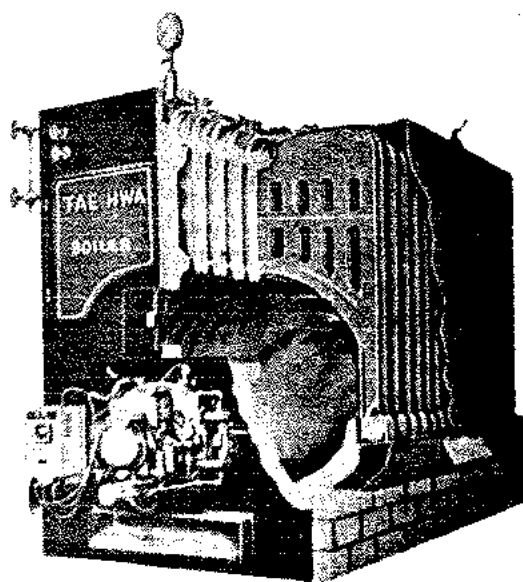
本社 : 서울特別市冠岳區노암진동46-6 Tel. 69-1744, 5336, 68-1605, 0228
代理店 : 釜山 ③0437 大邱 ②4718 光州 ②1878 大田 ③2569 原州2038

TAE HWA

BOILER



舊 萬和보일러



營業案內

鑄鐵製보일러 油類用
石炭用
製作 및 納品

鑄鐵製 放熱器 製作 및 納品

其他 附帶施設 및 補修工事 一切

泰和보일러製作所

TAE HWA BOILER MFG. CO.



本社 · 서울特別市龍山区葛月洞17番地
(世紀빌딩 501号)

電話 (42) 3753番

工場 · 서울特別市永登浦区九老1洞685-205

月刊「建築士」 4月号 (通巻 64号)

目 次

내가 생각하는 問題点.....	吳 雄 錫(2)
建築의 種類, 規模 抑制에 對하여.....	崔 昌 奎(6)
	公 日 坤(8)
	劉 永 鳳(9)
韓國 上流 住宅 序論.....	鄭 寅 國(10)
設計 事務所의 經營과 稅務 ② (所得稅에 對하여).....	金 翼 來(17)
建築의 教育 問題.....	尹 道 根(22)
韓國의 古建築(探訪) — 修德寺.....	(24)
새로운 工法 안내.....	(31)
地域社会 福祉館建立에 對하여.....	Dr. 후메리 (32)
(特輯) 病院 建築	
병원 計劃과 面積配分.....	金 東 珪(38)
(會員作品)	
한·월 메디칼센터의 3 편.....	(42)
(海外作品)	
(特輯) 海外現代住宅 10選.....	(49)
會員의 質疑應答	(66)
建築界 뉴스	(69)
會員動靜.....	(73)
建築物 抑制 解制 建議文	(71)
協會 月間 動向.....	(79)

내가 생각하는 問題点

吳 雄 錫

(本協會 出版担当理事)

建築은 最高의 學門이고, 藝術이요, 技術이나. 建築士는 어느 專門業 보다는 보람되고, 偉大한 일을 하고 있다고 自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업적은 永遠히 남는다. 그러나 榮光의 길은 험하고, 멀기 마련이다. 우리들은 굳은 信念을 가지고 꾸준히 修業하며 社會가 주는 모든 試練을 이겨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이순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하여야 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가까운 일, 조그마한 일부더 冷情한 立場에서 생각해 보아야겠다.

우리들 一部層에선 참다운 建築士의 本分을 나하지 못하고 있으며, 協會는 항상 재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人勢에 못이겨 그대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大勢란 무엇이며, 그것을 이겨낼 길이 정말 없는 것일까? 또 建築士의 本分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좀더 自己를 도리켜보고 더욱 앞찬 來日을 위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한가지 일씩이라도 實踐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協會에서 우리가 不調理를 없애고 不正하지 않는다는 것은 當然한 일에 不過하여 그것이 매경스럽게 앞자리를 恒常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協會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定해진 組織과 予算限度 以上の 일을 주고 그 成果를 期待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지금 우리 協會의 組織은 協會機構의 生理를 維持해나가는 데에도 힘겨운 것 같다. 最少限度의 管理業務와 事務的인 問題를 處理하는데 與念이 없다. 겨우 소라나 마한 雜誌 한편 만들어내는 일도 命脈을 維持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그

雜誌조차도 國內 他協會誌와 比較해 볼때 規格이 작고 發行 部數도 要請關係部處에조차 配布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印刷費는 3級印刷所施設을 利用할 수 있는 程度의 予算밖에 안되며 雪上加霜으로 今年들어 紙價가 올라 紙價조차 維持하기 어려움고 그것조차 品費로 現金을 주고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影使이다.

하루 아침에 만족스러운 改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나 언젠가는 자랑스러운 雜誌를 만들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한가지씩이라도 改善을 해 나가야겠다. 勿論 內容이 더욱 忠實해야 한다. 그러나 一般的인 雜誌規格 程度의 體裁도 갖추어야겠으며 發行部數도 會員이 그만큼 또 우리들의 活動範圍가 넓어진 만큼은 增刊해야겠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會員의 各自 自身을 待接하는 길이며, 또한 建築士의 對外的인 名譽와 體面을 지키고 向上시키기 爲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最少限의 일이 아닌가싶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일할 수 있는 組織과 予算이 確保되어야겠다.

또한 75年度에는 內容이 増量되고 色度印刷을 할 수 있는 計劃이 成就되어야겠다.

또한 우리 協會가 지금 해야 할 重要한 일들이 몇가지 남아있다. 그것은 建築士法改正, 設計監理報酬料率 引上, 監理規定制定, 脫率引下現實化 등이 巨太한 일들이다. 이러한 일을 누가 할 것인가. 會長이나 任員들이 法條文을 만들고 料率의 算出基礎를 만들어내는 作業을 하기에는 너무도 일이 많고 持續性을 要求하는 일이나만큼 現實上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勿論 꼭 하고야 말겠다는 決意는 돼 있다. 그러나 實務를 다루어줄 專廳職員이 꼭 必要하다. 一般事務를 보고 對外的인 接의 活動을 겸하지 않는 專門職이 꼭 있어야겠다.

또한 이러한 問題를 主管해 볼 當局이 너무도 바쁘고 人員이 不足한것 같이 보인다. 當局이 建設部라고 하는 큰 看板을 걸고 있으나 事實上 實務를 다루고 있는 사람은 建築課 不過 數名の 職員中 1~2名에게 集約된다. 그분들은 當局의 立場에서 處理해야 할 一般 業務를 보아 나가며, 또 建設部 自体의 指針이

다른 優先問題를 處理해나가기 위하여 毎日같이 殘業을 하고 있는 實情인것 같다.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들의 課題를 드러밀어 놓고 있으니 일이 쉽사리 될 력이 없다.

結局은 우리 손으로 當局이 해야할 일까지 密接한 關係를 維持해가며 處理해 나가지 않으면 일이 안되는 것이다. 結局은 1200名의 뜻이 協會로 돌려지고 協會는 그것을 當局에 要請한다. 누구나 그 뜻에는 贊同하고 協力 해줄것을

約束하나 如前하 일은 되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일을 處理해 나갈 수 있는 方法이 取해져야 하겠다. 내가 協會의 任員이 되기前에는 協會 予算이 너무 많고 그것을 무엇에 다쓰는가 그것이 不正의 要素며, 그 予算은 半減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그러한 印象은 前任者 몇사람의 過誤가 던진 좋지않은 先入觀念 때문에 이었던것 같다.

막상 任員이 되고 協會 살림을 내다보니 協會 予算이란 現狀維持를 할 수 있을 程度의 힘겨운 災狀이며 막상 일해야 할 事業費 予算이나 活動費가될 판公費는 名目에 不適當 程度인 것 같다. 실게 比較해서 1個事務室에서도 좀 크다고 하는 것이면 그것의 몇배를 쓰고 있는 形便이 아닌가 싶다. 그것 가지고 거국적인 大協會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일을 消化할 수 있는 組織이나 予算하고는 너무도 큰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또한 우리會員 한사람 한사람은 과연 부끄럽지 않은 建築士의 本分을 다하고 있는지 도리켜 생각해보자. 建築士의 役割은 創意와 技術을 다하여 완벽한 設計를 하며 그집의 값을 더욱 높이는데 그뜻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 알고 設計費를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것같이 생각된다. 그리고 建築許可는 建築士의 設計에 따른 附隨業務에 不適當 것이며 결코 本分이 아니다.

世上에는 建築士를 建築許可를 代書하는 사람으로 認識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建築士 스스로도 建築許可 取得을 本分으로 일삼는 사람이 相當數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그런 분들을 위하여는 建築許可士 라는 職種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勿論 建築主 大多數가 沒理解하고, 自己손으로 마음대로 지어보겠다고 하는 지 나친 主張과, 自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때문에, 設計의 價值가 무엇이며, 왜 바싼돈을 주고 建築士에게 맡겨야 하느냐하는 問題를 納得하지 못하고, 建築許可가 곧 設計의 全部인양 알고 建築許可만을 要請해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結局 社會가 우리에게 주는 業務의 性格이나 性格에 따른 일의 配分量이 우리의 性格도 左右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建築許可士가 아니며 設計를 本分으로 하는 建築士이니 만큼 許可業務를 取扱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긍지와 本分을 망각한 言動을 해서는 안 되겠으며, 賃값의 許可圖面作成費를 받고 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設計가 아니고 許可圖面 作成費라는 것을 分明히 認識케 하고 設計와 区分하도록 하여야 하며 設計를 할려면 적어도 實工事費를 規準으로 한 正式料率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充分히 說得시켜, 우리의 고객한 사람 한 사람을 우선 닥친 일부터 徐徐히 認識시켜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땀땀히 社會에서 待接받고 일 할 수 있는 날이 올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建築의 種類, 規模 抑制에 對해

崔 昌 奎

(新進建築設計事務所·鍾路)

地球上의 모든 動物들은(家畜을 除外하고) 自己 힘으로 自己들이 살곳(住)을 마련한다. 이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고 本能的인 原始慾望이기도 하다. 自己집, 自己우리, 自己동지라는 것은 남이 들어와서 살 수 없는 自己의 所有權이 있다. 어린 兒童가 이것은 내것, 그것은 얼마 것 하기 始作할 때 그 머리속에선 成熟해 간다는 一大 變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卽, 所有意識이 일어난다는 것은 成熟해 간다는 뜻이 되고, 成熟해지면 自己의 生活을 營爲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人間生活에 있어서 衣食住는 不可缺의 要素이다. 衣慾 食慾 住慾은 廣義의 生存 營爲하는 本能的인 原始 慾望이다. 그 中에서도 休息과 繁殖의 場인 住居(建築)를 自然을 利用했건 科學을 利用했건 간에 人類歷史를 通해 綿綿히 이어왔으나 途中에서부터 所有라는 原則은 變치 않아도, 自己만이 아닌 家族 或은 남도 使用할 수 있었고, 또는 남에게 빌려도주고, 많은 사람이 같이 살 수도 있는 建築이 우리를 손으로 이루어져서 今일에 이르렀다. 이것은 衣 部門에서 樹葉이나 木皮에서 獸皮, 羽毛로 해서 綿布에서 科學布로 걸어 오듯이 住 部門에서도 그 本質이 多樣하게 變遷되고 模樣서부터 內容에까지 많은 發展(?)이 되어 왔다. 그러나 人間의 生活單位가 家族을 包含한 家庭이 되었을 때부터 住宅은 그 家庭과 同意物이 되었다. 그 家族數의 多少에 따라 住宅의 規模도 달라지고 特別 近世에선 經濟的 格差如何에 依해 家屋의 規模가 거의 決定되어져 갔다. 이렇듯 他建物과 더불어 單位家族의 增大(人口增大)에 따라 住宅의 量은 數的으로 增大해 가니 그들이 屬해 있는 民族이나 國家의 産業面에 建築産業은 莫大한 比重을 가지기 始作했다. 歷史上 各國이 거의 다 經濟面에서 이 建築産業을 無視할 수 없게 되고 보면, 이 建築 産業이야 말로 그 나라의 經濟度를 左右하게 되는 것이다. 現近 各國의 이 建築産業에의 注力을 보면 明確한 일이 되겠다. 近來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6.25로 因한 破毀와 人口의 膨脹으로 住宅難이 隨處했고 그러기에 政府는 各種機構나 機關으로 하여금 이 問題에 注力했고 現今도 注力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遠近의 歷史的 見地에서 今年 2月18日 經濟長官會議에서 決議된 建築種類規模의 規制를 보면,

卽—

가. 50坪 以上の 住宅과 40坪 以上の 아파트 新築規制.

나. 地方自治團體의 廳舍, 國營企業體, 銀行, 公益法人의 事務室의 新築抑制.

다. 劇場, 映画館, 카바레, 料亭 및 사치性 沐浴場, 娛樂場, 百貨店, 集會展示, 觀覽施設, 四層以上の 事務室 等の 新築不許.

以上과 같은 것이 公布되었다. 避치 못할 經濟的 社會的 近況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理解되면서도, 各項에 對해 若干의 意見이 있는 것이다. 現實打開手段의 豊富性에 反하여, 目的의 不明確性에 關한 原則이랄까. 무릇 建築이 지니고 있는 多樣性에서 그 規模가 그 建築自体를 決定짓는 要素는 못되는 것이고, 實어 問題가 되는 것이지 坪數나 容積이 施設費나 資材 使用의 抑制가 될 것인지는 疑問이 있는 것이다. 그 規模보다 적은 坪數로서 建築費나 資材가 꼭 덜 使用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一面 規制坪數以下의 建物量이 反拗의 으로 많아질 때 全方面에서 消費되는 建築費와 資材量은 어찌될 것인가가 疑心스러워지는 것이고, 50坪 以上の 住宅이나 40坪 以上の 아파트가 現今의 우리 “分”에 넘는 것이라고 본다면 誤算인 것 같다. 即 現近 그 程度의 規模의 建物이 活潑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한 必要나 目的이나 能力이 있다는 것이겠고, 資材難이나 價格 仰慕이 甚해서 能力이 없으면 抑制안해도 自然히 不進해지리라고 生覺된다. 다만 一部 富裕層이나 媒利族의 所行도 있었지만 一部의 非行으로서 多數가 被害를 받을 必要는 없는 것으로서 解放後 일찍하면 建築抑制라는 하나의 習慣이랄까. 가장 만만한 것이 建築이라는 情性같은 느낌도 틀거니와 目的과 無關한 要素와 目的에 束縛된 要素를 總括한 見地에서 論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기가 被害者가 加害者에게 妥協을 하는 人類社會이긴 하지만!

〈나〉〈다〉項의 境遇 若干의 首肯이 가지만 모든 建設的, 生産的, 原動力의 根本은 知的인 文化的인 底力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認識한다면! 文化的인 것, 藝術的인 것이 生産的이고 建設的이고 非消費的이라는 것을 認識한다면! 〈나〉〈다〉項의 種類의 抑制도 考慮할 點은 充分히 있다고 본다. 무릇 사치나 娛樂이란 余裕(物質的 精神的)를 內包하고 있고, 그 余裕란 社會學的 面에서 볼 때엔 社會保障을 意味한다. 人間은 物質生活에 못지않게 精神生活에도 比重을 둔다면 特히 現代人(都市人)의 精神生活은 오직 余裕에서 오는 사치나 娛樂를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사치성이나 娛樂性을 非難하는데는 社會秩序나 犯罪 등 여러 가지 誘發을 걱정함도 있었지만 가장 큰 理由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道德性이나 倫理度가 急變해 가는 現生活樣式을 따라가지 못하는 格差에서이고 加速만 되어가는 現代生活을 하는 우리의 道德性과 倫理性은 變하는 速度가 너무도 느리기 때문에 모든 社會問題가 여기서부터 시작 된다.

이 問題의 解決은 現代生活의 變化速度를 制御하든지 道德과 倫理의 變化速度를 加速시키는 수 밖에 없다. 兩者가 並行해서 進行한다면 이 地球는 樂園이 될 것이다. 諸事件에 建築抑制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其他 어려운 社會問題도 自動的으로 霧散되고 名実共に 地上樂園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解決은 歷史上 이때까지 試圖했거나 解決한 政治家나 偉人은 없었나. 바로 이것이 問題인 것이다. 이 問題야말로 建築抑制같은 것에 比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重大한 問題인 것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2

주 권 신 연구소
(73) 6947 집 명 일

公 日 坤

日坤建築研究所·龍山区·二村洞)

과거에도 50평 또는 100평 이상의 住宅建築은 주택채권 또는 세금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억제는 되어왔었다. 이는 합리적인 住生活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규모가 크거나 사치스러운 建築을 배제가 위한 조치이었으리라.

그러던 것이 작금에는 住宅建築은 50평 이상은 금지되었다. 住宅建築의 50평 이상 금지하는 물론 우리생활은 입산금지, 주차금지, 출입금지, 통행금지, 사용금지, 저수지 낚시금지 등등의 금지가 너무 많아 금지라는 숲속에서 전전궁궁 교묘히 빠져나가며 살아가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자유경제사회의 특징인 활발한 제반 활동들이 금지로 인해 주춤주춤 되는 것 같으며 생활인의 자세가 의기소침해 지는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급하는 「먹는다」는 것과 「원다」, 「잔다」, 「배설한다」는 것인데 이 최소한의 행동은 個人差와 시간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매일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만으로는 육체가 살아있고, 에너지 보급에 불과하며 實際生活에 있어서는 식사, 휴식, 배설, 세면, 목욕, 생식, 육아 등의 사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야 한다.

原始時代에 있어서는 一室에서 炊事와 食事 그리고 談笑와 休息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이와같은 행동이 각각 별도의 室에서 프라이버시를 갖고 행해지며 또 사용하는 기구 설비도 각각 그 室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량 발전시켜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이와같이 生活의 독립을 지향하고 住生活이 分化되는 반면 도시생활에 있어서 일체의 공공시설 분야는 共同化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있다.

실제로 17~25평의 小住宅에서 불편없이 살 수 있는 핵가족이 있는가 하면, 식구가 10명 안팎이 되고 크고작은 모임을 자주 갖게 되는 집에서는 50평, 100평 이상의 住宅이 필요하게 되어, 마치 참새 둥우리에 비둘기나 독수리가 살아야 하는 비유가 되기도 한다. 이는 오히려 지나친 제한에서 오는 부조리의 결과로 불평을 조장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다.

세계적인 원자재난, 경제활동의 저하로 인한 힘겨운 상황아래에서 조치된 住宅建築 50평이하 제한은 부득이한 조치이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시일안에 완화되어야겠다.

혼하지는 않으나 간혹 적어도 100평이상의 住宅을 꼭 필요로하는 사람이 있다. 합리적이지 아닌 대규모 住宅建築은 마땅히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으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꼭 큰규모의 住宅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더 무겁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반면에 建築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줄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20평규모의 住宅으로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쓸데없이 50평으로 짓게 됨을 방지하게 되고, 큰규모의 집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규모있는 住生活을 계획하게 해 주는 적절한 建築行政이 될 것 같다.

劉 永 鳳

創一社建築研究所(冠岳區 新林洞)

建築行政의 側面에서 생각할 때 問題點이 너무 많다. 建築行政이란 百年大計의 立場에서 검토하고 研究하여 실행해야 한다. 法은 있고 行政이 없다면 人體構造로 生算할 때, 머리는 있으나 손 발 없는 불구에 불과할 것이며, 系統이 서지 않을 것이다.

問題는 장구한 建築行政의 不在에서 建築억제나 不許可니 하는 問題가 생길 줄 안다. 建築資材의 品價, 인플레이션, 부동산 투자비용 등의 이유는 建築을 억제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國家方針에 맞지 않을 때, 적절한 課稅로써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량의 建築物이 부족한 現 時点에서 今般 發表한 不許可조치로 國家에 어떠한 利益이 있겠는지? 民間建築투자자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흡수 되는지? 확실한 答은 알 수 없으나 建築은 적극 장려하여야 될 줄 생각한다. 建築의 發展은 곧 國家의 發展이요, 모든 分野를 向上시키며 生動하게 한다.

우리는 70年度初 建築不景氣의 쓰라림을 피부로 느끼지 않았는가! 不健全한 豪華住宅을 타하기 前에 建築行政에 對한 모순점은 없었는가 生覺해 보았는지……? 흙벽돌 집보다 못한 아파트가 5, 6年余에 撤去다 보강이다 야단법석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들의 後孫들에게 물려 줄 實用的인 값진 遺産을 위하여서도 實用的인 建築行政을 올바르게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머리와 손발이 一體가 되어 움직일 때 명랑한 建築行政은 이룩되고 不條理현상은 없어지며, 不許可 소동은 나지 않게 되겠기 말이다. 하도 許可니 不許可니 抑制니 말도 많아 建築行政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設計依賴를 받기 전에 市庁으로 區庁으로 問議를 해 봐야 하는 판이니 딱도 하다. 依賴人에게 “不許可됩니다” “建築許可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겠소” 한다. “許可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許可받을 수 있는 범위대로 해 주시요” “그 후는 우리네가 알아서 하겠소” 이렇게 되면 얼마뒤엔 고발이다, 철거다 하니 一大 소동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國家의 재산이나 個人財産이나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제발 建築法 테두리 안에서 建築行政을 철저히 해 주면 좋으련만……. 萬一 建築法의 모순점이 있으면 法改正을 하면 될 것이요, 指示, 折制의 方法따윈 하지 안했으면 좋겠다. 오늘날 不許可 措置가 一時的인 것으로 생각되나 既存建物の 경우 生産的 面에서 必要不可分 한 데 1坪의 增築 改修도 할 수 없다고 한 措置는 矛盾點이 너무 크다고 본다. 심사 속 고한 點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法은 平等함으로 善惡의 被害者가 있지 않나 充分한 배려가 요구된다. 建築은 個人的 財産, 國家의 財産 과 直結됨으로 偏見은 없는지, 行政當局者는 國民의 前에서 生覺해 주기 바라며, 하루 빨리 建築抑制의 措置가 一掃되여, 必要한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建築士 들은 質 높은 建築物을 세우는데 研究 努力해야 되지 않겠는가…

韓國上流住宅序論

鄭寅國

弘益大學校 教授
韓國建築家協會長
(主筆)

금번 筆者는 오랜동안 文化財委員으로 있으면서 調査研究한 內容을 다음 目次에 의하여 엮어 200枚 가량의 實測圖面을 겹드려 冊으로 펴낸바 있습니다. 이 글은 著 5章의 序論에 妥當하는 部分임을 밝혀 둡니다.

目 次

第 1 章	木造建築總說
第 2 章	配置計劃論
第 3 章	木造架構論
第 4 章	平面 및 立面構成論
第 5 章	上流住宅建築論

1. 住生活本質과의 關係에 對하여

韓國의 上流住宅은 一般庶民住宅이 너무 原始狀態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比較하여 볼 때, 상당히 發展한 住宅樣式과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자세히 그 住居 內容을 分析하여 보면, 極히 停滯한 住生活 狀態에 머물러 있었고, 그대신 住生活의 本質은 아니지만 위에 敷衍코져 하는 다른 生活의 側面에서는 不均衡하게 發展된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住生活의 本質은 食·寢의 두 機能이 基本이 되는 것이며, 이 基本機能은 原始住宅에서는 1室 또는 2室 정도에서 混合營爲되던 것이 점차 人類社會文化의 發達에 따라서 다른 여러가지 機能이 分化處理되며 더욱 더 文化的生活의 程度는 더 해지고, 이 基本住生活 機能은 完全히 獨立된 空間을 占有하게 된 것이다. 韓國의 住居形式과 西歐의 좀 더 進化되었다고 認定되는 住宅과를 견주어 그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住生活 本質만으로써 보면 다음과 같은 根本的差異를 들 수 있다. 즉 客室이 用途別 構成인데 比하여 占有別 構成인 것의 差異, 各室 組合形인데 對해서 各室 分割形인 差異, 行動面이 數段處理인데 對해서 同一平面 處理인 것의 差異 등을 들어 分析하는데 勿論 嚴格한 意味에서 地方的 特色이나 經濟條件을 考慮할 때 위의 住居樣式の 어느 것이 더 合理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가령 混用途와 單用途의 경우에서도 經濟事情이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混用途室이 몇배 合理性을 띠었다고 생각되며, 家具什器 등속은 여기에 알맞도록 고안되어 利用되고 있을 때는 더욱이 合理性은 倍加되는 것이다. 또한 家族制度, 生活方式, 風習 등이 西歐와는 全然다르게 이루어진 한국에서 住居는 이에 適應되도록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住生活의 本質만으로 取扱될 性質은 아니다.

그러나 個體로서의 人間生活을 논하는데 어떤 方式이 보다 合理的이며 보다 높은 文化生活에 가까우냐 하는 점은 食·寢의 두 基本機能을 制定의 基準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余他의 個個人的 集合體인 家族이 家庭內에서 行하는 共同生活部分이라든가 社會生活이 家庭에 浸透되어 形成된 空間과의 關係는 역시 附隨된 性質로 간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上流住宅이라 함은 一般的으로 李朝時代의 兩班階層의 住宅을 指稱한 것으로 그들의 社會

의 地位와 生活相을 窮知하기 위하여 當時의 階層 構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兩班은 最上級の 社會階級으로서 이론바 士農工商의 首位에 當하는 士族에 해당한다. 儒學을 業으로 하고 아무 制限없이 官僚로 昇進될 수 있는 신분으로서 실제로 중요한 官職과 諸般特權은 모두 이들이 獨占한 바 있으며, 한편으로는 名教와 예법을 謹守하는 社會의 指導的階級으로서의 精神의 의무가 있었던 것이니 그 가운데는 자주 大官에 任命되어 官僚로서의 特色이 짙은 경우와 學德을 쌓아 儒者로서의 特色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 이들이 官僚로서 혹은 上級の 社會階層으로서 權力에 參與하는 지배층인 同時에 知識層이었음에는 닮음이 없다”.

위와 같은 신분으로 넉넉히 짐작이 되는 것은 비록 兩班이 地方에 隱居하기 위한 住宅이라 할지라도 한 聚落의 士豪의 教化中心의 役割을 하여 왔기 때문에 住生活의 基本이 아닌 다른 여러 加한 生活機能이 加味되어 왔다. 여기에 논의 對象이 되고 있는 몇개의 上流住宅의 例에서 常任空間의 面積과 다른 部分의 固有面積比는 다음 表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常任面積은 平面에 「방」으로 表示된 온돌방 만으로 마루방, 고간, 텃간, 부엌 등을 除外한 間數이다.

住居名稱	面	積	間數	比	비 고
	(坪)	(間)			
安東養眞堂	100.35	44	14	0.32	孝子亭別途
安東忠孝堂	102.76	48	15	0.32	
禮安李氏宗家	42.53	25	7	0.28	
義城金氏宗家	117.09	51	10	0.20	
安東臨淸閣	110.29	51	16	0.31	君子亭別途
江陵怡橋莊	74.19	54	19	0.35	活來亭別途
月城孫東漸氏	70.46	30	8	0.27	사랑채 포함
永川鄭在永氏	65.34	30	7	0.23	
義城金東周氏	32.23	20	7	0.35	
井邑金東深氏	137.43	73	15	0.21	
慶州崔植氏		61	22	0.36	
求禮雲鳥樓	112.47	55	17	0.31	
月城香壇	69.44	38	10	0.26	
平均				0.29	

余地機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接客 教化部分으로서 사랑채의 대청마루, 儀禮 接客의 極히 使用頻度가 적었으리라 생각되는 안채대청마루, 周邊을 圍繞하고 있는 士豪의 用途로서의 收藏部分卑屈處所등을 合쳐 相當한 面의比例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住生活의 文化程度를 判가름 할 수 있는 衛生施設은 전혀 원시적인 狀態를 벗어나지 못한 點은 注意할 事項이다.

2. 上流住宅에 끼친 影響要素

韓國의 上流住宅은 주택의 正常的인 發展過程을 밟지 않고 特異한 形成過程을 거친 것을 特記해야 할 것 같다. 住宅은 그 地域의 特性에 따라서 생긴 몇개의 基本型이 生活樣式과 文化水準의 向上에 따라서 進化해 나아가기 마련인데 庶民住宅은 이 漸進的系列에 順次로 適應해 가면서 發展되어 온 것이지만 上流住宅은 維多利 影響要素가 任意로 作用하여 特殊한 住宅構成을 하고 있다.

첫째 兩班階級들이 權力機關에 參與하면서 얻은 宮中生活의 經驗이 私家建築에도 影響을 준 事實이다. 뒤에 住宅類型과의 關係에서도 論하겠지만 韓國住宅에서 대청마루는 거후관제를 감안한 때 그리 큰 用途를 遂行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庶民住宅에서는 退마루形成 또는 多用途로 1間程度이든가 南쪽 地方으로 가면서 多少 넓어지는 傾向이 있는데 上流住宅에서는 대청마루 中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宮殿建築(交泰殿, 康寧殿, 昔御殿, 延慶堂, 慈慶殿等)에서 寢殿內의 政事를 兼하는 目的으로 만들어진 대청 中心平面이 私家에 까지 延長된 것으로 해석된다. 勿論 이러한 平面形의 必要性은 上流住宅이 그 地域社會에서 行한 役割로 因해서 士豪의 中心勢力의 本據地로 또는 儒敎指導層의 教化中心處로 또는 社交에 必要한 處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當然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儒敎精神에 立脚한 生活風習의 影響은 가장 큰 것이었다. 儒者선비들의 孤高한 生活態度는 때로는 世俗의 榮華를 敝屣같이 생각하여 質朴檢素하게 物慾을 超脫한 環境에서 生活하기도 하였지만 權力과 指導層으로서의 위세를 體面이라고 생각하여 豪華스러운 住居를 營爲하였다. 그러면 그 風習은 유교의 또 다른 面인 家父長의인 家

族制度, 祖先崇拜, 冠婚喪祭의 禮敎와 儀式重點生活, 철저한 階級意識의 思考方式 등이 住居生活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單的인 表現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으니 住居堅地內에 祖先을 모신 祠堂이 반드시 있는점, 안채의 큰 대청마루는 主로 冠婚喪祭의 儀式을 위하여 쓰이고 있던 점, 身分에 따라서 천차히 居處를 달리한 點들을 들수있다. 그런 中에도 家族生活의 中心이 되는 夫婦生活은 儒敎思想의 特殊性에 따라서 奇異한 環境속에 處해 있었다. 이 間의 事情을 前掲 韓國史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儒敎는 從順을 婦女의 最高의 美德으로 삼고 貞節을 婦女의 生命과도 바꿀수 없는 것으로 여기어 夫婦關係는 父子 君臣關係에 匹敵한 것으로 생각하여 三從의 敎義가 強調되고 女必從夫의 牢固한 觀念에 따라 妻는 夫를 「家長」이라고 불렀다. 또 日常生活에 있어서도 이른바 「내외」라고 하여 居家하여서도 主親이 아니면 男性과의 面接會話를 피하고 婦女의 社交는 患德視되었으며 본래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類의 不自然한 儒敎의 가르침을 遵守한 陋習이 있어…”

심지어 「太宗實錄」에는 夫婦別寢을 下命한 事例도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에 의한 弊習은 住宅平面에 具體的으로 表現되고 있다. 즉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히 区分됨은 勿論이요 夫婦生活에 있어서 어떤 節制와 不自然스러움을 避할 수 없도록 室의 數와 配置는 考慮되어 있다. 상당한 규모의 上流住宅에서도 子女나 考母의 居處로 別堂을 두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대청마루를 가운데 두고 左右로 2 箇의 온돌방 만으로 大家族制度로서의 直系家族間의 生活이 營위되었음을 생각할 때 個別의 生活의 프라이버시와 自由스러움은 原始住宅의 狀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짐작하게 된다.

셋째로는 地域社會에서 行한 中心的 役割이다. 여기에 收錄된 많은 上流住宅은 宗家가 많으며 李朝時代의 親族宗法制度는 이러한 住宅의 特殊性을 形成하게 되었다. 이때의 聚落은 대부분 同族村의 性格을 띠었고 그 中의 宗家는 이 地域 社會에서 經濟的 自衛協同體의 中心이 었다. 이와같은 同族村이 한국 聚落의 特徵이되어 있었음을 韓國史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家族制度를 地緣으로 하는 集團으로 「同族村」이라는 것이 있으니이

것은 同族一門이 集團村落을 形成한 經濟적, 自衛的인 相扶相助의 協同體로서 大家族의 延長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同族村의 數는 西紀 一九三三年 現在로 三十戶以上 村이 七千八百餘, 五十戶以上이 約 四百을 헤아리고…” 라고하여 이미 상당한 移動이 進行된 時期에 이와 같은 숫자라고 하면 大家族制度에 의한 族長型態가 強하게 維持되던 社會에서는 더욱 그 數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廣大한 地域에 자리잡은 上流住宅領域은 모든 社會生活의 焦點의 役割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사랑채의 넓은 中庭과 必要以上으로 廣大한 大廳마루는 地域社會의 社交, 敎化集會의 廣場이며, 많은 甍은 周邊의 奴婢의 處所와 더불어 經濟生活에서의 支配的地位를 意味하였으며, 別堂建築을 中心한 一廊 역시 한 고을의 東軒의 役割을 하였다.

넷째로 上流住宅의 規模는 일찍부터 法典으로 身分에 따르는 制限을 加하여 왔다. 經國大典(A. D 1469)과 大典會通(A. D 1865)에 기록된 間數의 制限은 다음과 같다.

大君 60間, 君 公主 50間, 翁主 宗親 2品以上 40間, 3品以下 庶人 10間, 또 世宗 22年(A. D 1440)의 間閣尺數는 다음과 같다.

大君	君, 公主	翁主宗親2品以上	3品以下	庶人
60間內 接 10間 正寢翼廊 梁長10尺 行長11尺 柱高13尺 其餘間閣 梁尺9尺 行尺10尺 柱尺12尺 樓尺18尺	50間內 接8間 尺數大君 과同一	40間內 接6間 正寢翼廊 梁長9尺 行長10尺 柱高12尺 其餘間數 梁尺8尺 行長7尺 柱高7尺5寸 樓高13尺	30間內 接5間 尺數2品 以上과 同	10間內 接3間 間閣 梁長7尺 行長8尺 柱高7尺 樓高12尺

그러나 이러한 間閣尺數制限은 初期에는 준수되었으나 宗親들의 세도가 커지면서 문란해져서 작하고 더우기 後代에 이르면서는 양반계급의 경제적 몰락과 더불어 庶民에 이르러서 양반층의 住宅을 본따는 경향에서 이러한 制限은 間閣에 이르기까지도 全然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暗暗

裡에 이와같은 尺數限度는 韓國住宅規模를 倭少케 하는 規準으로 되어 대부분의 住宅은 團一的 性質을 띠지 못하였다.

3. 上流住宅原型 追求에 對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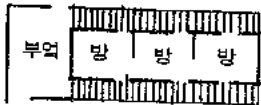
韓國의 住宅類型 分類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行하여져 왔다. 대개 日人들이 行한 雜文的性質의 論文에서 나타나 있으며 全國의 住宅類型을 5 내지 6.0으로 分類하고 있다. 즉 아래 圖表와 같이(第1圖) 北鮮型, 西鮮型, 京城型, 南鮮型으로 類別하고 있다. 이 名稱을 다시 改稱하여 咸鏡型, 西北型, 中部型, 서울型, 南部型이라고 할때 이미 그 뒤의 연구에서 指摘되다시피 소위 西鮮型이 보편적인 平面型으로 되어 있어 다른 類型은 여기서 기후조건에 따라서 變化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庶民住宅의 原型은 어떤 開城地方의 良家의 平面型등에서 쉽게 찾게 되며(第2圖) 이는 좀더 소급해 올라가면 1室 또는 2室型態의 原始住宅型인 것이다.

제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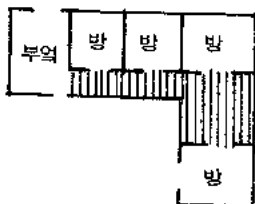
함경형



서북형



중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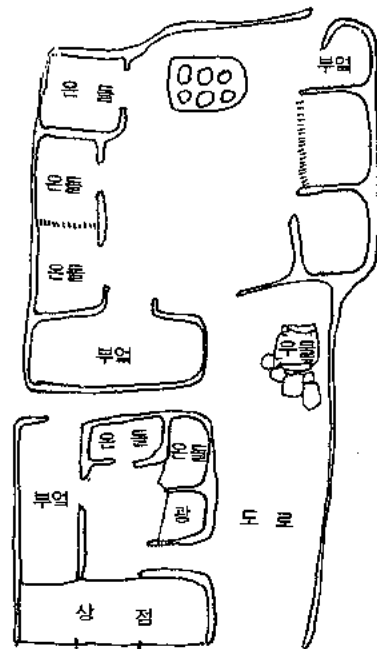
서울형



남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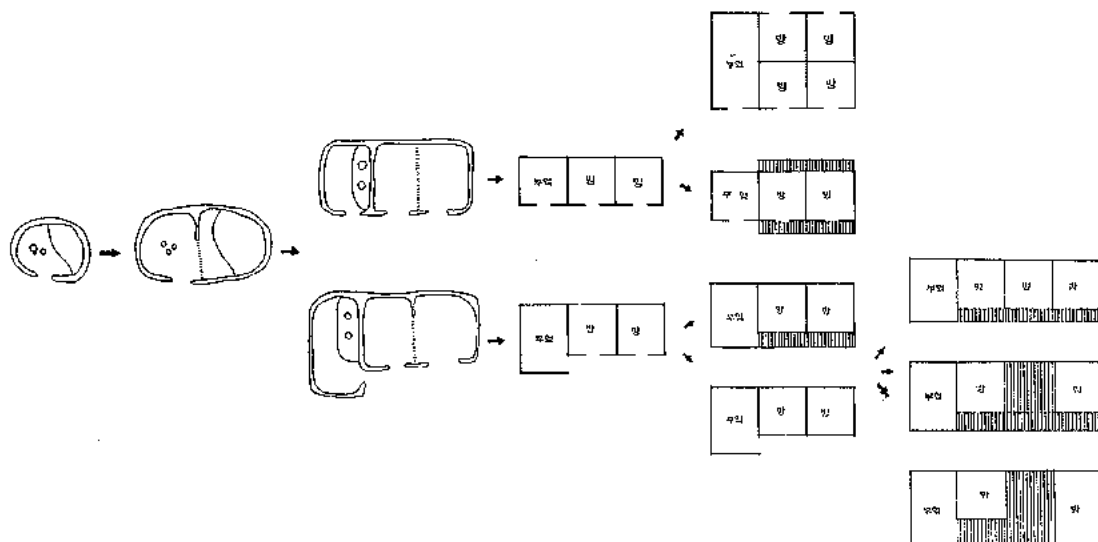
제2도



이 平面型이 韓國住宅의 原型이라는 事實은 여러가지 조건이 달라진 오늘에 있어서도 所謂 西鮮型이라는 平面이 特히 慶南北地方 全域에 걸쳐 散在해 있는 事實과는 反對로 南部型은 慶南北보다는 全南北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 名稱이 表示하는 것 같이 명확하게 形成 分布 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 數的으로 그 지방에만 많이 있는 平面型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단지 명확하게 파악되는 事實은 原始住宅에서 一般型이 形成되는 過程을 다음 圖表같이 說明할 수 있다. (第3圖)

고유한 發展을 하여온 民間住宅에 原型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서울型 平面이 全然 이 發展系統을 따르지 않고 特異한 房配置인 것이다. 궁전의 寢殿建築과 民間住居는 항상 서로 긴밀한 引力관계가 있어 固有한 民間住宅形式은 宮殿에 導入되기도 하며 다시 궁전의 寢殿은 民間住宅形式에 適用되기도 하면서 특수한 發展을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常例에 벗어나지 않고 韓國의 서울型住宅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全然 系統을 달리하는 것은 政廳에서 비롯된 宮殿寢殿이 그대로 民間住宅으로 옮겨져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上流住宅은 두개의 明確한 類型을 固守하고 있다. 그 하나는 위에서 一般住宅의 原型이라는 並列形式의 平面形이고 다른 하나는 宮殿建築에서 파생한 丁字形 平面形이다. 여기에 調査 實測한 上流住宅의 平面을 이 두 類型으로 分類하여 보면 다음 表와 같이 民間建築의 原型인 前者에 속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宮殿住居가 크게 影響을 주지 않았음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一般으로 上流住宅의 原型은 宮殿 寢殿에서 緣由한 듯이 말하고 있는 점은 잘못이며 어디까지나

4. 上流住宅의 優秀性에 대하여

平面上의 固陋한 性質과는 달리 上流住宅은 技法 意匠에서 近代性과도 相通되는 많은 優秀性을 發見하게 된다.

첫째로 平面上의 多目的性이나 融通性으로 이는 韓國住宅의 基本特質이다. 앞에서 指適한 바와 같이 이 性質은 生活의 本質로 보면 極히 妥當한 生活相이며 不合理하다고도 생각되지만 住居保有의 狀況이 經濟事情으로 如意치 못한 우리나라 形便에서는 建築空間의 効用性으로 볼때는 妥當한 方法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서 特記해야 할 點은 中庭의 機能上役割이다. 上流住宅의 中庭은 대부분 狹少하여 庭園의 役割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住宅은 安東義城金氏宗家, 安東臨淸閣, 月城 香塢등이며 이 경우 中庭은 房의 한 부분에 不遇하나, 흔히 近代住宅에서 말하는 内外空間의 相互浸透性이며 대청마루의 開放된 空間과 서로 어울려서 上流生活의 中心이 되어 왔다. 平常生活에서는 上下의 意見伝達 交換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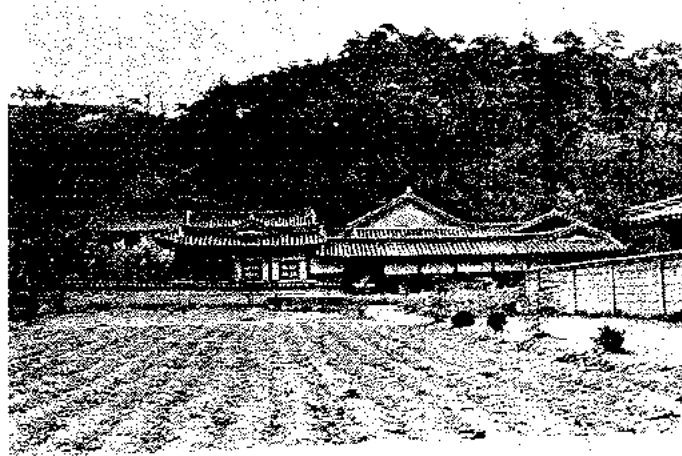
장소로 米客의 接近向方으로 共同生活의 場所로 쓰여졌으며 特別한 冠婚喪祭에는 武場으로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中庭의 性質을 閉鎖的의 空間處理의 한 產物로만 取扱한다든지 多目的인室의 機能을 들어 韓國民의 애매모호한 性質을 낳게한 生活의 한 断面으로만 보는 觀點은 큰 誤謬이다.

둘째로 平面上으로나 構造上 立面上에 나타나 있는 徹底한 規格化를 들어야겠다. 平面上的 規格化는 間이라는 概念으로 明確하지만 構法上的의 必要가 規格化를 強要하여 立面上으로 多様な 妙味와 雅趣를 자아내고 있는 例는 許多하다. 土壁에 窓이나 出入口를 내는 경우 몇가지의 規格화된 門틀을 機能要求에 따라서 配置하는 方法은 構法上으로 合理的일 뿐 아니라 素朴하고 純粹한 이 배치는 立面上으로 新鮮한 맛을 준다. 이와같이 平面上的의 間의 概念과 窓門크기의 規格化는 韓國建築의 優秀性中 가장 두드러진 部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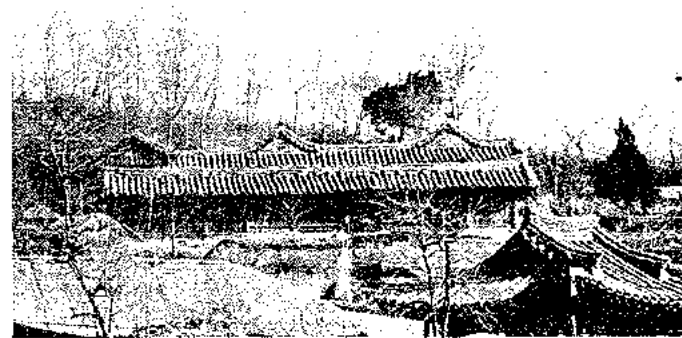
셋째로는 意匠上的의 優秀性이며, 外觀處理는 群으로서의 建築造形과 아울러 個別的 細部手法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의 住宅에 못지 않는 卓越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群으로서의 處理手法에서는 언제나 主從의 關係가 確實하며 水平과 수직感은 妙하게 交叉되어 調和를 이루고, 기둥과 窓의 區隔線은 和音된 音樂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와같은 性質이 눈에 띄게 보이는 住宅은 安東義城 金氏宗家の 接近路에서 부터의 外觀 月城香壇의 遠景등에서 찾을 수 있고 기둥과 窓配置의 妙味는 어디서나 보게 되지만 特別 安東臨情閣 正面, 江陵般橋莊正面, 安東義城金氏宗家側面, 安東忠孝堂西側面등은 가장 아름다운 外觀을 보여주고 있다.

細部手法에서는 窓살무늬의 아름다움은 勿論이고 板門 板壁의 거칠면서도 제임새 있는 縫線, 난간살, 연등天井, 必要한 높이대로 任意로 건너 지른 中杓의 橫線, 처처에 보이는 多分히 遊戲的인 造作등은 韓國建築의 意匠上 特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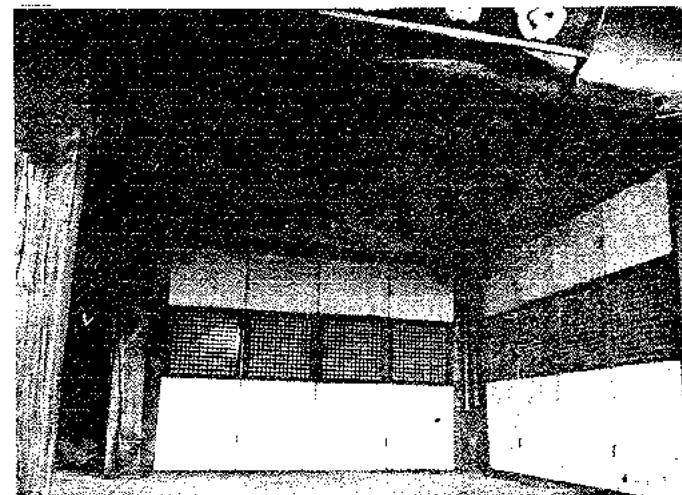
넷째로는 挾地의 妙와 環境의 仙味를 들 수 있다. 當時流行하던 風水說에 따라서 子孫萬代에 福을 누릴 吉地를 挾한 狹에 上流住宅의 立地는 仙境속에 자리잡고 있다. 또 대지內에는 연못을 두고 享子를 지으며, 蓮塘이 없는 경우에도 別堂을 住居環境을 일단 돋보이게 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정원은 細心히 造成하지 않더라도 家宅을 象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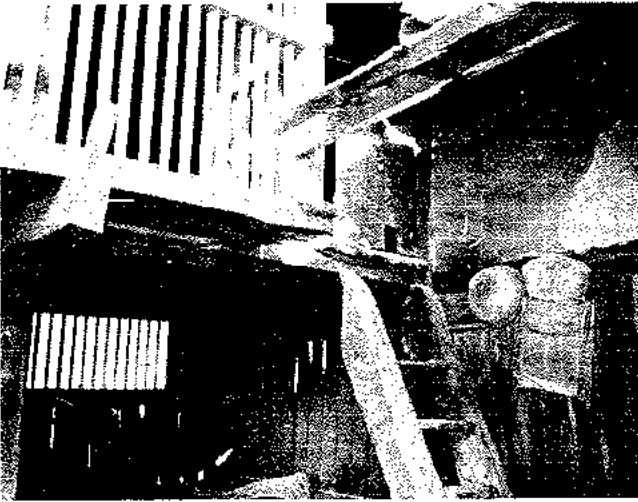
安東義城金氏宗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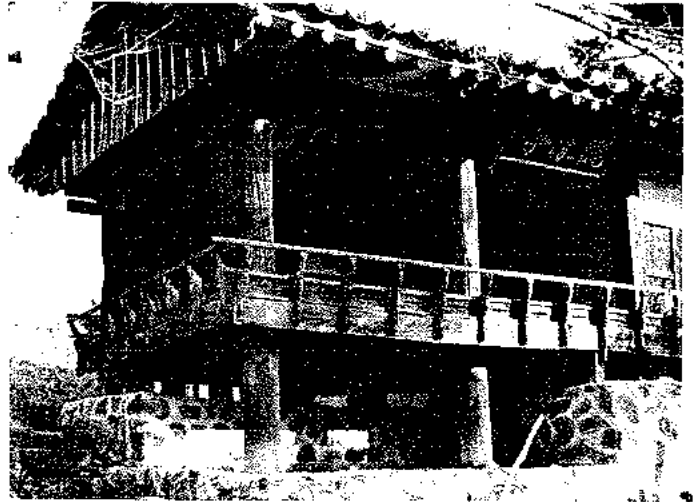
月城香壇



月城孫東滿氏祠堂



月城香壇다락



月城銀稼亭

는 巨木이나 값진 草木으로 家構周邊을 点綴하여 生氣를 돌우고 있다. 이러한 上流住宅의 優秀性은 住宅이 人間의 情緒生活에 미치는 影響面을 考慮할 때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5. 別堂建築에 對하여

上流住宅에 附屬된 別堂建築은 韓國建築의 情趣와 細部構法의 精巧함이 잘 나타나 있는 建物이다. 現存한 본채 建物과 같이 並存하고 있는 別堂은 많은 數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江陵般橋莊 活來亭
安東臨淸閣 君子亭
達城朴滉氏家 太古亭
永川鄭氏永氏家山水亭
醴泉 权氏宗家別堂

이밖에 본채는 없지만 別堂만 獨立해 있는 建物은 懷德同春堂, 月城無系堂, 永川, 崇烈堂 江陵海雲亭, 安東蘇湖軒등이 있어 모두 珠玉같이 아름다운 建物이다.

이 別堂建築은 住居內에서는 사랑재의 延長으로 家長의 多目的한 用途로 쓰여졌다. 接客, 讀書, 閑遊, 觀賞등의 目的에 있었으므로 그 地地는 항상 이에 알맞은 景勝地를 挾하고 人工運塘과 築山으로 環境을 造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住居內에서와 生活機能도 重要하였지만 그 地域社會에서 共同對話의 處所로 또는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 中心으로서의 모든 役割을 行한 것으로 이 建物의 機能은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別堂建築은 그 當時의 建築術의 精粹를 기울여 建築되었기 때문에 韓國建築研究에는 빼놓을 수 없는 貴重한 遺産이다.

綜合所得稅制度 解説과 申告納付對策

金 翼 來

公認會計士

大統領令 第6643号(1973. 4. 23公布)로 改正된 所得稅法 施行令에서는 所得綜合對象者를 大幅擴大하여 綜合所得稅納稅義務者의 範圍를 擴大하였고 또 當局에서는 明年부터는 綜合所得稅制度를 世帶別 綜合所得稅制度로 大幅改正한다고 한다.

그러나 1974年 5月 31日까지 申告納付할 綜合所得稅는 現行稅法에 依하여야 한다.

以下 現行 綜合所得稅制度의 概要와 綜合所得稅 計算實例을 들어본다.

一. 分類所得稅制度와 綜合所得稅制度

所得稅의 課稅方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겠다. 그 하나는 納稅者에 歸屬되는 各種의 所得을 一括하여 課稅하는 綜合所得稅制度와 各種의 所得을 그 所得源泉에 따라 不動産所得, 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 其他所得, 勤勞所得으로 나누어 個別的으로 課稅하는 分類所得稅制度 및 分類課稅所得稅와 綜合課稅制度의 併用의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綜合所得稅制度는 1955年 1月 1日부터 1958年 12月 31日까지 分類 所得稅制度와 併用하여 적용하다 廢止하였고 다시 法律 第1966 號로 制定된 現行 所得稅法(1967. 11. 29 公布, 1968.

1. 1. 施行)에 限定的 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고 지난 71年 12月 28日 同 內容이 大幅 改正되어 (法律 第2315号) 現在에 이르고 있다.

綜合所得稅制度는 원래 高所得層에 重課하고 低所得層에 輕課하는 租稅負擔 公平의 原則에 符合되기도 하고 한편 稅源確保라는 國家財政 政策上 見地에서도 要請되는 制度이다.

그러나 이를 運用하는데는 相當한 難點이 있다.

各國의 所得稅制度에 대하여 살펴보면 綜合所得稅制度는 獨逸·美國 등에서 發達한 制度이며 分類

課稅制度는 美國·佛蘭西·伊太利 등에서 發達한 制度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分類所得稅 制度를 並課하고 있는 實情이다.

二. 綜合所得稅制度의 長·短點

1. 長 點

前述한 바와같이 綜合所得稅制度는 個人에게 歸屬되는 모든 所得을 綜合하여 各種控除制度와 累進稅率을 적용하므로써 所得稅에 理想과 合理性을 실현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綜合課稅의 長點은 各種 控除制度와 累進稅率을 적용함으로써 個人別 事情에 適當한 考慮과 個人의 負擔能力에 따른 課稅를 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最低生活費의 免稅, 災害損失 醫療費 내지 保險料 支出등의 控除 制度를 廣範圍하게 실시 하므로써 所得稅의 本質의 하나인 社會政策의인 手段을 통하여 그 實效를 充分히 거둘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累進稅率의 적용으로 財政收入의 伸縮性을 통하여 財政政策의인 效果를 發揮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行 綜合所得稅制度에는 扶養家族 控除制度나 災害損失, 醫療費乃至 保險料 등의 控除制度가 없고 改正될 同制度에는 이러한 控除制度가 包含될 것으로 사료된다.

綜合所得稅는 所得의 綜合과 超過累進稅率의 적용을 制度의 基本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納稅者의 担稅能力을 量的으로 把握하여 租稅負擔의 實質의 公平을 期하러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言及한 바와같이 例外的으로 特定の 所得에 分離課稅가 利用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根據는 主로 所得의 성질에 基하여 다른 所得과 綜合하여 課稅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所得을 綜所하여 하는 것보다 租稅負擔의 실질적 公平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당해 納稅者의 質的 担稅力에 着眼한 것이므로 그 分離된 所得에 대한 課稅에 관하여서는 租稅負擔의 실질적 公平을 實現하게 되는 것이다.

課稅標準의 算定을 위한 所得稅別 計算方法은 이러한 취지에서 一面 徵稅上의 便宜도 고려하고 있으나 그 所得計算에 있어 綜合 또는 分離 計算方法이 採用되는 것이다.

2. 短 点

綜合所得稅의 이러한 長點은 곧 短點으로 浮刻된다.

所得計算과 그 手續의 복잡이 全的으로 納稅義務者의 申告制度에 依存하게 됨으로 租稅에 대한 知識과 覺醒이 극도로 昂揚되어 있지 않는 限 도리어 租稅회피나 脫稅의 素地를 提供하며 따라서 所得把握이 용이한 給與所得者나 低所得者에 대한 重課가 結果的으로 야기되는 경향이 있고 脫稅를 방지 하기 위한 稅源調査는 各個人의 私生活에 干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不必要한 麻煩을 招來하기가 쉽다.

또는 綜合所得에 있어서의 徵稅上의 복잡한 納稅節次는 相當한 水準의 稅務行政技術을 要求한다.

三. 現行 綜合所得稅制度的 概要

우리나라의 綜合所得稅制度는 從前 分類 所得制度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各分類所得稅別 一定金額以上の 高所有者에 限하여 住所에서 各 所得을 合算하여 課稅하는 制度이다.

即 現行 制度는 分類 課稅所得을 合算하여 重課한다는 것과, 한가지 所得發生者라도 高所得자인 경우에는 重課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이것은 分類所得稅制度에서 綜合所得稅制度로 轉換시키기 위한 過度的 制度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나라 所得稅 制度로는 큰 轉機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1. 納稅義務者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는 다음 各號의 要件에 全部 該當되어야 하고 이중 한 要件이라도 該當되지 아니하면 納稅義務가 없다.

①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6月이상 居所를 둔 個人

② 1年間(1月1日~12月31日 以下同一) 分類課稅 所得金額(非課稅所得免除所得, 基礎控除金額 등을 包含하지 아니한 다음表의 綜合所得金額)이 300萬원 以上인 者.

③ 다음의 所得綜合對象者(1年間)

區 分	金 額
不動產所得	50萬원以上
配當利子所得	"
事業所得	100萬원以上
勤勞所得	180萬원 (註)
其他所得	30萬원

(註) 甲種勤勞 所得者는 1年中 月 課稅所得金額이 15萬 원 以上の 實債이 있는者, 乙勤者는 45萬원 以上の 實債이 있는者는 所得綜合對象者로 看做한다.

綜合所得金額 = 1年間 總所得金額 - (預金・積金・賦金 등의 利子 + 山林所得 + 年金 또는 退職給與 + 非課稅所得 + 免除所得(所得稅法 第8條 3의 規定에 의한 免除所得除外) + 畜産業에 대한 減免所得 +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減免所得 + 緊急命令 第62條 3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所得 + 基礎控除額(事業所得, 勤勞所得) + 住宅福券 當籤金

2. 綜合所得稅納稅義務의 排除

年間所得額이 300萬원 이상이 되는자라 하더라도 分類課稅 所得金額이 前期 各號의 綜合所得 對象金額에 未達하는 者에 대하여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令 第124條)

例를 들어 어느 特定人의 年間所得으로 事業所得 95萬원, 配當利子所得 41萬원, 甲種勤勞所得 140萬원, 不動產所得 40萬원, 其他所得 25萬원 合計 358萬원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各分類所得金額은 綜合所得對象 金額에 各各 未達하기 때문에 綜合所得稅를 賦課할 수 없는 것이다. 反對로 他 所得은 하나도 없고 事業所得의 課稅所得(他 分類 課稅所得 중 어느 所得이라도 同一)이 年間 300萬원 이상인 경우는 綜合所得稅 納稅義務가 있다.

3. 綜合所得稅의 課稅地

綜合所得稅의 課稅地는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로 되어 있다(法 第60條).

이것이 各事業場에서 賦課하는 分類 所得稅와 다른 점이다. 萬 一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가 2個以上인 경우에는 그 主된 住所地 또는 居所地(즉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課稅地로 하고 있다.

(令 第125條, 規則第92條).

4. 綜合所得稅의 計算

綜合所得稅額은 다음의 区分에 의한 各 稅率을 遞次로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의 合計額에 綜合所得稅 加算稅를 加算한 金額에서 名 分類課稅 所得의 算出稅額(實際納付稅額이 아님)을 控除한 金額이다.

다만 綜合所得金額에 申種配當利子所得(紙上配當金을 包含한다)이 包含한 경우에는 그 支給者別 申種配當 利子所得에 金額別로 非合開法人 法人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金額의 100分の 50에 相當하는 金額(法64)과, 企業公開促進法第13條의 規定에 의거 公開法人의 株主로서 發行株式總數의 30%以下를 所有한 株主가 그 公開 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者所得이 綜合所得 金額에 合算된 경우에는 綜合課稅算出稅額中 그 配當所得分에 該當하는 稅額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다(法 第13條).

그러나 稅額控除에 있어서 分類課稅所得의 算出稅額과 申種配當所得에 대한 非公開法人의 稅率을 적용한 金額의 合計額은 綜合 課稅算出稅額에 同 加算稅를 加算한 金額의 合計額을 超過하지 못하여 또 施設積立金이 紙上配當所得으로 된 경우에는 그 紙上配當所得에 대한 稅額에 當해 積立金을 積立한 날로부터 그 積立金이 紙上配當所得으로 決定된 날까지 그 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辺5錢으로 計算한 金額을 分類課稅 算出稅額으로 公제하지 아니한다.

稅額計算過程과 稅率을 算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綜合所得金額×稅率=綜合課稅
算出稅額
綜合課稅 算出稅額－分類課稅算出稅額－
配當金에 대한 세액공제(法第64條)－配
當金에 대한 公제세액(企業公開促進法
第13條)=綜合課稅 決定稅額.

課稅 所得 稅 額	稅 率	累進控除額
300萬원 以上の 金額	30%	—
3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50%	600,000
600 " "	55%	900,000
1,500 " "	60%	1,600,000
4,500 " "	65%	3,900,000

5. 綜合所得金額의 申告 및 自進納付 節次

綜合所得金額의 申告 및 自進納付節次는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가 當該年度分(1973. 1. 1~1973. 12. 31.까지의 所得分)의 綜合所得金額을 그 翌年(1974年) 5月末日까지 住所地 또는 居所地의 所管稅務署長에서 「綜合所得稅에 대한 所得金額 申告 및 自進納付計算書」에 申告所得金額 內訖을 添附하여 自進申告 納付토록 되어 있다. (法 第65條, 第66條 및 令 第128條 第1項, 第129條)

萬一 綜合所得稅納稅義務者가 申告를 한 後 住所地 또는 居所地를 移轉한 때에는 그 移轉한 날로부터 10日以内に 前住所地 所管稅務署長과 新住所地 所管稅務署長에게 各各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 住所地 變更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또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있는 者가 綜合所得稅의 申告納付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綜合所得稅를 申告 納付하여야 한다. (令 第128條第3項)

6. 綜合所得稅의 加算稅

만일 綜合所得稅 納稅義務가 있는 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와 綜合所得稅額을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綜合課稅 算出稅額에 다음의 金額을 加算하여 稅額으로 徵收하도록 하고 있다.

(法 第68條)

가. 申告不誠實加算稅

申告를 하기 아니한 所得金額의 綜合課稅算出稅額에서 分類課稅算出稅額과 申種配當利子 所得에 대한 控除稅額을 控除한 金額 또는 申告하여야 할 所得金額에 該當하는 稅額의 100分の 30에 相當하는 金額을 申告不誠實加算稅로 徵收한다.

申告不誠實加算稅의 計算算式은 다음과 같다.

(綜合課稅 算出稅額 - 分類課稅算出稅額 및 申告하여야 할 甲種配當利子所得에 대한 控除稅額) × $\frac{申告하여야 할}{100}$

$\frac{金額에 未達한 金額(無申告의 경우는 綜合所得金額)}{綜合所得金額} \times \frac{30}{100}$

나. 納付不誠實加算稅

綜合所得稅를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 하여야 할 金額에 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納付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納付不誠實 加算稅로 徵收한다. 이 때 納付不誠實加算稅는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綜合課稅算出稅額 - (分類課稅算出稅額 및 甲種配當利子所得에 대한 控除稅額 + 自進納付稅額) × $\frac{10}{100}$

그러나 綜合所得稅額을 申告 納付한 後 紙上配當의 決定이 있거나 剩餘金의 處分에 의한 賞與金의 支給이 된 때 또는 分類課稅所得金額의 決定後 當該 課稅所得金額의 변동이 있음으로 因하여 綜合所得稅의 納付義務가 생기거나 이미 決定된 綜合所得金額과 差額이 생긴 때에는 그 決定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5日以內에 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게 되면 申告不誠實加算稅 및 納付不誠實加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7. 綜合所得金額의 決定

政府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者가 申告한 申告書에 의하여 當該年度의 綜合所得金額을 翌年 6月末日까지 決定한다. 그러나 다음의 事由가 發生하여 綜合所得金額의 増減이 있을 때에는 이를 更正決定할 수 있다.

가. 綜合所得金額中 申告期限 이후 紙上配當의 決定이 있거나 剩餘金處分에 의한 賞與金이 支給된 때.

나. 定期分의 分類課稅所得金額의 決定後 當該 課稅所得金額의 변동이 있을 때.

四. 綜合所得稅額 計算實例

〈事例1〉

勤勞所得만으로 綜合所得稅 納稅義務가 있는 경우

1) 홍길동은 甲會社 代表理事로서 在職하고 있어 每月 甲社에서 350,000원씩 給料을 支給받고 있다. 홍길동의 1973年度 所得에 대한 74年 5月31日 申告納付할 綜合所得稅額을 算出하라.

〈解 答〉 1. 分類課稅算出稅額

$(350,000 - 15,000) \times 48\% = 118,600$
 〈基礎控除額〉 〈累進控除額〉

$118,600 \times 12 = 1,423,200$

2. 綜合課稅決定稅額

(1) 算出稅額

$3,000,000 \times 30\% = 900,000$

$\frac{1,020,000 \times 50\% = 510,000}{4,020,000(註) \quad 1,410,000}$

(註) $4,200,000 - 180,000$ (12月 分의 基礎控除額) =
 4,020,000

(2) 綜合課稅 決定稅額

$1,410,000 - 1,423,200 = \triangle 13,200$ (원)

2) 勤勞所得地가 그 以上인 경우

김영철은 每月 支給받는 勤務地가 네곳으로 1973年度中 支給받은 勤勞所得은 다음과 같다.

김영철이 1974年 5月 31日까지 自進納付할 綜合所得稅額을 計算하라.

甲勤務地	1,800,000(月平均 150,000)	主된勤務地
乙 "	960,000(月平均 80,000)	
丙 "	840,000(月平均 70,000)	
計	3,600,000	

〈解 答〉 1. 分類課稅 算出稅額(甲勤稅)

(甲勤務地)

$(150,000 - 15,000) \times 32\% = 16,200$
 (基礎控除額) (累進控除額)

$16,200 \times 12 = 194,400$

(乙勤務地)

$80,000 \times 19\% = 15,200$

$15,200 \times 12 = 182,400$

(丙勤務地)

$70,000 \times 19\% = 13,300$

$13,300 \times 12 = 159,600$

(合計)

$194,400 + 182,400 + 159,600 = 536,400$

2. 綜合課稅 算出稅額

(1) 綜合課稅 算出稅額

$$\begin{array}{r} 3,000,000 \times 30\% = 900,000 \\ 420,000 \times 50\% = 210,000 \\ \hline 3,420,000 \quad 1,110,000 \end{array}$$

(2) 綜合課稅 決定稅額

$$1,110,000 - 560,400 = 549,600 \text{ (自進申告納付稅額)}$$

〈事例2〉事業所得안으로 綜合所得稅 納稅義務
가 있는 경우

홍길동은 建築士事務所를 開設하고 1973 年度中
發生한 事業所得이 다음과 같다.

홍길동이 1974年 5月 31日까지 自進納付할 綜
合所得稅額을 計算하라.

第1期 1,500,000 원

第2期 2,000,000 원
3,500,000 원

〈解答〉 1. 分類課稅算出稅額(事業所得稅)

(第1期)

$$(1,500,000 - 90,000) \times 38\% - 101,500 = 434,300$$

(累進控除額)

2. 綜合課稅決定稅額

1) 綜合課稅 算出稅額

$$\begin{array}{r} 3,000,000 \times 30\% = 900,000 \\ 320,000 \times 50\% = 160,000 \\ \hline 1,060,000 \end{array}$$

(註) 綜合所得金額 = 3,500,000 - 180,000 (基礎控除
額) = 3,320,000

2) 綜合課稅決定稅額

$$1,060,000 - 1,099,600 = \triangle 39,600$$

(參考) 上記例와 같이 다른所得이 없고 勤勞所
得이나 事業所得이 한 勤務地나 한 事業場 에서만
있으며 綜合所得金額이 約 300余萬원인 경우에는
綜合所得稅로서 實際 納付할 稅額이 없게되나 이
경우에도 申告書는 提出하여야 한다.

그 理由는 申告後 稅務署의 檢査結果 勤勞所得
金額이나 事業所得金額이 追増되는 경우에 無申告
時에는 綜合所得稅 加算稅를 賦課받게 되기 때문
이다. (筆者 26 9908)

訂 正

2.3月號 P-73의 圖表는 아래와 같이 訂正하여再告示합니다.
日本工事費 現時勢表

生 産 크 리 트	5,700 YEN(円) / m ²
시 멘 트	6,300 " / TON
블 록 크(A種)	100 YEN / 個
鉄 筋	84,000~80,000 YEN/TON
L. G. S.	89,000 YEN / TON
영 글	81,000 YEN / TON
石綿슬레이트	780 YEN / m ²
防 水 剤	1,500~5,700 YEN/18ℓ
木 材	60,000~120,000 YEN/m ²
유 리	2,500 YEN(5mm透明) m ²

(74年 1月末 現在)

p-8 「建築物의 建築抑制制」關의 対象建築物 및 適用地域의
圖表中 「現行」의 1. 対象建築物. 가) 公共建築物

“1) 學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庁舎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의 庁舎”의 誤植임을 바로 잡읍니다.

會員勤靜(全北支部 '74. 1月號) (誤) 金炯直 (正) 金炯直

(1974. 2·3月號 韓國의 古建築 p. 17)

페이지	誤	正
17	建築班研究室 提供	建築班研究室 金鴻植 撮影
17	前面包	無量壽殿 前面包
21	浮石寺 梵鍾閣 난간	安義門 난간
22	後面	梵鍾閣 後面
25	前面 上部	祖師堂 前面 包
25	키包	祖師堂 키包
25	包	安義門 包
※ 25	浮石寺 無量壽殿 高麗中 期 13世紀疎組一形式	祖師堂 架構 14世紀 柱心包 樣式
※ 26	浮石寺 祖師庵 架構 高麗 末14世紀疎組三形式	無量壽殿 13世紀 柱心包樣式
26	前面 키包	無量壽殿 前面키包
26	內部 大樑부분 架構	無量壽殿 內部 대들보부분 架構
27	宝蓋 上部	無量壽殿 宝蓋 上部
27	內部 樑樑부분 架構	無量壽殿 內部 樑樑부분 架構
27	西側 前面	祖師堂 西側面
28	前面階段	無量壽殿 前面階段
29	內部 키包부분 架構	無量壽殿 內部 키부분 架構

建築의 教育問題

〈建築学科과 建築工学科을 中心으로〉

尹 道 根

弘益大学校 理工大學 建築工学科長

우리 나라 大學의 建築教育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러 全國 22個大學等에 建築科가 設置되어 그 外形的인 發展과 多數의 建築人을 排出하면서 建築科의 成長과 數的 팽창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建築의 規定이나 科의 內容 및 性格마저 파악하고 있지 않는 時點에 놓여 있는 것은 着過할 수 없는 問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事實은 建築을 專攻하는 立場에 있는 建築人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했을 것이며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即, 우리 나라 大學에서는 工學部, 理工學部, 美術學部, 工藝學部, 等의 學部와 工科大学, 理工大學, 美術大學 等의 大學에 建築科가 所屬되어 있고, 또 그 名稱에 있어서도 多樣하게 表現되고 있다. 그例를 보면 建築科 建築學科(建築意匠科) 建築美術科, 建築工藝科, 建築工學科 等으로서 各科에 對한 性格과 內容을 어떻게 区分하며 定義해야 할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 工科大学內에 建築工学科과 建築學科가 각기 所屬되어 兩立하고 있는 事實이다. 우리나라의 建築教育과 卒業後의 社會的 建築活動으로 볼때 과연 建築學科와 建築工学科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어떻게 區別하고 選拔해야 할 것인지 每年 大學을 지망하는 新入生으로서의 어리둥절 할 것은 불림없다.

結局 두科는 똑같이 建築을 專攻하는 科이며 工學士의 卒業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教育內容面으로는 어떻게 区分하며 할당해야 하는 것인지 아리송 할 뿐이다.

그리고 美術大學에 所屬하고 있는 建築美術科와 建築工藝科는 結果的으로 美術學士이며 이로 因한 建築活動의 制度的 問題(우리 나라 現實의 建築士 免許取得의 國家考試制)에 適應되지 못할때 卒業後 社會 進出은

別途의 解決策(建築士의 無免許者로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建築美術科는 建築家(Architect)를 양성하는 本然의 科로서, 앞으로 問題가 될 것은 틀림없다. 실내장식만으로 국한시킬 수는 더욱 없다.

어떻든 이러한 問題들로 하여금 建築界와 學界는 한때 큰 話題가 되었을 뿐더러 우리나라 建築教育의 方向感覺마저 모호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建築」 建築이란 무엇인가. 하는것은 各國에 따라서 또는 時代的 배경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한 問題들로 볼때 아직까지 어떠한 確고한 建築教育의 方向과 建築科에 對한 正義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國語大辭典을 펼쳐보면 『「建築」 흙, 나무, 돌, 쇠 등을 使用해서 집이나, 城이나, 다리 같은 建造物을 세워서임』라고 되어 있고, 「建築科」란 「建築學에 關한 理論과 應用을 研究하는 科目」 「建築工學科」란 「建築學의 한 部門으로 構造, 計劃, 材料, 施工法 등에 對한 學門」이라고 되어 있다.

世界百科大事典에서는 『「建築」 一般으로 木, 石, 시멘트, 鋼, 유리와 같은 材料를 使用하여 自然의 속에서 功利的인, 또한 象徵的인 空間을 土地에 固着하여 設定된 構造物을 建築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概定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功利的 空間으로서의 建築」 「象徵的 空間으로서의 建築」으로 分類하고 있다.

結論의으로 建築은 科學的要素와 藝術的要素를 포함하고 있는 即, 科學과 藝術의 中間的인 存在로서 藝術과 技術 또는 技術的 藝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建築은 社會, 經濟(City Planning), 藝術(Architect), 工學(Engineer) 등의 三角的面으로 이루어진 人爲的要素와, 環境條件에 依한 自然的要素로서 規定하고 있다.

建築의 教育을 가장 合理的인 體制라고 主唱한 Bauhaus의 藝術的인 教育機構와 運營方法을 따르다면 時代的 動向이나 先進諸國의 例로 보아 獨立된 하나의 Section으로서 建築大學 내지는 建築學部에 所屬되여 建築學科(Architect)와 建築工學科(Engineer)를 設置해야 할 것이다.

Architect는 空間을 創造하는 造型藝術로서 어느 分野와도 關聯되지 않는것이 없는 綜合藝術로서 등장시켜야 하고, 工學的 및 科學的 側面으로는 建築工學科로서 Engineer를 양성해야 하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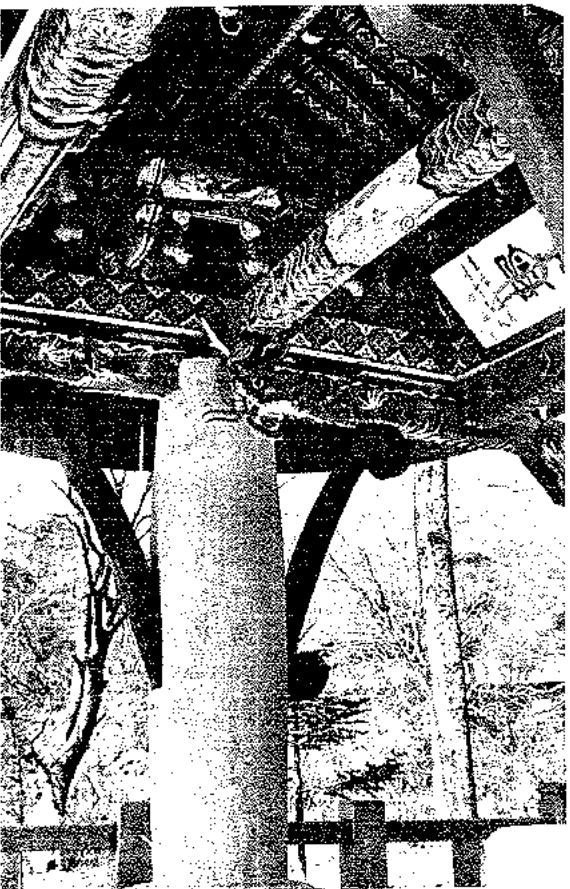
이와같이 建築學科나 建築工學科는 다른것으로 區別하여 분리되는 方向으로 그 改編은 當然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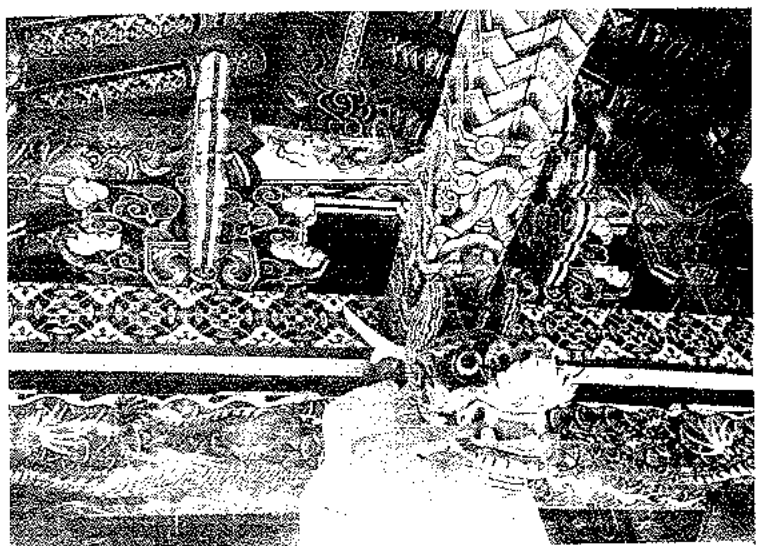
修德寺 一柱門 前景

② 韓國의 古建築 (探訪)
修 德 寺

撮影：金鴻植



修德寺 一柱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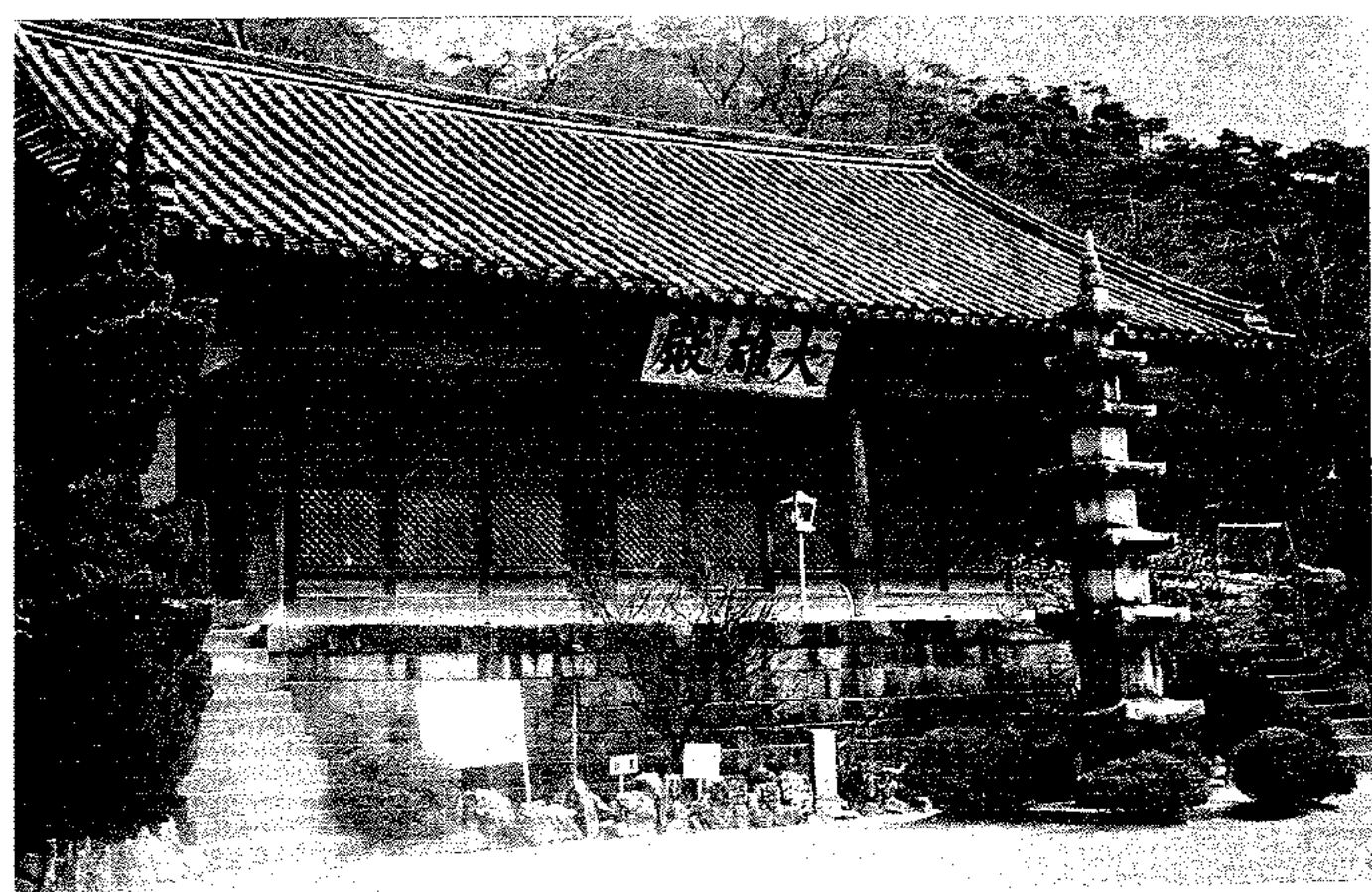
修德寺 一柱門



修德寺 大雄殿 全面

修德寺 一柱門 円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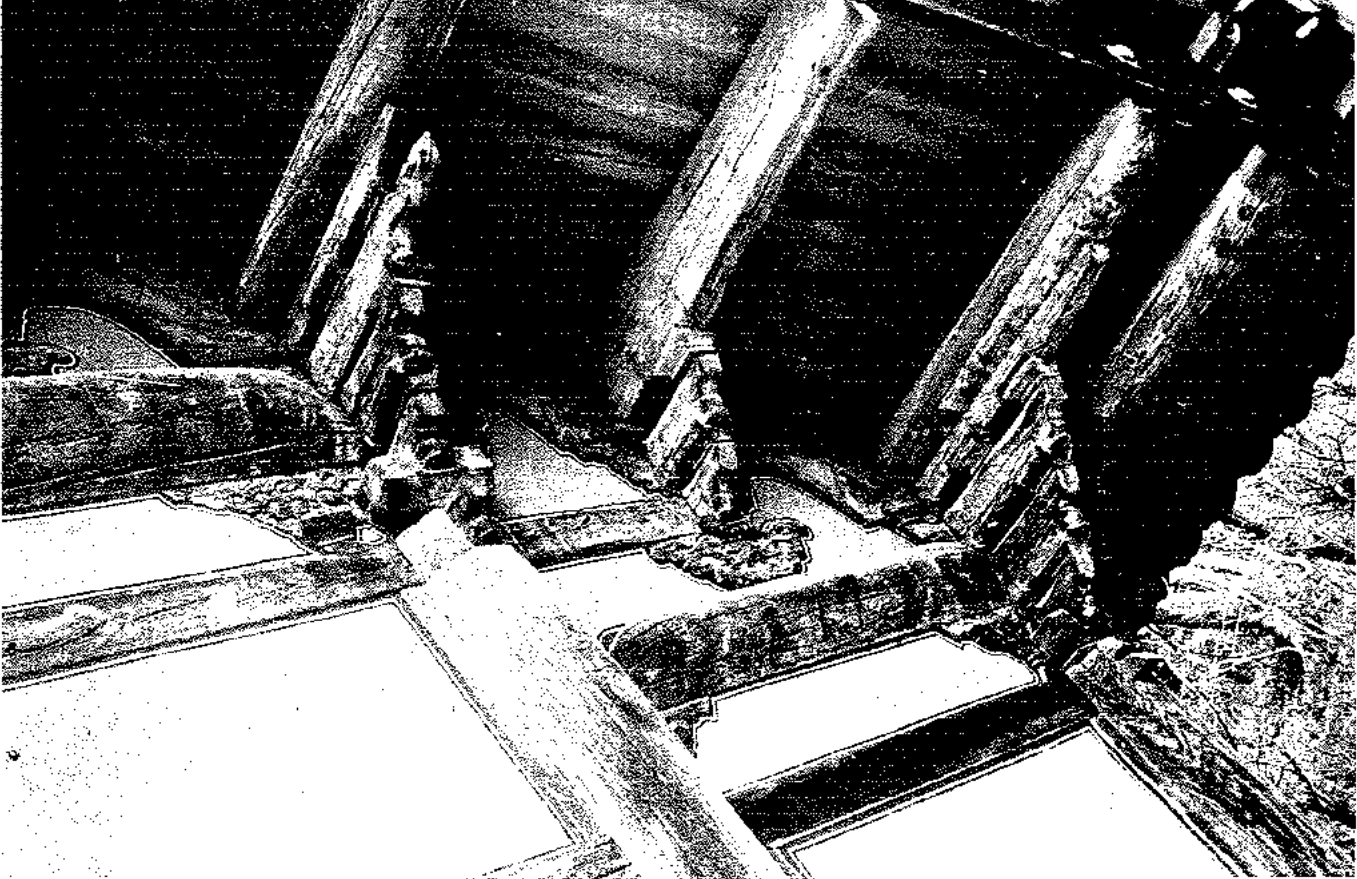




修善寺 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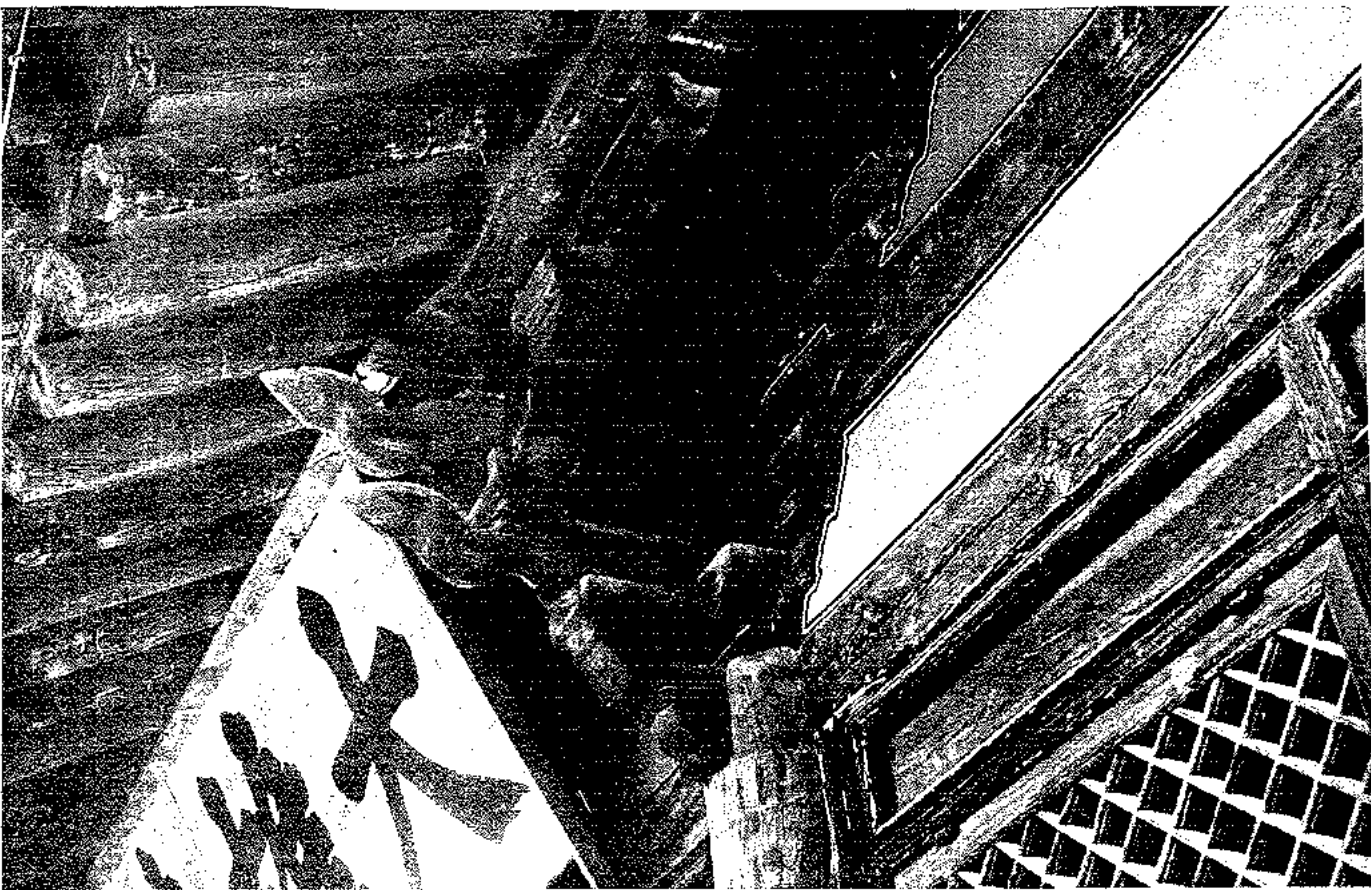
修善寺 大雄殿 左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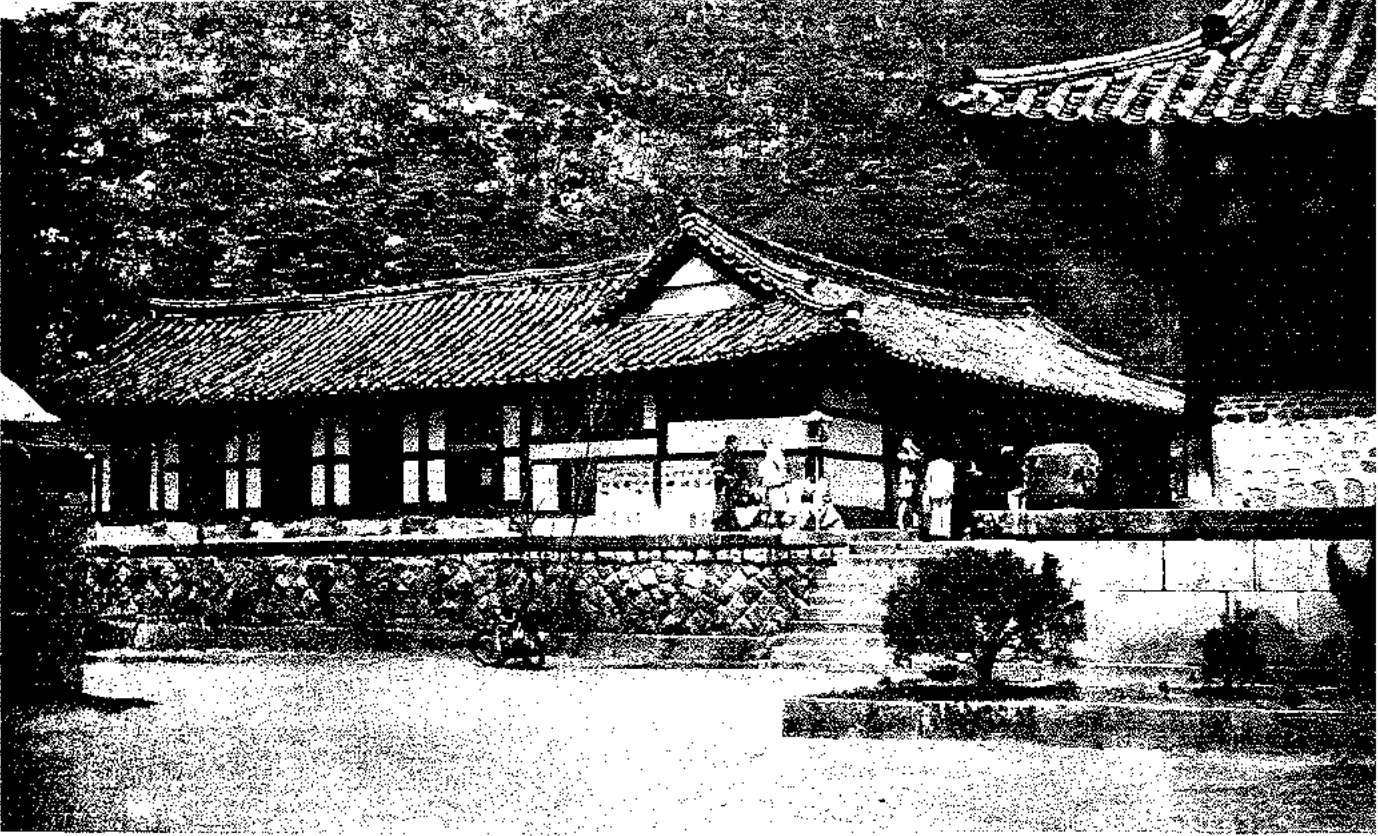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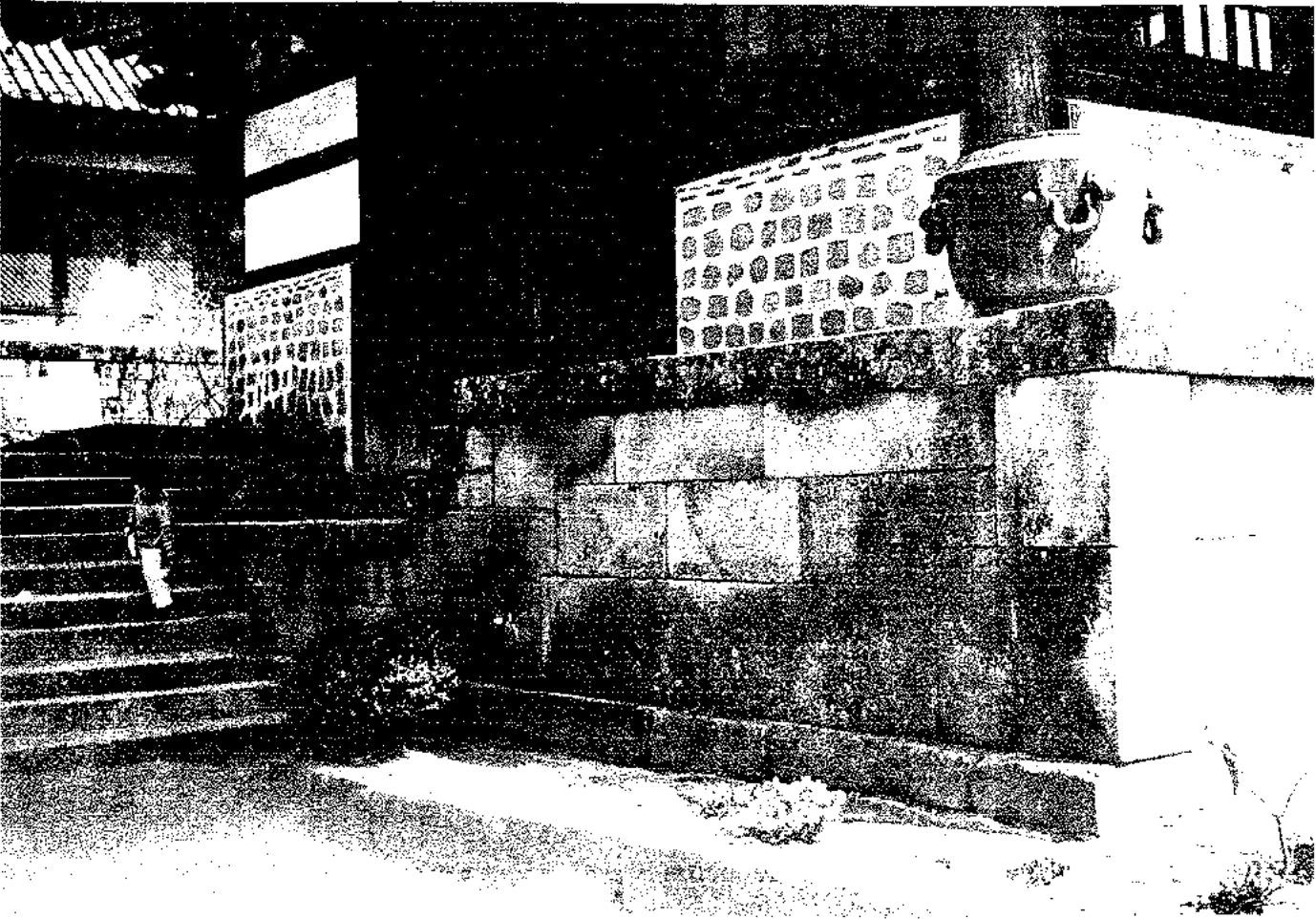
修徳寺 大雄殿 側面 包

修徳寺 大雄殿 前面 包





修德寺 殿堂 全景



修德寺 講堂 基壇

修德寺 7層 石塔

修德寺

○所在地

忠南 禮山郡 德山面 斜川里 山4의 1

○指定文化財

國寶 49号 修德寺 大雄殿

○沿革

修德寺는 新羅時期 智命法師에 의하여 創建되었다고 傳하며, 大雄殿은 서기1937년~1940년에 시행된 수리공사에서 高麗 忠烈王 34年(1308년)에 建立되었음이 밝혀져 建立年代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木造建物로서 이음이 높다. 이 建物は 그것의 建立 百年代를 알기 때문에 他建物を 이것과의 樣式的 差異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 건물의 建立年代를 추정하는 하나의 基準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貴重한 遺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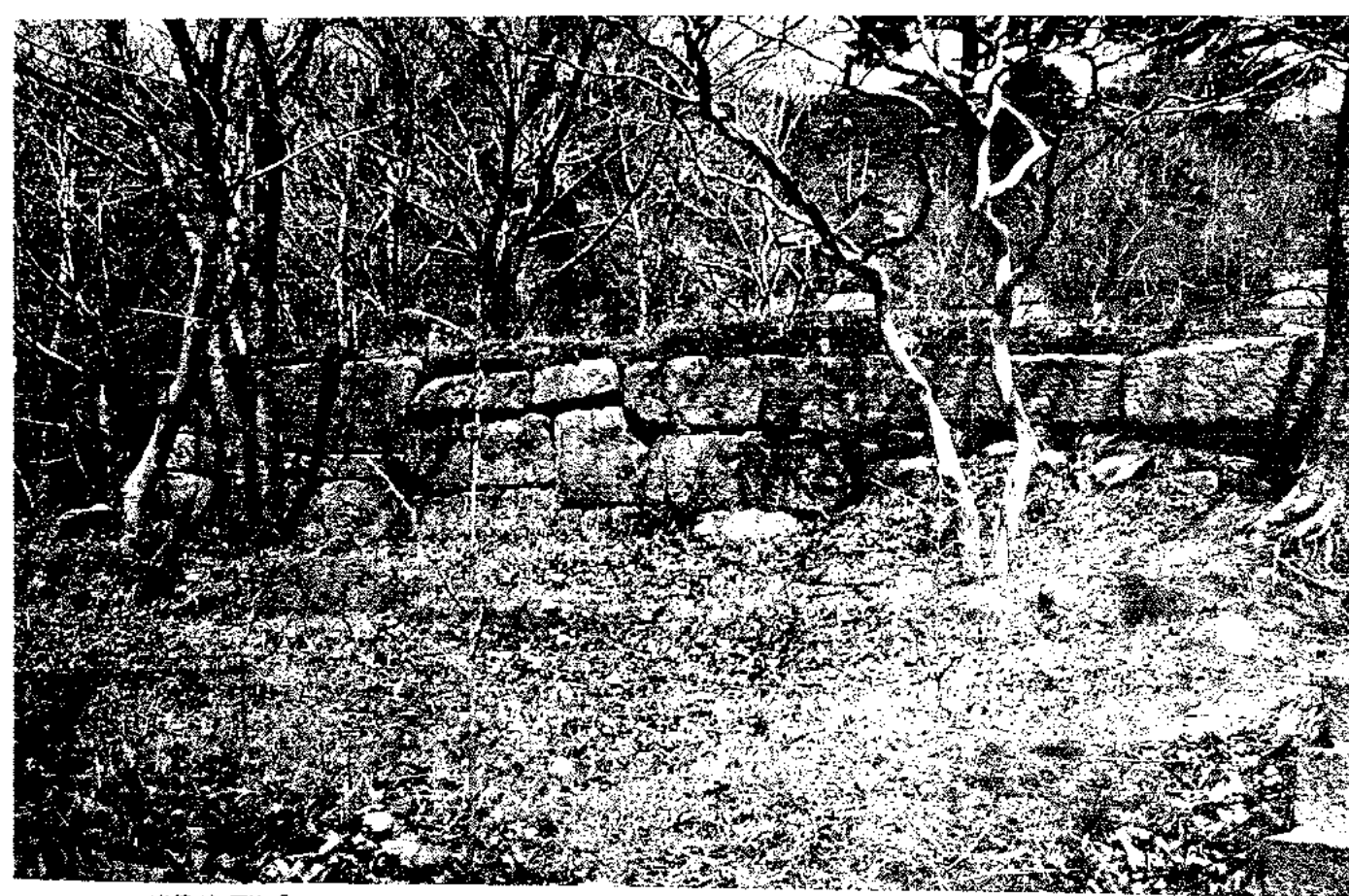
○規模樣式

正面 3間 側面 4間 單層 맞배지붕 柱心包 詰으로서 架構手法은 浮石寺無量壽殿과 흡사하며 細部樣式에 있어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이 2棟의 건물은 韓國建築에 있어서 13~14世紀의 건물 樣相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標本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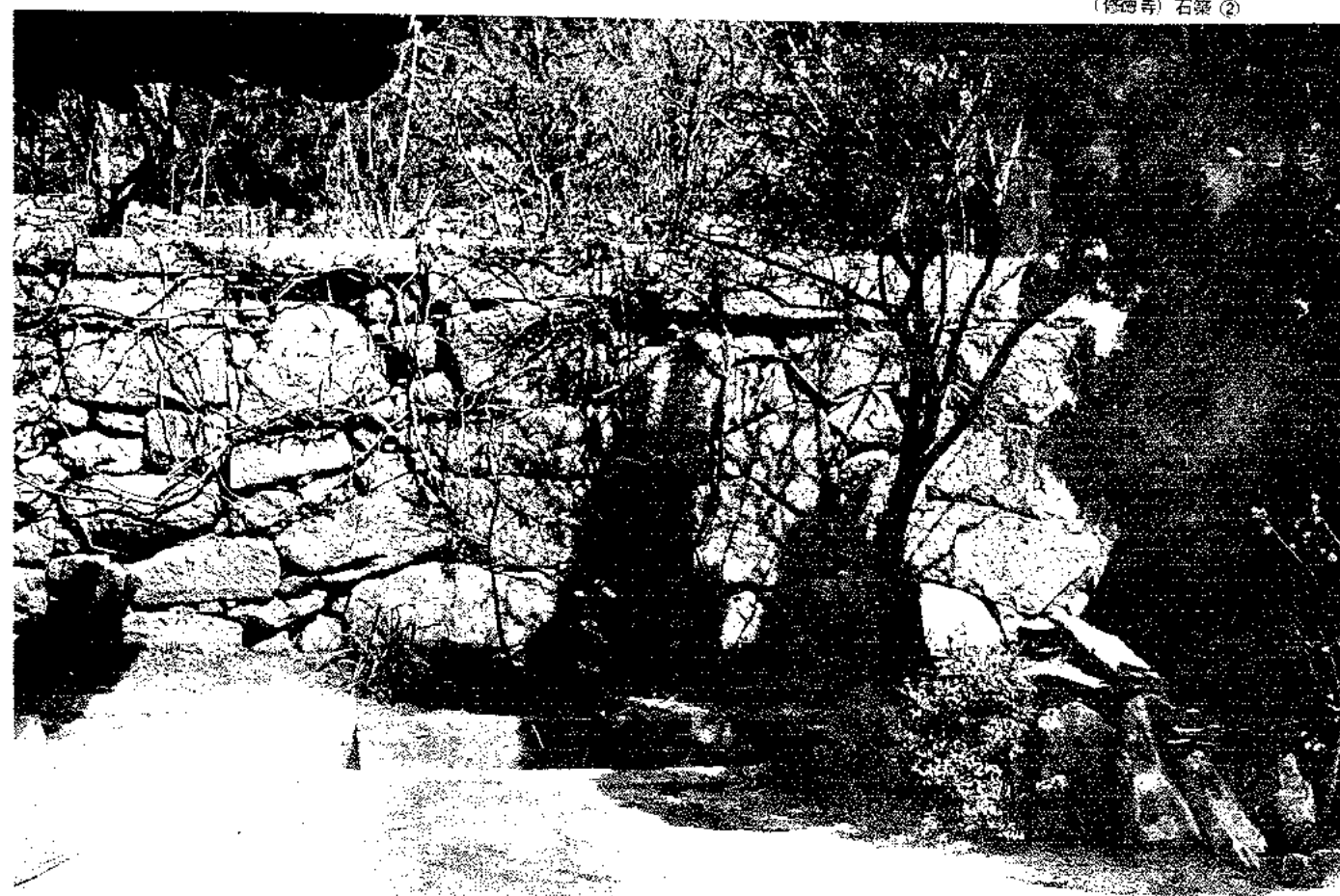
바닥은 현재 무릎마루이나, 원래는 土床이었던듯한 흔적을 볼 수 있다. 正面 各間은 모두, 살을 45°로 경사져서서 판 교할문을 달았다.

修德寺 3層 石塔(如來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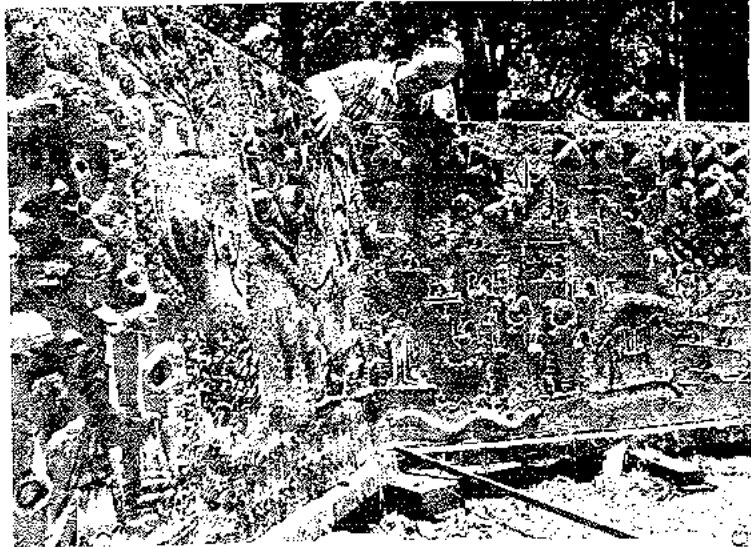


(修徳寺) 石築 (1)



(修徳寺) 石築 (2)

콘크리트의 새로운 浮彫方法



Paul Ritter 氏와 "Sculpcrete" 벽

오스트레일리아의 파울 리터(Paul Ritter) 氏가 새로운 콘크리트 부조 방법인 "Sculpcrete"를 발명하였다.

그는 섬세한 장식의 상텔리어, 전등 갓, 꽃병, 여러가지 틀, 재털이, 조각작품들, 타 이루, 벽판, 심지어는 비석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Sculpcrete"란 조각(Sculpture)과 콘크리트(concrete)를 합친 단어라 한다. 그는 벽 판을 만드는데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평면한 벽판은 너무 단조롭고 인상적이지 못하며 매력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Sculpcrete"식으로 벽을 만들어도 평범한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Sculpcrete"식 벽판은 광택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안나게 할 수도 있으며, 벽을 매끈하게 만들거나 울퉁불퉁하게 할 수도 있으며, 크게도, 작게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다 한다.

리터(Ritter)씨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Perth에서 살며 작업하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Perth 市議員이며 建築家 고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고향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일년에 몇주일간씩을 해외에서 강의하며 보내고 있다. 또 그의 널리 알려진 저서로는 Planning for Man and Motor, The Free Family, Education 등이 있으며 올해(1974년)에는 Encyclopaedia of Australian Planning을 완성할 계획이 나.

리터(Ritter)씨가 "Sculpcrete" 방법을 고안한 것은 1969년이었으며 그의 첫번째 성공작품은 한 유치원의 벽에서였다. 하지만 그가 이 방법으로 국내외에 크게 봉헌한 것은 1973년도에 이르러서였다. 그리고 1974년도에는 더욱더 바빠지게 되었다. 그는 이 방법에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이하(1974년) 말 그는 영국, 서독, 네델란드,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을 여행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의 "Sculpcrete" 방법으로 만든 작품들도 전시할 계획이다.

地域社會 福祉館 建立에 對하여

(Save the Children Federation/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지역사회개발 아동복지재단(SCF/CDF) 그 성격과 사업



Dr. Melvin E. Frrarey

지역사회개발아동복지재단은 비영리, 비정치, 비종파적인 국제민간 복지단체로서 한국통란 말기(1953년)부터 유엔기관 및 정부기관과 발맞추어 피난민과 미망인, 불우 아동들을 도와 주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500만불 이상의 원조금으로 10,000명 이상의 아동들의 학교 교육과 6,000건 이상의 가정 및 부락의 자조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발전 :

본 재단은 특히 농촌주민이 자조적인 노력으로 마을을 잘 살게 만들고자 하는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1957년 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사업을 지원 지도하여 그들의 창의와 협동심, 자주성을 개발하고 존엄성을 높이며 나아가서 경제사회적인 생활을 향상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 1973 회계년도에는 40만불의 지원금으로 잘 훈련되고 경험있는 지역사회개발조정관 및 개별 사회사업담당자를 포함한 16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경기, 강원, 서울 등 5 개 시, 도와 2,300가정과 70 여개 부락에서 각종 복지 활동과 개발사업을 지원 지도하였다.

정 부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운동”과 발맞추어 주민의 개발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개발과 관계 있는 기관이나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5 개 대학의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사업 계통의 학생의 현지 실습도 지도하여 왔다. 지도력을 육성하고 주민들의 자조기술을 발전시키며 사업조직과 계획,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행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전자계산기에 의한 사업 등록 및 보고제도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부락단위 사업에서 지역단위 집중지도 사업으로의 전환

이 와 같은 본 재단의 노력은 근년에 이르러 발전하는 한국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에 맞게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연부락 단위 사업지원의 방향에서 몇개 인근부락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으로 당해지역 전체주민이 자조적으로 협동하여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계획적인 개발활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본 재단에서는 1972년 말기에 3 개 집중지역을 선정하여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이 다목적 집중지도사업은 선정된 지역사회나 집중지도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한 광범위한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농촌이나 도시지구의 적당한 규모로 한정된 집단지역으로서 가능하면 타지역과 지형적으로 구별 되는 곳.

둘째 인구가 대체로 2,000~5,000 정도로.

셋째 지역의 모든 중요 계층으로 구성하는(즉 장년, 노인, 청년, 부녀, 교육자, 농민등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강한 자도력이 있어야 하고

넷째 지역 주민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인사로 주민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지역사회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 실시, 평가 등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시설의 부족으로 부터 낙후한 생산수단에 이르기 까지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으로 자조개발을 위한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의 목표

1. 경제, 보건, 사회, 교육, 문화 및 환경적 계요인을 포함한 생활의 질을 개량하며
2. 지역내에서 다수인을 기초한 의사 결성, 지역사회 통제, 단체간의 협조 및 장기 개발계획 수립 능력을 포함한 지역사회개발과정을 자극 고무한다. 자조적인 개발을 위한 잠재력은 이 사업의 본질이다.
3. 사업과 재단활동의 가시성을 포함한 실제적인 전시효과도 노리며
4. 전통과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활동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집중지도사업은 그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언제나 지역의 본질적인 특성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삼각적 구성요소를 사업지역내에 설치한다.

1. 현지사업조정관(재단 직원으로 현지에 상주한다)
2. 지역사회개발위원회
3. 지역사회복지관

이리하여 이 사업은 과거 자연부락 단위에서 소규모로 하던 것을 더 넓은 규모로 4~8개리(個里)를 하나로 묶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위에 열거한 삼각적 구성요소의 강력하고도 협동적인 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 실 본 재단에서는 한국정부에서 시작한 “새마을 운동”과 같은 사업을 과거 15년여에 걸쳐 400여 부락에서 실시하여 왔다. 이제 정부에서 전국에 걸쳐 “새마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으로 근면·자조·협동하는 정신 아래 주민들의 조직적인 자조개발사업은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집중지도사업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자연부락에서 인근부락으로 확대 연결되고 보다 큰 범위에서 협동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발전과정으로 민간단체나 정부의 지원활동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시도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년들어 정부에서도 새마을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2~3 마을이 한데 뭉쳐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재단에서는 이 집중지도사업지역으로 1972년 가을에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첫번째 지역(Impact Area)은 강원도 춘성군 동면에 있는 6個里이고 두번째 지역은 양구군 동면에 있는 8個里이고, 세번째 지역은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산북지역의 7個里이다. 이들 지역이 선정되면서 주민들은 자기에 대표자들로 지역사회개발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73년 4월 부터는 각종사업을 계획 실시하게 되었다. 계획된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관 건축이었다. 위 세

지역에서 각각 특색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중지도사업의 세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 중의 하나 이므로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복지관에 관하여 본 재단에서는 다음 몇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1. 지역사회 복지관은 사업지역내에 한 건물이나 몇개의 인접한 복합 건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다목적한 지역사회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사업조정관과 보조원의 활동 근거지로도 사용되며 지역사회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이며 그들이 사회시설사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서 수 많은 사업이 이 복지관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2. 복지관의 소유권은 지역사회개발위원회나 그와 관련된 법단체가 갖는다.
3. 복지관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와 건축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해야한다. 물론 외부의 건축기술자의 조언이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4. 가능하면 복지관을 건축하는데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것이며 건축양식과 실내 구조들은 그 지방의 문화 전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 러면 위에 열거한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 점은 본재단에서 “복지관 건축”에 관하여 특히 중요시 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널리 권장하고 있다. 흔히 농촌사람들은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도시형의 건물 즉 그들 농촌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짓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환경이나 문화 전통을 망각하고 도시생활을 농경한 나머지 맹목적으로 도시형건물이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 그들의 환경에 맞고 그지방 고유의 문화 전통을 살리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여기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산북지역, 강원도 양구군 동면지역에 건립한 복지관을 살펴 보기로 한다.

산북지역은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7 洞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2,500이 넘는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역단위의 큰 회의나 잔치, 예식, 교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뜻을 함께 하는데 있어서나 행동을 함께하는데 있어서나 그 기초적 단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만큼 집회소의 필요성은 큰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을 유치원, 공공도서관, 청소년 그룹활동, 부인활동, 노인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교육 기타 훈련을 위한 전당으로도 쓰여질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의 형태가 모든 주민들에게 자극을 주는 본보기의 건물로 되어 있다. 총 65명의 한식 건물로 내부는 회의실 40평, 사무실 11평, 숙직실 4평, 취사실 3평, 별관 일부 7평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의 건축을 위해서 주민들은 매지 508평을 스스로 구입하고 연인원 1,200여 명이라는 노력을 동원했는데 그것은 대개 하천에서 자갈 코레 호박줄 채취 및 운반 그리고 흙파기, 자재 운반 등이었다. 주민들은 공공건물인 복지관을 짓고 난 후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가져 보기는 처음이며 어디처도 이러한 공공회관 건물을 가진 곳이라고는 한국내에서는 없을 것이라고들 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집을 자랑하며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농촌사람들은 우리나라 고유한 한옥다운 건물을 짓고 살아 보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며 언제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우리 전통적 건물을 실로 애호하며 값있게 사용한다.

강원도에서는 춘성군 동면과 양구군 동면등 2개 지역이 본재단 집중지역으로 선정되어 광범위한 복합적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구 동면은 휴전선 근방 최전방에 위치한 빈한한 농촌으로 700여호로 구성되어 있다. 1973 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중앙지에 2,503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25평짜리 복지관을 건축하였다. 한국의 전통성을 살려 호박틀로 벽을 만들고 한식기와로 지붕을 이은 이 건물에는 회의실과 사무실, 취사실, 목욕탕, 숙직실 등이 있고 책상 의자등 내부 시설도 되어 있다. 총 4백 여만원의 건축비중 277명의 노동력을 포함한 40여만원을 주민이 자담하였고, 재단에서는 3백 8십여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건물은 1. 회의실 등 공공의 모임 장소로, 2. 탁아소 등 어린이집으로, 3. 결혼식 등의 예식

장으로, 4. 주민들의 전전한 오락장소로, 5. 각종 기술 훈련 교장으로, 6. 그리고 지역 복지 행정을 위한 사무실과 상담실로 사용될 것이다. 이 전통성을 살린 건물은 주민의 자랑거리이며 누구나 아껴 쓰고 잘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복지관을 건축한 후 주민들은 그 옆에 30명짜리 공동작업장과 12명짜리 창고, 공중변소와 앞뜰에는 시이소와 그네등 어린이 놀이기구를 마련하여 다목적한 복지 센터로서의 면목을 갖추어 놓았다. 공동작업장에는 금년 1월에 삼각기계를 13대 구입하여 지방에 사는 젊은 여직공 20명을 훈련시켜 지금은 한 직공이 하루에 80 켄레를 짜내고 있다. 70만원의 자금을 들여 시작한 이 장갑공장은 연간 300만원정도의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며 주민들은 이 복합적인 다목적 복지센터를 통해서 사회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사 측면에서도 지역주민의 활동 중심지로 되어 가는데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요사이에는 매일같이 수십명씩 모여들어 작업도 하고 회의도 하며 뜰에서는 20여명의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며 지낸다.

이 지역의 개발 위원회에서는 주민활동의 중심적인 이 복지관 뿐만 아니라 8개 부락에 있는 7개 부락회관 운영문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각기 화관이 그곳 주민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갖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 집중지도 사업은 주민이 조직한 지역사회개발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복지관을 중심으로 제단에서 파견된 조정관의 행정과 기술자도를 받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인 개발사업을 계획 실시하여 지역을 포괄적이며 다목적하게 발전시켜나가는 새로운 농촌개발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Dr. Melvin E. Fraey氏 주요경력

현 직 위 : 지역사회개발 아동복지재단 한국자회장
및 본부 사업부장

국 적 : 미국

1954-1958 한국 한미재단 근무

1959-1962 한국 부총부 고문관

1962-1963 한국 강원도 고문관

1963-현재 지역사회개발 아동복지재단 근무.

주한근무연한 : 20년 (54세)

주요사업 실적 :

한미재단에서 사회사업가로서 불우한 아동들의 생계와 그들의 직업훈련에 종사했음.

부총부 고문관으로서 지역사회개발 지도사를 많이 양성했음. 그들의 훈련교재, 농촌지도의 기술과 방법등을 연구하고 전국적 농촌개발사업을 연구함. 이 지도사들이 있음으로써 농촌 지도소가 생겼다.

강원도 고문관으로서 뒤떨어진 농촌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각종사업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기술 및 봉사활동의 기술을 가르쳤다.

지역사회개발 아동복지재단에서

본부기획부장으로 4개의 지역사무실과 13개의 지회 사업을 통괄하고 그밖에 16개국 정부와 협약하여 후진지역의 개발에 종사하였다.

한국자회장으로 매년 약 \$380,000-의 지원금을 들여와서 한국아동 약 2,300명의 교육비지원, 가정자조사업 지원, 지역사회개발 공동사업 지원, 기타 재해복구지원등을 하고 있다.

산북지역복지회관

(새 마을 회관)

건축 주 : 산북지역복지위원회(지역주민자회 회)

건립후원 : 지역사회개발 아동복지재단 한국 지회
(C. D. F.)

문채위, 윤반 시타 집역(연1.2 00명)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남산면 산북지역.

대지면적 : 508평 (6 M 도로 옆 산언덕동향)

구 조 : 호박농작 2백, 한식계와 저방.

연 면 적 : 65평

공사비 : ①지방주민부담(약1,068,400원)

②후원자금부담(8,472,000원)

설 계 자 : 신조건축연구소 대표 오 웅 석
담 당 : 송성호, 최희경.

설계일자 : 1973년 5월.

설계상의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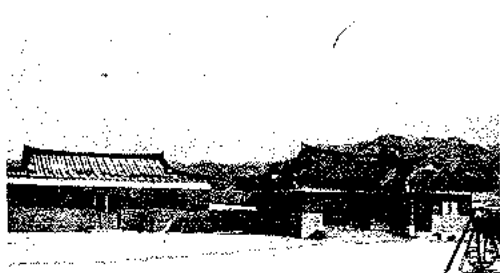
1. 지역주변에서 구득할 수 있는 호박등을 주저재로 사용하였으며
2. 지역주변의 풍치와 지역주민의 생활과 어울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한식기와 집붕으로 설계하였음.

건립취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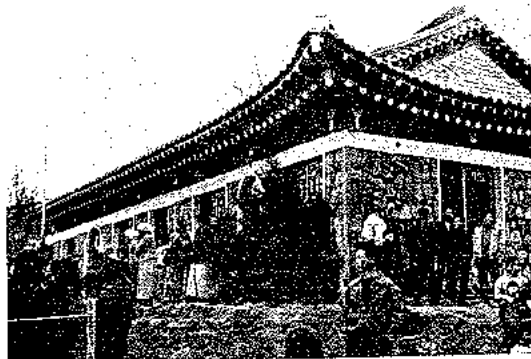
지역복지 활동을 위한 집회소, 휴식원, 공동도서관, 청소년구급활동, 부단활동, 노인활동, 기술교육 훈련, 결혼식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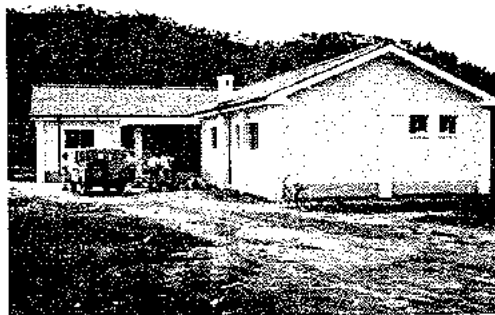
1973年 11月 경기도 여주군 산북지역 社会福祉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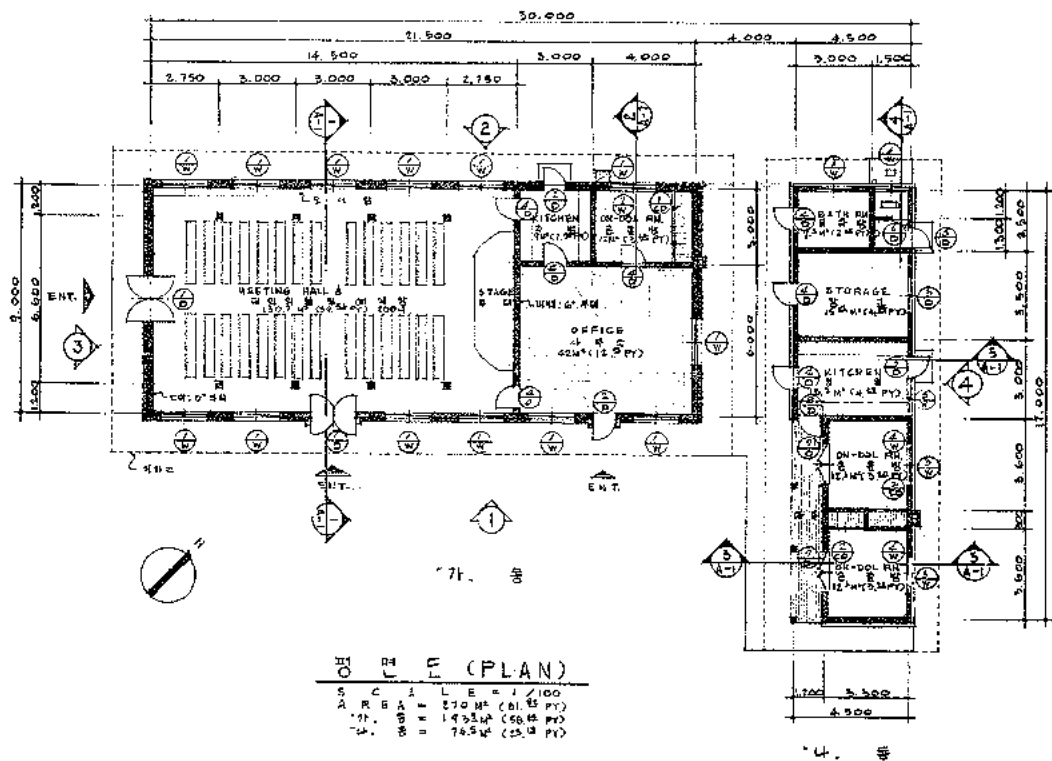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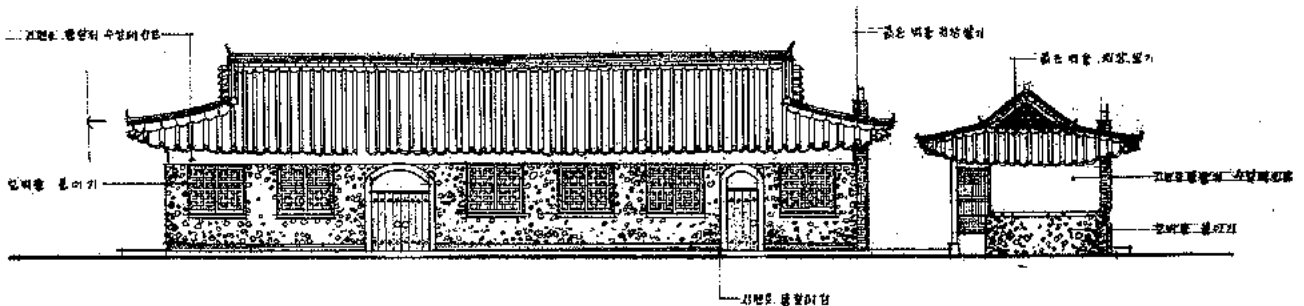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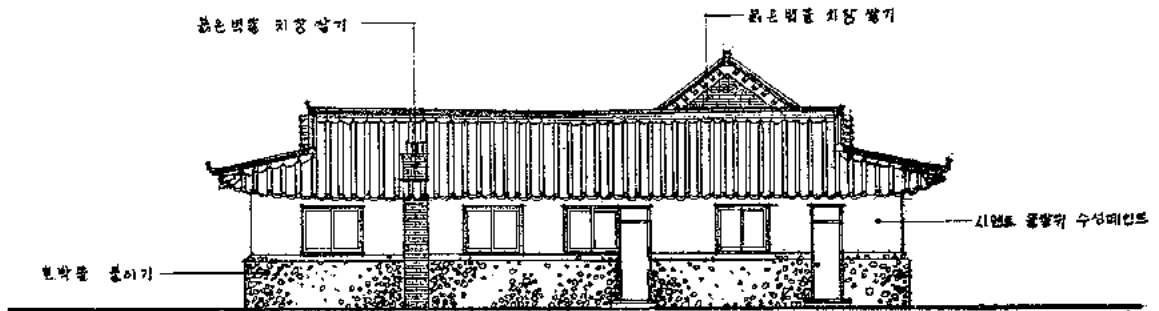
1973年 11月 강원도 양구군 등면에 建立된 福祉館



建築材料는 그 地方에서 直接 채취했다.
호박들을 채취하는 人夫들.



훈성복지회관



病院計劃과 面積配分

病院管理学会學術大會 發表演題抄錄

金 東 珪 (金東珪建築設計事務所)

病院建築의 平面計劃(I)

病院建築에는 建物の 安定성과 保安을 위하여工學的인 法的制限이 있고 醫學的인 要求條件으로 施設基準이 있다.

병원건축의 適用될 法令은 다음과 같다.

1. 建築法, 同施行令, 同施行規則
2. 各級 行政官署의 建築條例
3. 消防法, 同施行令, 同施行規則
4. 衛生關係 各種法令 및 條例
5. 醫療法, 同施行令
6. 原子力管理規程
7. 産業保健施設에 관계되는 法令
8. 特殊學校로서의 看護學校施設基準

以上과 같이 여러가지 法的制限을 받고 있다.

病院建築의 平面計劃(2)

1. 病院의 성격과 조직에 따라서 平面이 결정되며 장래 擴張에 필요한 모든 問題가 檢討되어야 한다.

2. 이 問題를 해결 하기 위하여 建設初期에 Master plan이 결정되어야 하며 年次的으로 이 Master plan이 施工된다면 完全한 病院組織을 갖추게 될 것이다.

面積의 配分

病院建築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各部面積의 配分이다. 어느 病院이고 無制限 工事費予算으로 最大限의 收容能力을 要求하는 것은 病院長의 共通된 觀念이다. 어느 病院이고 計劃初期에 部課長會議를 數十次열고 甲論乙駁하며 各其自己 科(課)에 더 많은 面積이 配當되기를 要求하며 數三個月을 消費한다.

예를 들면 美國의 例가 어떻고 日本의 例가 어떻게 等等 끝이 없는 論難이 벌어지는 것을 目見한다. 美國의 例가 또는 日本의 例가 韓國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本人은 1967~1968年間에 150病床規模의 病院을 몇個 設計하고 計劃할 機會가 있어서 同規模 5個 病院의 設計計劃에서 各部面積 配分을 檢討하여 150 beds General Hospital의 韓國型(?)의 基準을 作成하였다.

이 配分은 여러분에게 病院建築의 初期作業에 있어서 參考가 되리라 믿는다.

各部의 分類를 다음과 같이 分割하였다.

1. 庶務部...事務室, 會議室, 圖書室, 待合室, 電話交換室, 醫務記錄室, 便所, 玄關一部.
2. 外來部...內科, 外科, 小兒科, 產婦人科, 眼科, 耳鼻咽喉科, 皮膚科, 泌尿器科, 整形外科, 齒科, 応急室, 注射室.
3. 中央診療部...放射線科, 臨床病理試驗室 藥局, 中央消毒室(補給部に 屬하나 位置關係로)物理治療室(300bed 以上)
4. 中央手術室...手術室, 回復室, 作業室等 各附屬室.
5. 產室...產室+手術室, 作業室 等各附屬室.
6. 病棟部...病室 및 各附屬室, 新生兒室.
7. 共用面積...各部에 屬하지 않은 複道, Lobby, 階段室, 便所 等.
8. 補給部...補給室+倉庫, 洗濯室, 廚房, 食堂, 보일러室, 電氣制御室.
9. 附屬建物로서...隔離病棟, 醫師宿舍(家族共用, 獨身用으로 分割), 看護員宿舍, 屍休室, 守衛室.

※看護學校 및 學生寄宿舍(120名收容)

病院本館의 面積分布는 다음과 같다.

(Figure 1)

1. Administration	7.3%
2. O. P. D.	15.1%
3. Adjunct Diagnostic	10.3%
4. Nursing Unit	26.0%
5. Surgical Dept	6.1%
6. Maternity Dept	3.1%
7. Circulating Area	15.1%
8. Utility Wing	17.0%

病院 本館의 病床台 面積分布는 다음과 같다.

(Figure 2)

1. Administration	4.61m ² /bed
2. O. P. D.	9.48 "
3. Adjunct Diagnostic	6.51 "
4. Nursing Unit	16.30 "
5. Surgical Dept	3.81 "
6. Maternity Dept	1.94 "
7. Circulating Area	9.46 "
8. Utility Wing	10.75 "
Sub-Total	62.88m ² /bed

(Figure 1), (Figure 2)를 이용하면 쉽게 Preliminary Plan의 作成이 可能하다.

다음 段階로 病院의 性格과 運營方式을 對照하여 修正하면 거의 完全한 平面計劃을 作成할 수 있다.

이 分布率을 利用하여 150病床規模의 綜合病院 本館面積을 計算하면 다음과 같은 面積이 算出된다.

(Figure 3)

1. Administration	692m ²
2. O. P. D.	1,422 "
3. Adjunct Diagnostic	976 "
4. Nursing Unit	2,445 "
5. Surgical Dept	571.5 "
6. Maternity Dept	291 "
7. Circulating Area	1,420 "
8. Utility Wing	1,620 "
Sub-Total	9,432 "
修正値	9,400 "

이 分類係數를 作成한 幾個 病院의 實績 面積은 다음과 같다.

(Figure 4)

A. Hospital	9,132 m ²
B. Hospital	8,358 "
C. Hospital	9,473 "
D. Hospital	9,070 "
E. Hospital	6,328 "

※外來部가 約1/2정도 적다.

平均値.....8,478m²

實績平均値와 修正値의 比率은 8,478m²/9,400 m²로서 計劃係數의 90.2 %이므로 적당하다고 판단 된다.

附屬建物로서

隔離病棟(38bed)	702m ²
醫師, 看護員宿舍	2,082 "
屍體室	100 "
守衛室	20 "
看護學校 및 學生寄宿舍(120名収容)	3,076 "
Sub total	5,980 "

本館建物.....9,400 "

附屬建物.....5,980 "

Total.....15,380 "

病院建築의 平面計劃(3)

各部의 分布 및 構成

表 1의 各部別 面積配分을 다시 各室別로 細分하면 다음과 같은 比率이다.

庶務部는 그 病院의 性格 또는 所屬에 따라 다르다. 現狀로 人力 査定을 한다면 不必要한 人員의 配置로 因하여 必要以上の 建築面積을 占有하고 있는 例가 많다. 勿論 이 問題는 病院行政學에서 論議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時期에서 整理가 될 줄로 안다. 그러나 適正値는 設計技術로 거의 現狀에 가까운 假定을 計算한다.

1. 庶務部(Administration Depto)

庶務部는 全体面積의 7.3 %가 平均値인 즉 平均面積은 691 m²이고 修正値는 700m²로서

事務室	50.1%	會議室	8.7%
講義室	8.1%	公用部分	20.3 %
圖書室	10.3%	電話交換室	2.5%

의 面積分布를 보이고 있다. 이 分布比 7.3 %는 10.0 %까지는 拡大할 수 있으나 2.6 %는 아마도 公用面積에서 轉用되어야 할 것이다.

表 6

1. Administration(7.3%)	691m ²
offices	50.1%
Lecture	8.1%
Library	10.3%
Conference	8.7%
Corridor	18.5%
Toilet	1.8%
Telephone	2.5%

2. 外来部 (out-patient Dept)

이 分析에 適用된 5個病院의 外来部 構成은 共用室과 使用目的이 固定된 室을 除外하고는 同一型(Universal form)으로 配置하여 室의 合同 使用이나 科의 再配置에 便利하도록 計劃되었고 모든 供給系統을 中央化(Central Supply system)함으로써 經營合理化에 基礎作業을 하였다. 分析面積은 15.1%에 1,422m²로서 修正値는 15% 1,400m²이다.

(表 7)

2. O. P. D. (15.1%)..... 1,422m²

General Surgery	3.5%
minor Operating	2.6%
Floor Utility	2.0%
Orthopedic	3.0%
Plaster	1.6%
Gynecology	3.7%
Uloor Nurses office	0.6%
Urology	
Internal Medicine	3.6%
Fluoroscopic	1.0%
Chest clinic	1.3% ☆(1)
ENT	3.7%
Audiometric	0.2% ☆(1)
Eye and Dark Room	4.3%
Minor Operating	2.3%
Neurology	1.5% ☆(2)
Injection Room	1.6%
Pediatric	3.3%
Well Baby clinic	2.5%
Emergency	11.7%
Mass X-ray	1.0% ☆(2)
Toilet	5.3%
Corridor	23.0%

Stair cass	1.3%
Waiting	0.9% ☆(1)
Locker Room	0.3% ☆(1)
Dectors office	3.1%
Bath Room	1.3% ☆(2)
Special part	2.0% ☆(1)(foreing)

(☆ 表示는 病院의 位置條件으로 5個 病院中 1~2 所만의 配置한 關係로 낮은 比率이 表示되고 있다.)

勿論 科의 分割이나 増設은 이 比率로 建築面積이 増加될 것이다.

3. 中央診療部 (Adjunct Diagnostic and Treatment)

全体比率은 103 %이고 分布面積은 976m²이다. 그러나 이 部門은 漸次 擴大되어가고 있다.

(表 8)

3. Adjunct Diagnostic & Treatment (10.3%)... 976m²

Laboratory	40.6% (2.36m ² /bed)
Radiology	30.2% (1.51m ² /bed)
Pharmacy	15.8% (0.93m ² /bed)
C. S. S.	10.3% (0.60m ² /bed)
Toilet	0.7%
Waiting	
Corridor	1.7%
Stair Case	0.7%

※中央消毒室은 補給部에 屬하나 配置技術上 이 部에 合算하였다.

4. 看護單位 (Nursing Unit)

이 部門의 分布比率은 26%이고 分布面積은 2,445m²이다. 看護單位는 30~40病床으로 分布되었고 病床當 配當面積은 18.3m²/bed 이고 1~2病床室 6病床의 大病室의 比率은 20對 80이다.

(表 9)

4. Nursing Unit (26%)	2,445m ²
Ward	48.8%
Service	26.0%
Corridor	20.5% (Lobby)
Stair case	1.7%
Nursery	3.0%

특히 10% 未滿의 Service Ared 나 共用面積을 많이 보나, 이 點은 合理的인 看護活動을 위하여 不行한 일이다.

5. 中央手術部 (Operating Theatre)

이 部門은 現代 綜合病院의 機能上 가장 重要한 部門이다. 平均分布比는 6.1%이고 分布面積은 521.4m²이며 病床當 配分은 3.47m²/bed이다.

이 部の 室組織은 다음과 같다.

(表10)

Operaring Rooms(2)	Record Nurses Desk
Cystoscopic	Locker Rooms
Scrub-up space	for Doctors
Sterile storage	for Nurses
Instrument Storage	Preparation Room
Clean-up utility	Moval X-ray storage
Stretcher space	Anesthesia Room
Janitor Closet	Recovery Room
Surgical Supervisor's	

實際로는 좀 더 面積이 必要하다. Minor operating Room을 外來部의 外科에 附屬시켰으며 ENT, EYE의 小手術室이 外來에 附屬되어 있기 때문에 큰 不便은 없으리라고 본다.

6. 産 室 (Delivery Suite)

全体分布比는 3.1%이고 分布面積은 291m²이며, 病床當面積은 1.94m²/bed이다.

勿論 이 部門은 獨立配置도 可能하며 病室에 併設할 수도 있다.

이 分析에 適用된 病院의 大部分이 産科病室과 産室이 同一層에 配置되어 있고 産室의 構成이 分娩室과 手術室을 同一 Block에 配置하였다.

그 室構成은 다음과 같다.

(表11)

Delivery Room	Sub-sterilizing
Operating Room	Sterile Storage
Preparation Room	Clean up Utility
Labor Room	Recovery Room
Scrub-up Space	Superrisor & Record Room
Locker Room	
for Doctors	
for Nurses	
Janitor Closet	

이 面積에는 elevator, 便所, 共用 複道, Lobby 등이 合算되었다.

7. 共用面積 (Circulating Area)

分布比는 15.5%이고 分布面積은 1.420m²이다. 病床當 配分率은 9.4m²/bed이나 좀 더 理想的인 要求面積配分을 最小限으로 制限하였고 可及의 必要한 室配置를 充實한 結果 적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8. 補給部 (Utility Wing)

우리 나라 病院建築에서는 아직도 이 補給部門은 큰 関心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無関心은 漸次 없어지고 있다.

全体分布比率은 17%이고 分布面積은 1.612m²이다. 그 室構成은 다음과 같다.

(表12)

Boiler plant	22.3% (2.40m ² /bed)
Kitchen	20.3% (2.15m ² /bed)
Dining	12.3% (1.32m ² /bed)
Laundry	16.6% (1.78m ² /bed)
Storage	93% (1.00m ² /bed)

其他

休息室	0.7%	事務室	1.0%
複 道	2.1%	營繕室	6.2%
便 所	0.4%	倉 庫	2.8%
階段室	2.0%	更衣室	4.3%

이 補給部는 將來増築을 위한 모든 計劃이 作成되고 그 一部를 本設計로 完成하였다.

9. 附屬建物 (Annex Building)

(1) 隔離病棟(Isolation ward)를 別棟으로 配置할때 38bed收容으로 702m²를 配置하였으므로 病床當 18.4m²/bed가 되며, 이는 正規 Nursing Unit와 同一한 分布率이다. 勿論 必要한 附屬室을 配置하였다.

(2) 職員寄宿舍(醫師 및 看護員)은 職員1人當 分布面積이 12.11m²이며 家族을 가진 醫師寄宿舍는 70m²이다.

70m²의 分布는 寢室2個, 廚房 Living Room 便所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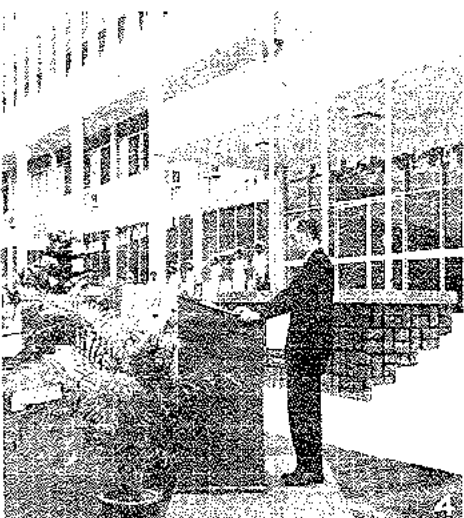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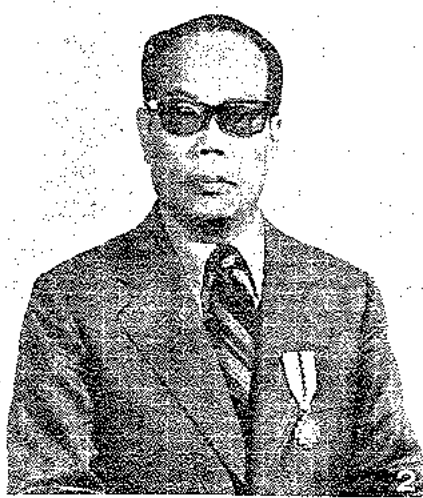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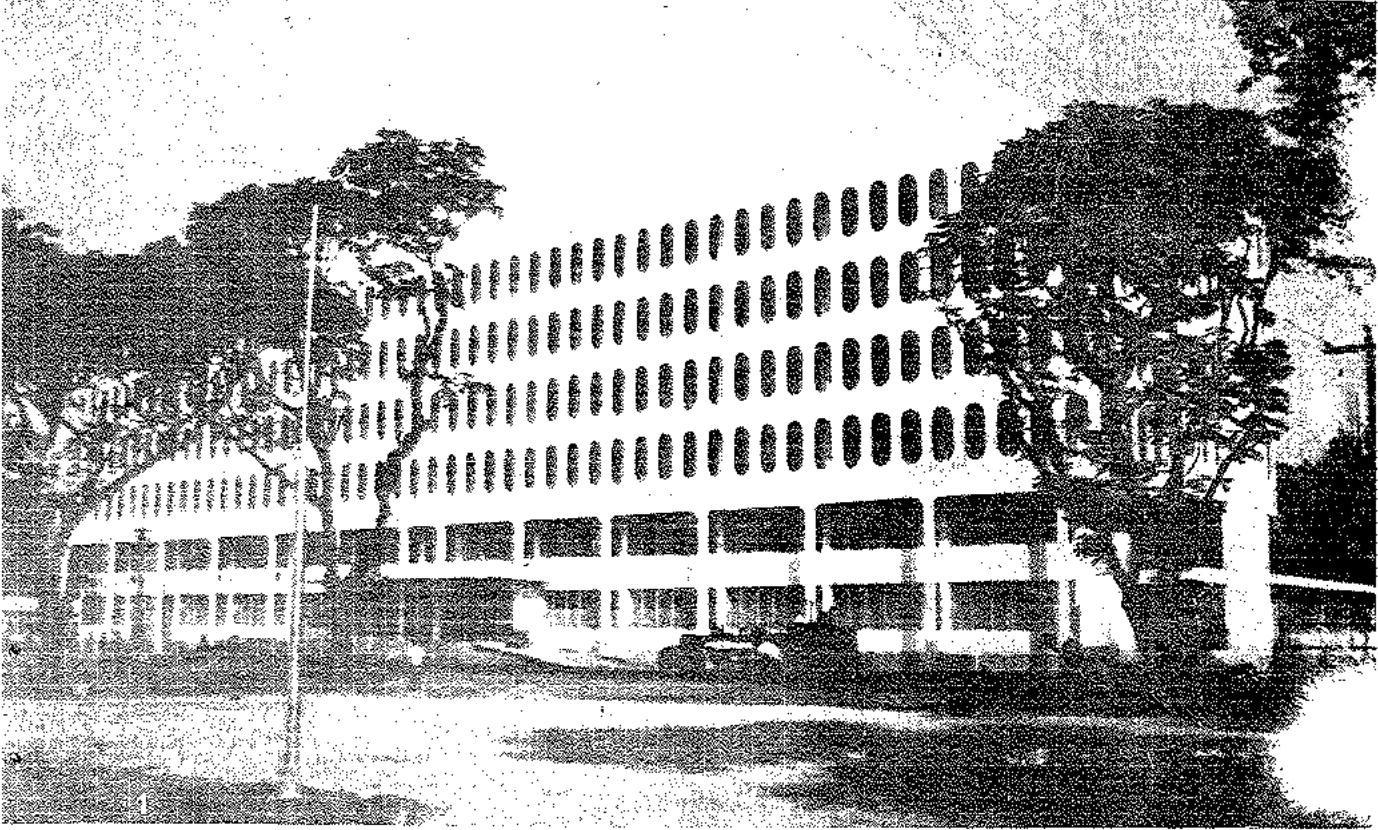
(3) 看護學校 및 學生寄宿舍

이 5個 綜合病院에는 看護學校가 計劃되어 있고 施設基準은 120名 3學級으로 計劃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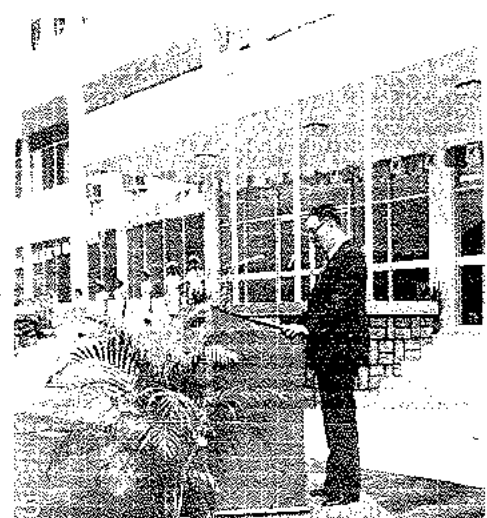
1學生當 配分面積은 25.6m²이다.

會員作品

病院建築 特輯



- 1 한·월 의원원
- 2 월남정부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은 김동규씨.
- 3 공로 훈장
- 4 월남 보건장관 기념사 장면
- 5 고재필 보건사회부장관 기념사 장면



韓 · 越 医 療 院

지난 1974. 3. 1. 大韓民國 樹立后
最初의 外 援 工 事 로서, 越 南 政 府 에
医 療 要 員 의 訓 練 과 对 民 診 療 을 하 기
為 하 여 建 設 된 「韓 越 医 療 院」 은 250
病 床 의 規 模 를 갖 춘 綜 合 病 院 이 다.
또 한 同 医 療 院 은 將 來 500 病 床 까 지
增 設 할 수 있 도 록 Master Plan 까
지 設 計 되 었 다.

金東珪氏는 同 医 療 院 의 設 計 로 서
銀 十 字 功 勞 勳 章 을 받 았 다.

建 設 費 3,000,000 \$

医 療 裝 備 600,000 \$

設 計 完 成 1971 年

工 事 着 手 1972 年 1 月

竣 工 1974 年 3 月 (開 院)

設 計 : 金 東 珪 建 | 設 計 事 務 所

金 東 珪, 李 致 端, 金 長 源

건 축 면 적 :

본 館 탐 욕 층 120m²

6 층 1,517.25m²

5 층 1,517.25m²

4 층 1,517.25m²

3 층 1,517.25m²

2 층 1,572.00m²

1 층 3,102.00m²

소 계 10,863m²

보 이 라 실 300m²

시 채 실 및 부 설 실 130m²

응 급 관 자 병 동 315m²

수 위 실 20m²

응 급 부 332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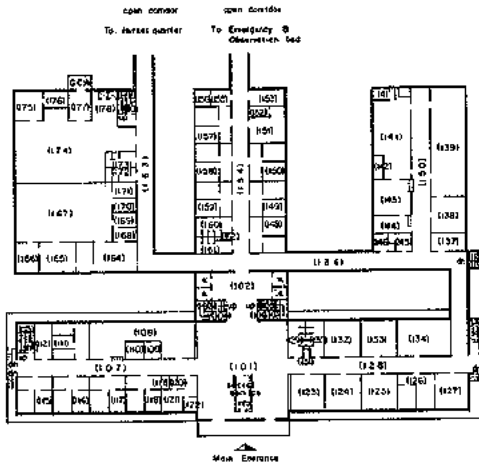
간 호 원 숙 사 1,600m²

의 사 숙 사 1,300m²

세 탁 장 137.7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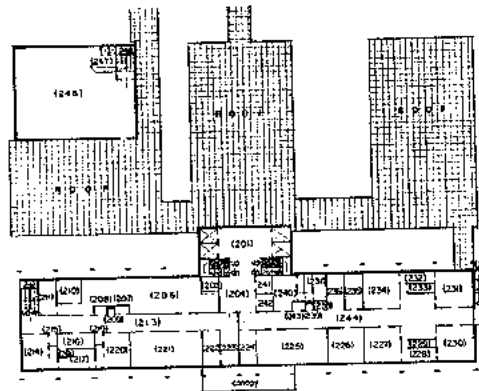
합 계 1,997.77m²

(59.77m²/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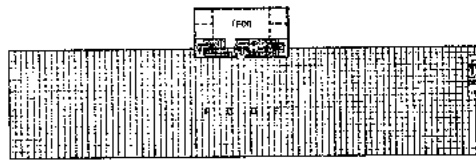
1st FLOOR PLAN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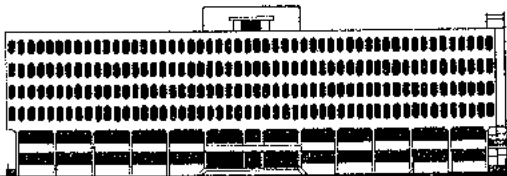
2nd FLOOR PLAN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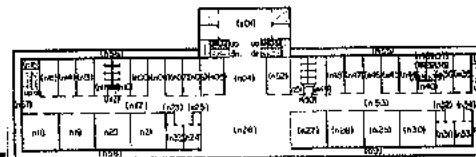
ROOF PLAN

SCALE 1/500



FRONT ELEVATION

SCALE 1/400



3rd, 4th, 5th, 6th FLOOR PLAN

SCALE 1/500

- 401 LOBBY
- 402 ELEVATOR HALL
- 403-404 STAIR
- 405-406 STAIR
- 407-408 STAIR
- 409-410 STAIR
- 411-412 STAIR
- 413-414 STAIR
- 415-416 STAIR
- 417-418 STAIR
- 419-420 STAIR
- 421-422 STAIR
- 423-424 STAIR
- 425-426 STAIR
- 427-428 STAIR
- 429-430 STAIR
- 431-432 STAIR
- 433-434 STAIR
- 435-436 STAIR
- 437-438 STAIR
- 439-440 STAIR
- 441-442 STAIR
- 443-444 STAIR
- 445-446 STAIR
- 447-448 STAIR
- 449-450 STAIR
- 451-452 STAIR
- 453-454 STAIR
- 455-456 STAIR
- 457-458 STAIR
- 459-460 STAIR
- 461-462 STAIR
- 463-464 STAIR
- 465-466 STAIR
- 467-468 STAIR
- 469-470 STAIR
- 471-472 STAIR
- 473-474 STAIR
- 475-476 STAIR
- 477-478 STAIR
- 479-480 STAIR
- 481-482 STAIR
- 483-484 STAIR
- 485-486 STAIR
- 487-488 STAIR
- 489-490 STAIR
- 491-492 STAIR
- 493-494 STAIR
- 495-496 STAIR
- 497-498 STAIR
- 499-500 STAIR

- 401 LOBBY
- 402 ELEVATOR HALL
- 403-404 STAIR
- 405-406 STAIR
- 407-408 STAIR
- 409-410 STAIR
- 411-412 STAIR
- 413-414 STAIR
- 415-416 STAIR
- 417-418 STAIR
- 419-420 STAIR
- 421-422 STAIR
- 423-424 STAIR
- 425-426 STAIR
- 427-428 STAIR
- 429-430 STAIR
- 431-432 STAIR
- 433-434 STAIR
- 435-436 STAIR
- 437-438 STAIR
- 439-440 STAIR
- 441-442 STAIR
- 443-444 STAIR
- 445-446 STAIR
- 447-448 STAIR
- 449-450 STAIR
- 451-452 STAIR
- 453-454 STAIR
- 455-456 STAIR
- 457-458 STAIR
- 459-460 STAIR
- 461-462 STAIR
- 463-464 STAIR
- 465-466 STAIR
- 467-468 STAIR
- 469-470 STAIR
- 471-472 STAIR
- 473-474 STAIR
- 475-476 STAIR
- 477-478 STAIR
- 479-480 STAIR
- 481-482 STAIR
- 483-484 STAIR
- 485-486 STAIR
- 487-488 STAIR
- 489-490 STAIR
- 491-492 STAIR
- 493-494 STAIR
- 495-496 STAIR
- 497-498 STAIR
- 499-500 STAIR

- 401 LOBBY
- 402 ELEVATOR HALL
- 403-404 STAIR
- 405-406 STAIR
- 407-408 STAIR
- 409-410 STAIR
- 411-412 STAIR
- 413-414 STAIR
- 415-416 STAIR
- 417-418 STAIR
- 419-420 STAIR
- 421-422 STAIR
- 423-424 STAIR
- 425-426 STAIR
- 427-428 STAIR
- 429-430 STAIR
- 431-432 STAIR
- 433-434 STAIR
- 435-436 STAIR
- 437-438 STAIR
- 439-440 STAIR
- 441-442 STAIR
- 443-444 STAIR
- 445-446 STAIR
- 447-448 STAIR
- 449-450 STAIR
- 451-452 STAIR
- 453-454 STAIR
- 455-456 STAIR
- 457-458 STAIR
- 459-460 STAIR
- 461-462 STAIR
- 463-464 STAIR
- 465-466 STAIR
- 467-468 STAIR
- 469-470 STAIR
- 471-472 STAIR
- 473-474 STAIR
- 475-476 STAIR
- 477-478 STAIR
- 479-480 STAIR
- 481-482 STAIR
- 483-484 STAIR
- 485-486 STAIR
- 487-488 STAIR
- 489-490 STAIR
- 491-492 STAIR
- 493-494 STAIR
- 495-496 STAIR
- 497-498 STAIR
- 499-500 ST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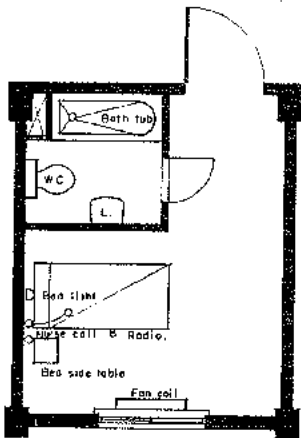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病院建築

우리나라의 病院建築 內至는 醫療施設은 어디까지 왔는가. 病院 內至 醫療施設이 本格的으로 始作된 것은 1955년부터이다. 卽 解放(1945年) 10年間은 日政時 建設된 大學附屬病院과 各地에 道立病院이 그 中樞의 役割을 하였다. 그러나 醫師, 看護員의 外國 留學의 길이 트고, 外國에 建設되는 各種病院施設에 對한 새로운 情報가 들어오면서부터 當時 우리政府와 UN WHO(國際聯合 保健機構)가 共同으로 韓國에 醫療制度和 醫療施設에 對한 調査가 進行되고 이 報告를 基礎로 病院建築과 醫療施設에 建設計劃이 樹立되었다. 다시 數年間 敎育病院인 大學病院을 除外한 綜合病院을 主軸으로 하는 醫療組織網(Medical net Work)이 計劃되다가 北歐諸國(Scandinavia)의 援助로 그 第一次計劃이 1958年 竣工된 國立醫療院(National Medical Center)를 頂點으로 各道에 道立醫療院(Local Medical Center)을 忠南의 大田, 忠北의 淸州, 江原의 春川, 全北의 全州, 慶北에 浦項 및 慶南에 馬山等에 그 建設이 끝나고 1973—1974年 前後에서 完成開院되어 一次計劃이 끝났다. 그러나 이 組織의 效果는 아직은 未知數이다. 잘 訓練된 醫師와 看護員, 그리고 有能한 病院行政官이 確保되는게 더 큰 問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計劃은 國民에 對한 生産性(Production)이 아니라 醫療 補助(Medical Service)이고 莫大한 資金과 時日이 要함으로 만 建設計劃과는 相違點이 많고 完成後에 要求되는 人員과 運營費가 또한 큰 問題이다. 建設費의 1/4이나 되는 運營費가 毎會計年度마다 必要하기 때문이다. 特히 建物 完成後에 運營管理가 더 큰 問題이다. 우리나라에는 完全히 訓練된 管理技師(Maintenance Engineer)가 없기 때문이다. 하역간 韓國에 病院建築이 지난 1974年 3月 建設이 完工되고 開院한 Saigon Vietnam 所在 韓越醫療院(Korean-Vietnames Medical Center)가 建國後 最初로 建設한 外援工事로 建立되고 國內外에 好評을 받고 있다. 開院式에 尙재필 保健社會部長官을 모시고 參席하였다. 病院建築家로서 自負하고 4半世紀를 보낸 나로서는 多少나마 保健醫療施設 建設計劃에 參與한 것을 滿足하게 생각하며 나에게 이 機會를 주신 歷代長官에게 深々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의과대학 부속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과 병동



여의도 聖母病院

竣工日: 1973. 10. 31.

건축면적: 5,734m²

病室면적: 2,672m² (全体面積의 46.6%)

病床당 單位면적: 24.29m²/bed (261.3 sq-ft)

全体病床数: 110病床

여의도에 세워진 가톨릭의대 부속병원 외 제 1차로 세워진 일부분으로 정신과 병원으로 토석 명상수 110명상.

진료과목:

정신과, 내과, 소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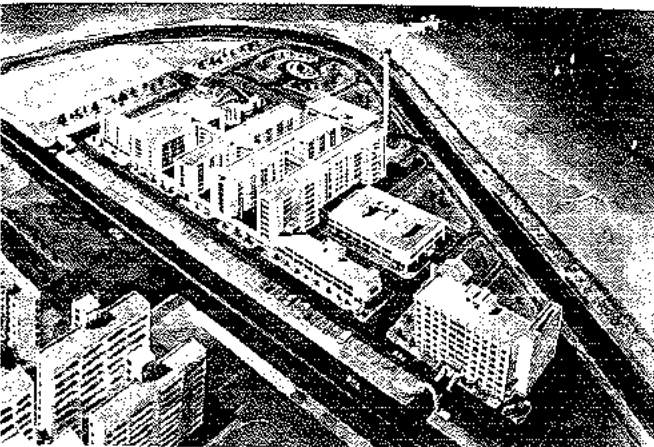
응급부, 수술부, 방사선부, 중영소독부,

약국,

서무배: 사무실, 회의실,

보급부: 주방, 식당, 모이라실, 세탁장, 창고,

건축면적: 탑옥동	66m ²
7층	668 "
6층	668 "
5층	668 "
4층	668 "
3층	668 "
2층	830 "
1층	830 "
지하층	668 "
합계	5,734m ²



가톨릭의과대학 부속 여의도 성모병원 종합계획도



MIN DOONG KYU
ARCHITECT —
HOSPITAL CO
SEOUL

포항도립병원 전경 투시도 조감도 준공: 1968年

(포항도립병원 (동해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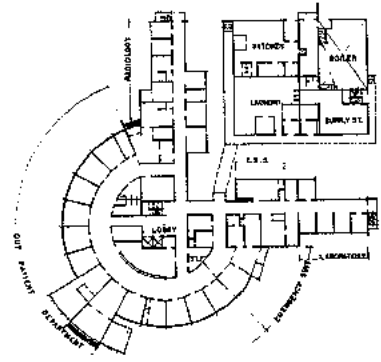
경북 포항에 총 병상수 150병상 목표로 설계되어서 1차적으로 80병상만 완성 금년에 개원 예정인 종합병원.

진료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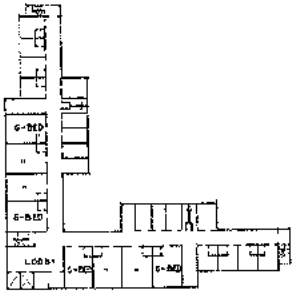
내과, 흉과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치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마노기과, 어린이후과, 수술부, 산실, 방사선과, 병리시험실, 약국.
사무부: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도서실
부급부: 중앙소독실, 수방, 식당, 세탁실, 보일러 실, 창고

건축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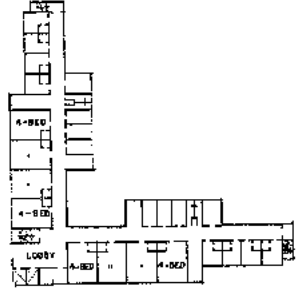
본관 · 탐옥층.....	121m ²
5 층.....	701m ²
4 층.....	701 "
3 층.....	701 "
2 층.....	2,243 "
1 층.....	2,481 "
소계.....	6,948m ²
보급부.....	1,088m ²
간호원숙사.....	1,159.9m ²
시제실 및 부검실.....	129.6m ²
수위실.....	19m ²
합계.....	9,344.5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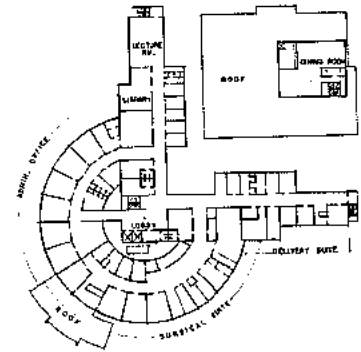
1st FLOOR PLAN scale 1/600 M.



3th, 4th FLOOR PLAN scale 1/60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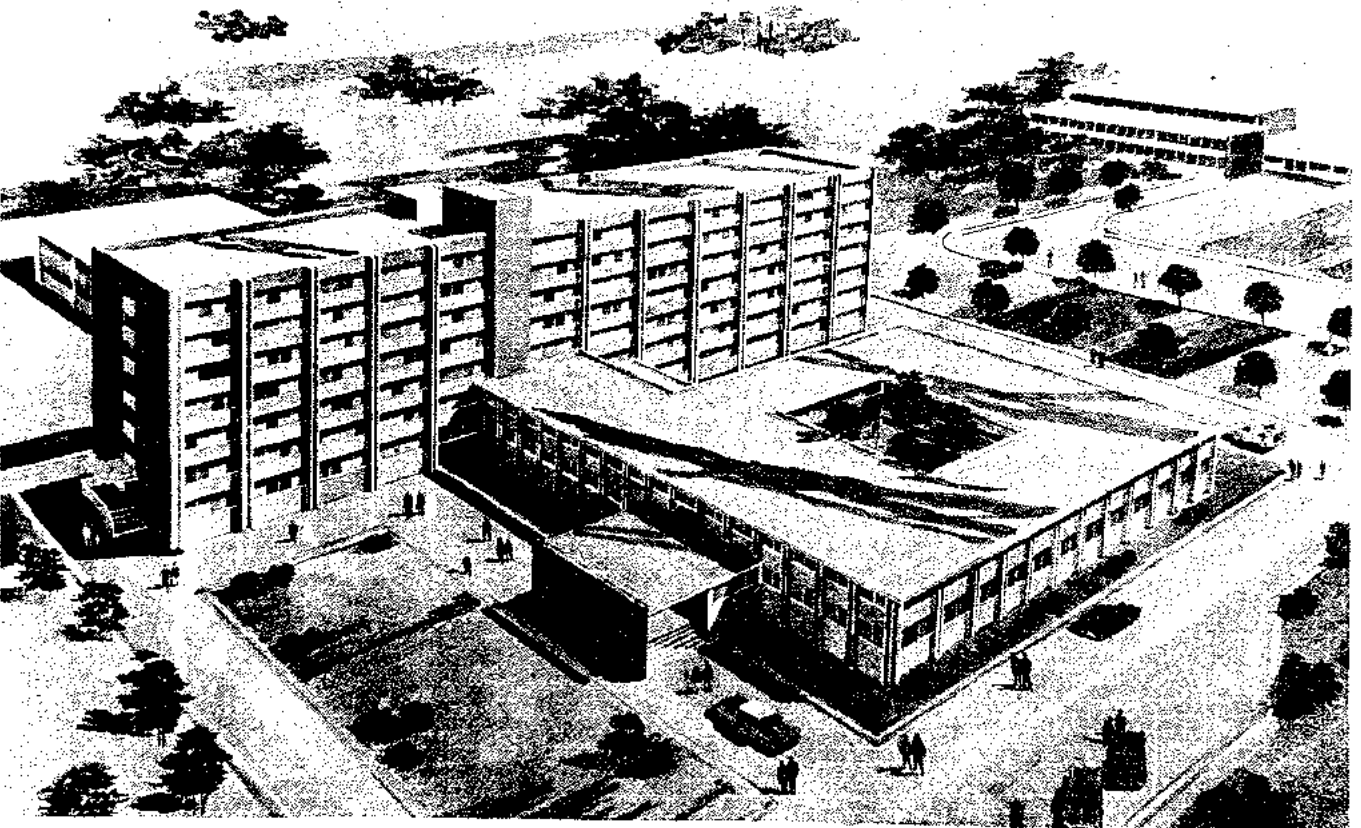


5th FLOOR PLAN scale 1/600 M.



2nd FLOOR PLAN scale 1/600 M.

청주도립병원 조감도



청주도립병원 조감도 준공: 1968년

청주도립병원 (충북의료원)

총병상수 300병상으로 설계되었다. 150병상만 끝년에 준공, 개원 예정인 종합병원.

진료과목: 외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치과, 신경과, 수술부, 산실, 방사선과, 병리시험실, 중임공급실, 약국, 응급치료실.

서무부: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모서실

보급부: 주방, 식당, 보일러실, 세탁실, 창고

건축면적: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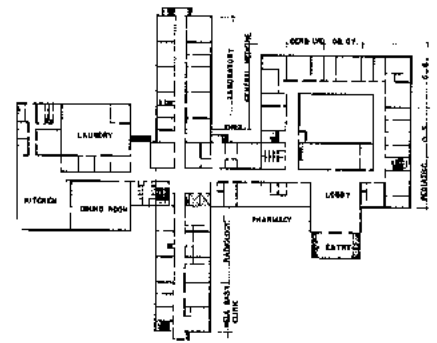
- 7층.....975m²
- 6층.....975m²
- 5층.....975m²
- 4층.....975m²
- 3층.....975m²
- 2층.....2,163m²
- 1층.....3,279m²
- 지하층..... 966m²
- 소계...11,283m²

격리병동..... 702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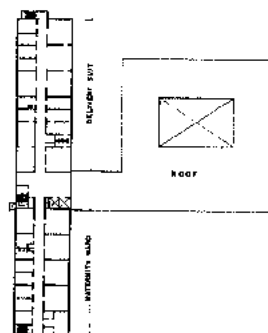
간호학교 및 숙사..... 3,012m²

의사, 간호원 숙사... ..1,582.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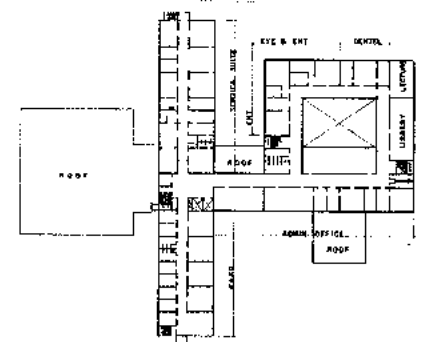
합계.....16,579.9m²



1st FLOOR PLAN Scale 1/800 W



2nd FLOOR PLAN Scale 1/800 W



3rd FLOOR PLAN Scale 1/800 W

特 輯

海 外 住 宅

서울특별시 서초구 합동2리22
유진건축사사무소
(73) 6047

겔스타인 집 Gerstein House

소재 : 대사후우새르주 락몽드

설계 : 휴이겐스와 타페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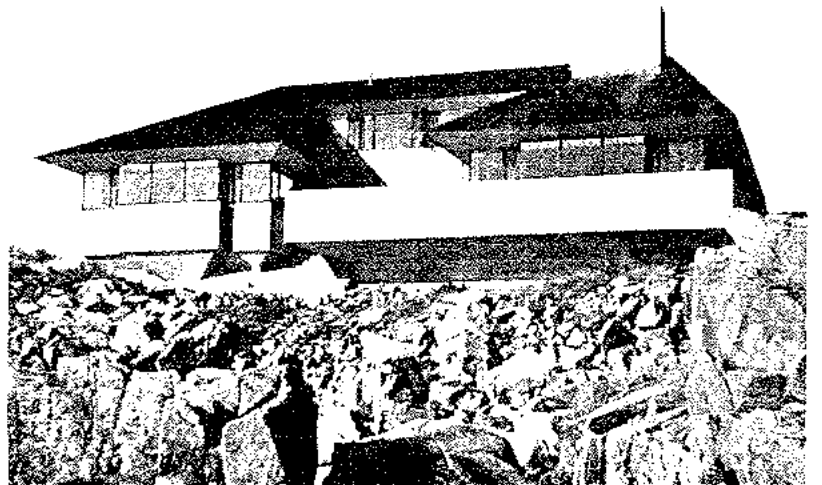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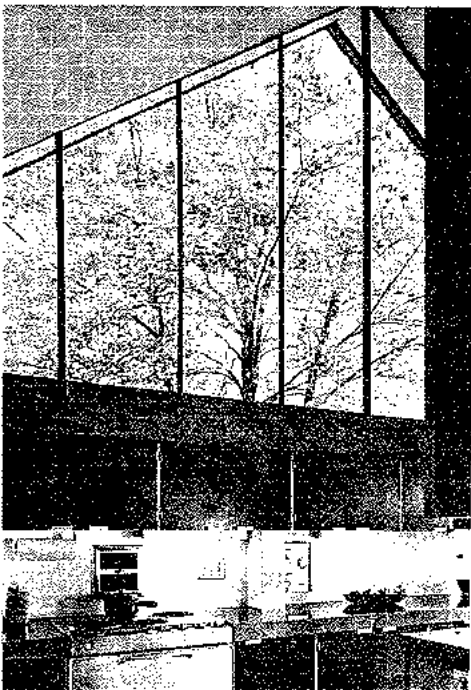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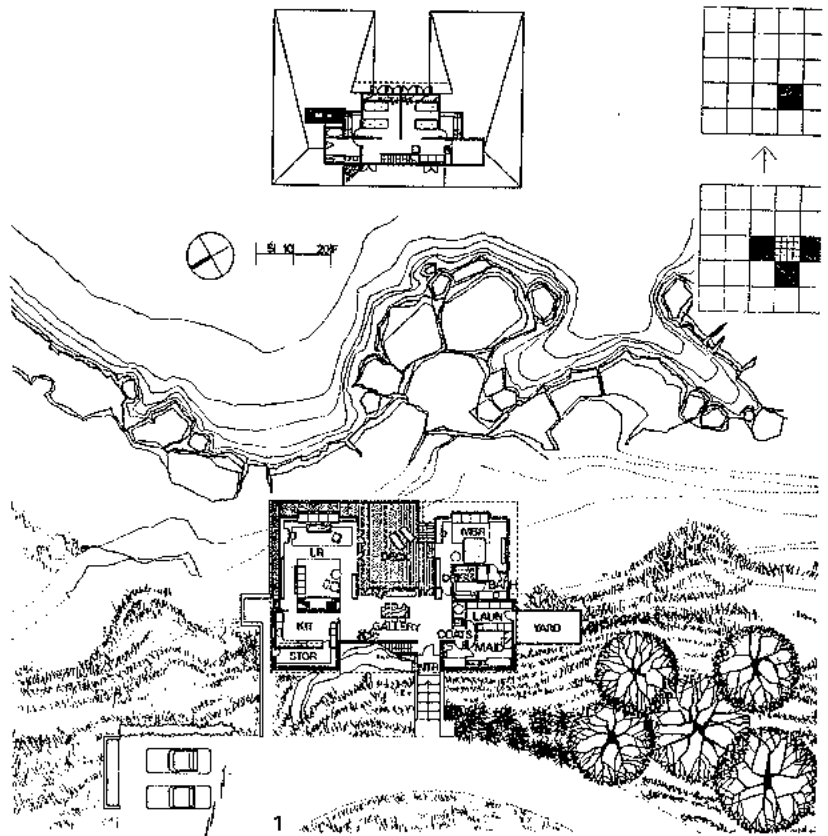
구조설계 : 소무자와 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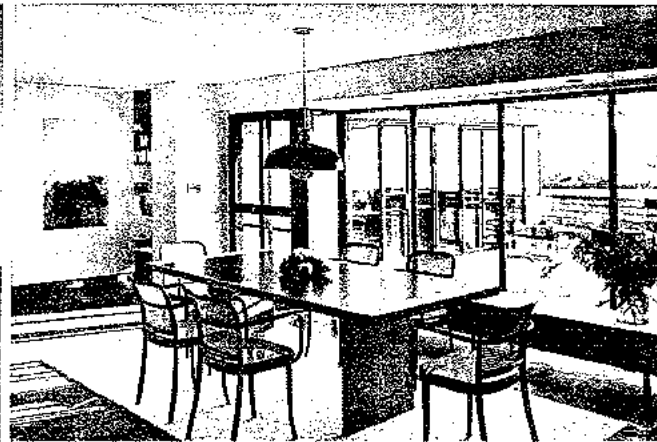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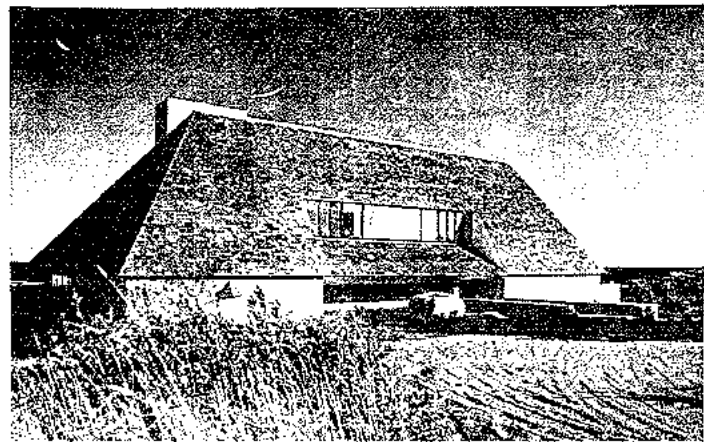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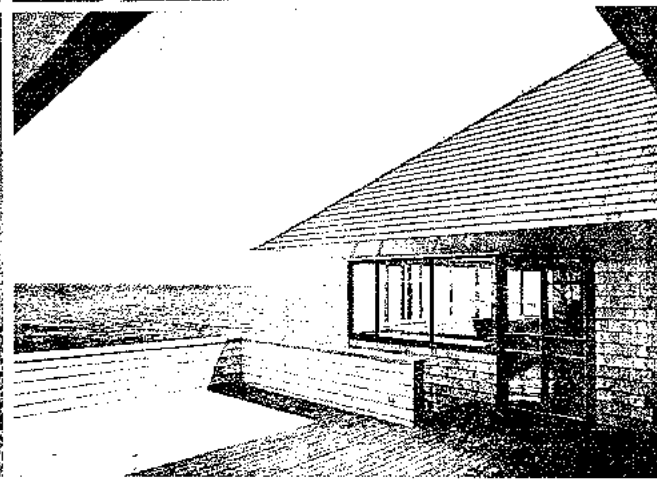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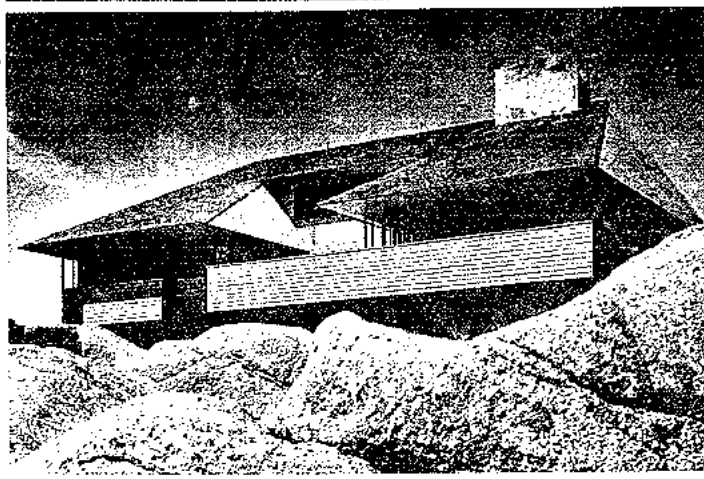
기계설계 : 윌리엄R. 깁스

전기설계 : 해로시, 모테르, 마송

부지면적 : 4,000 sq. ft.

완성년월 : 1968년





반의 개장 (改裝) 주택 Barn Remodeled into House

소재 : 매사추세츠주 웨스턴

설계 : 로렌스 파트리치

구조설계 : 아더 C. S.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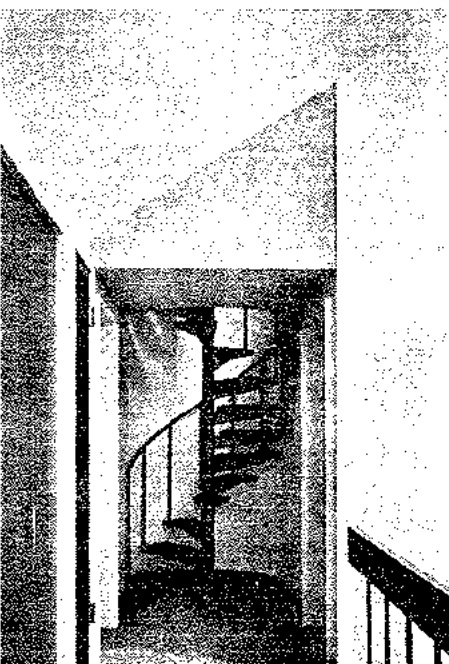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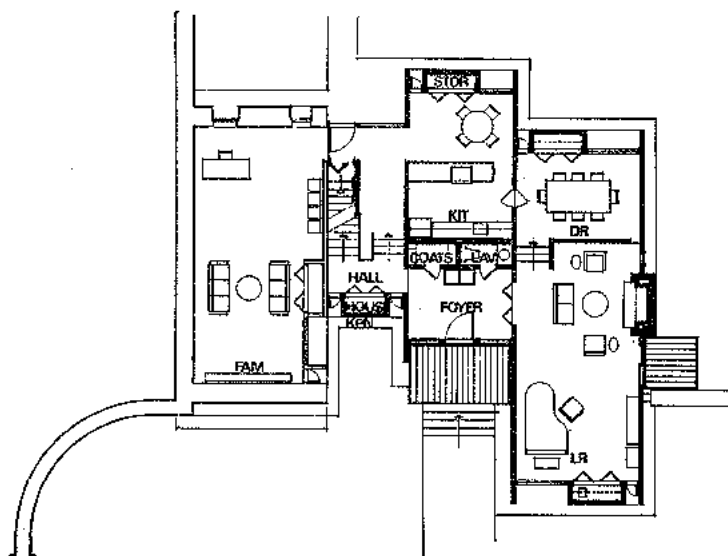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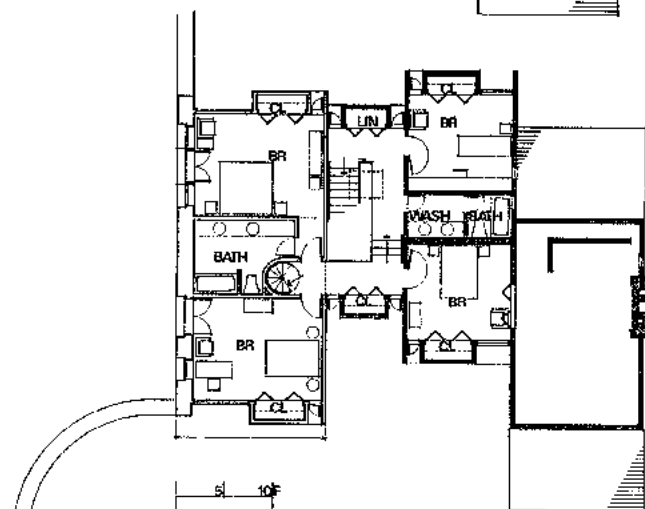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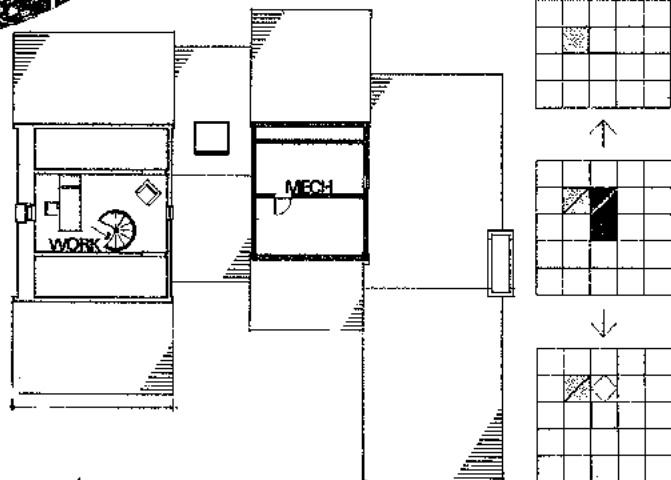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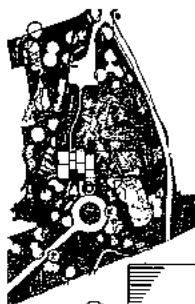
기계설계 : 태넨 지오 제노베시, 래스비에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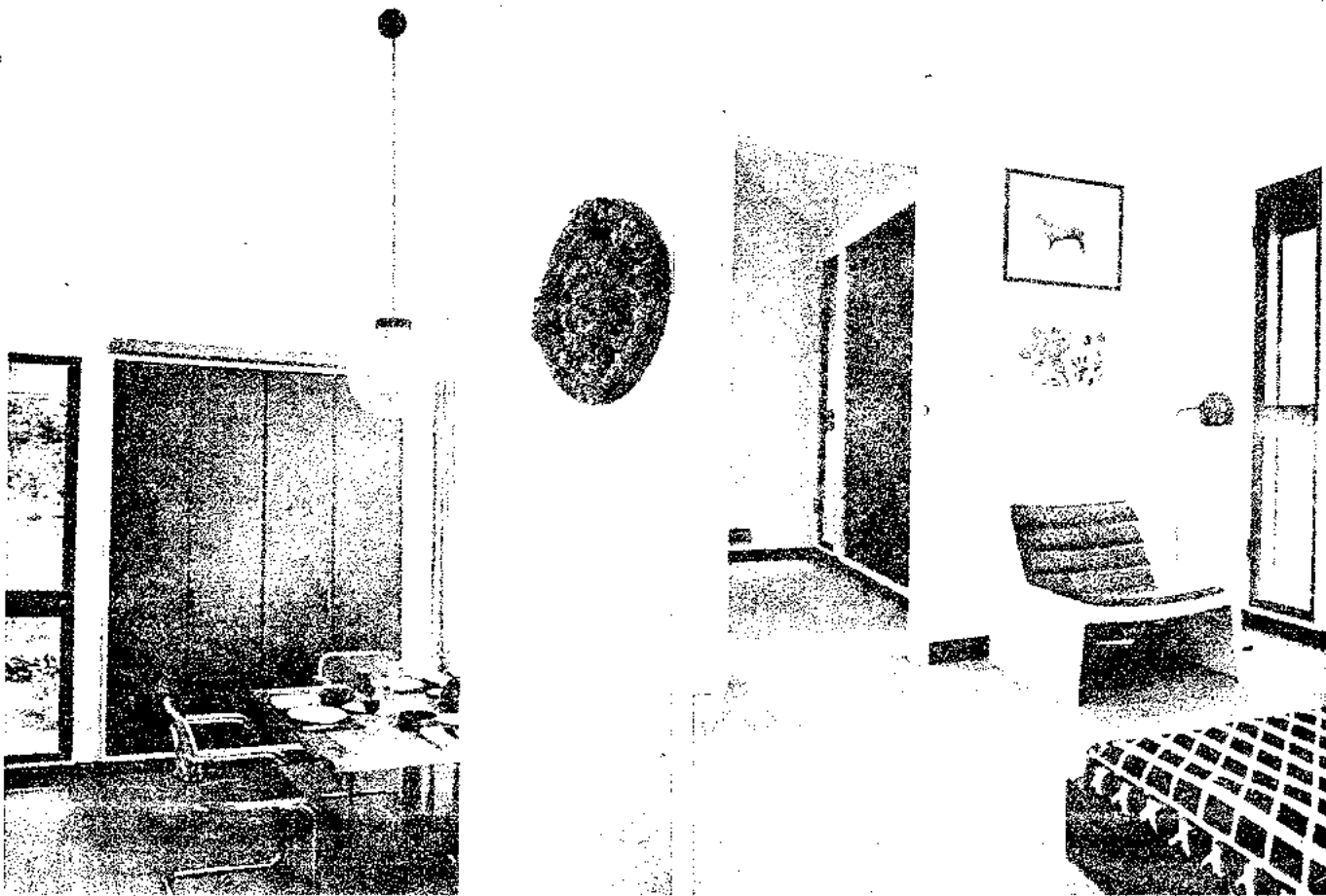
부지면적 : 1.0ha

완성년월 : 1968년

건물면적 : 3,800sq. ft.

공사비 : \$ 7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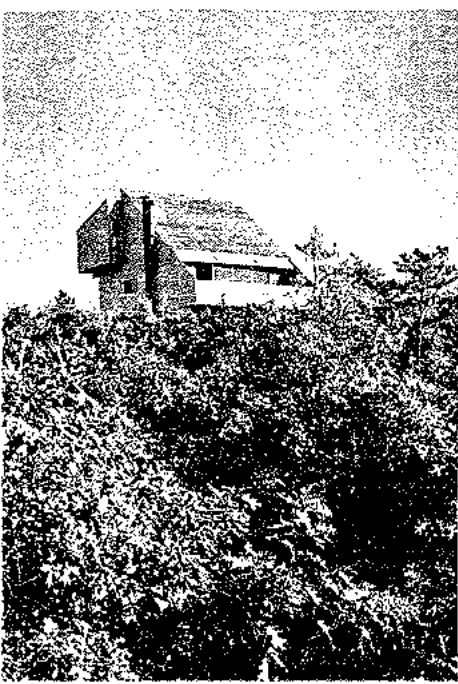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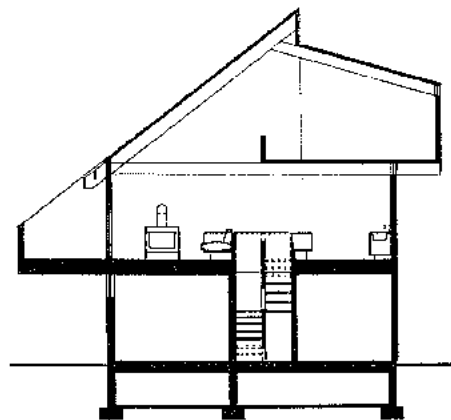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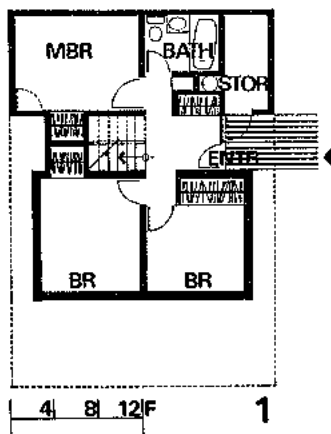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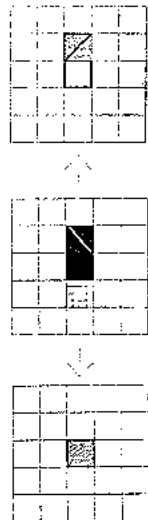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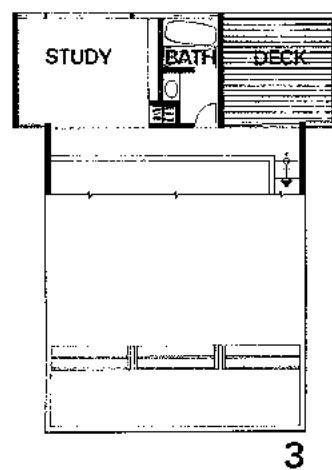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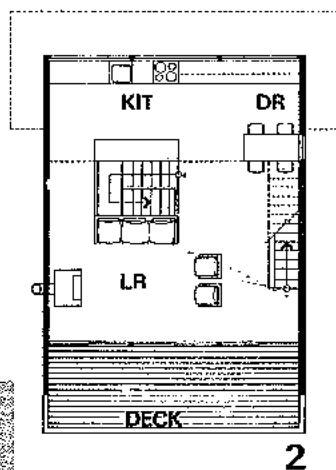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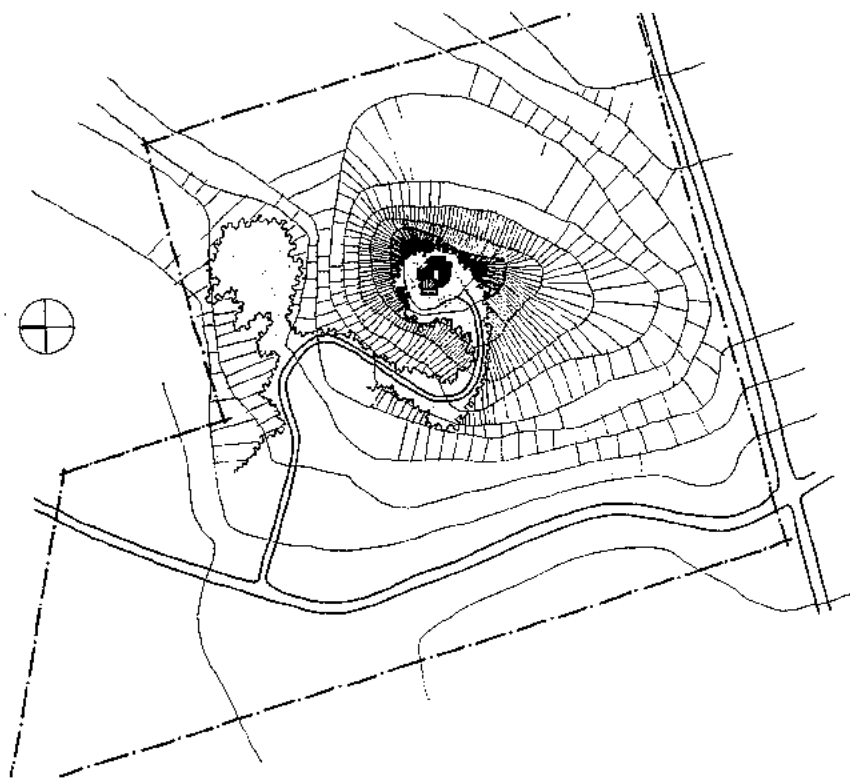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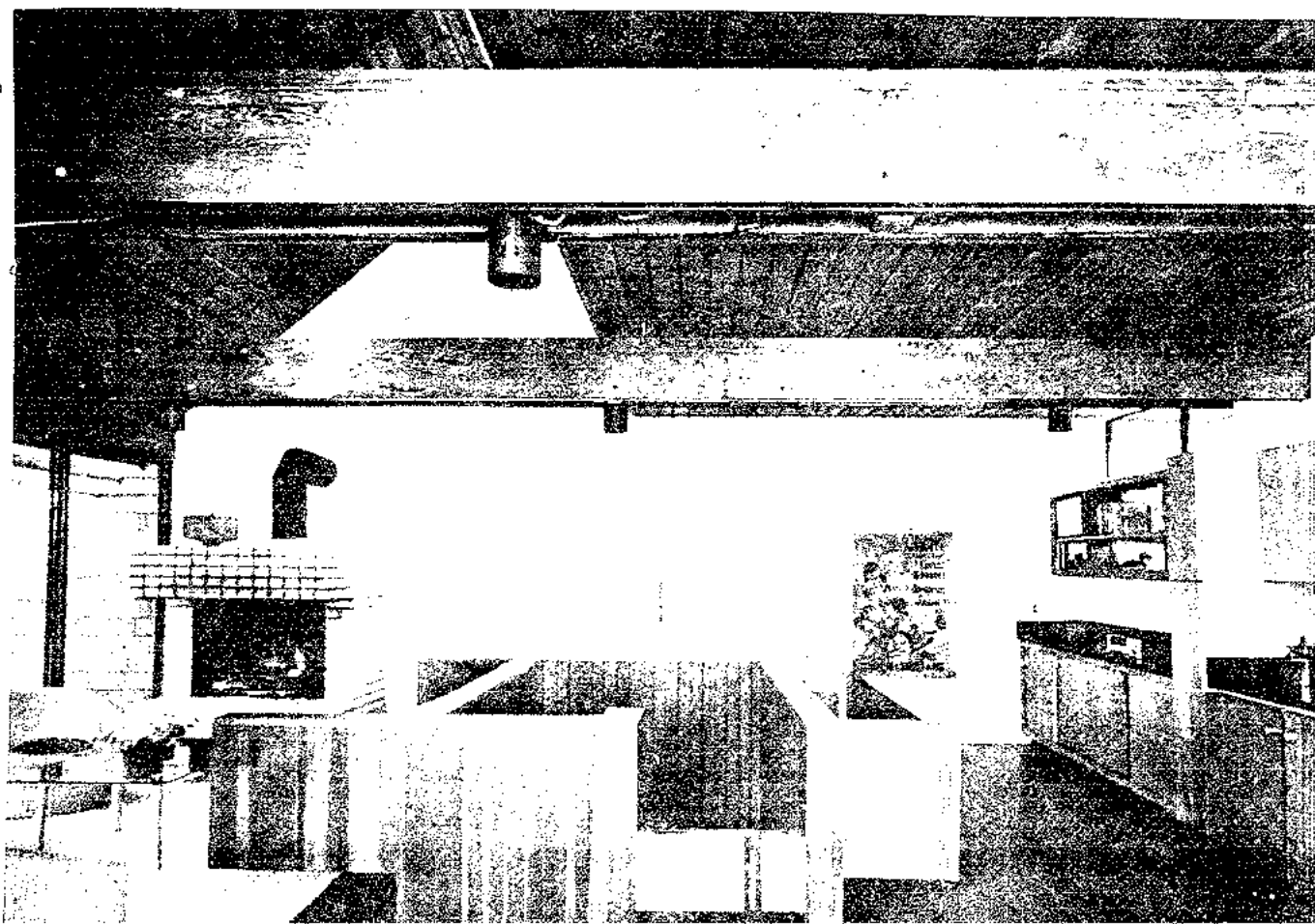


에드워즈의 집 Edwards House

소재 : 뉴욕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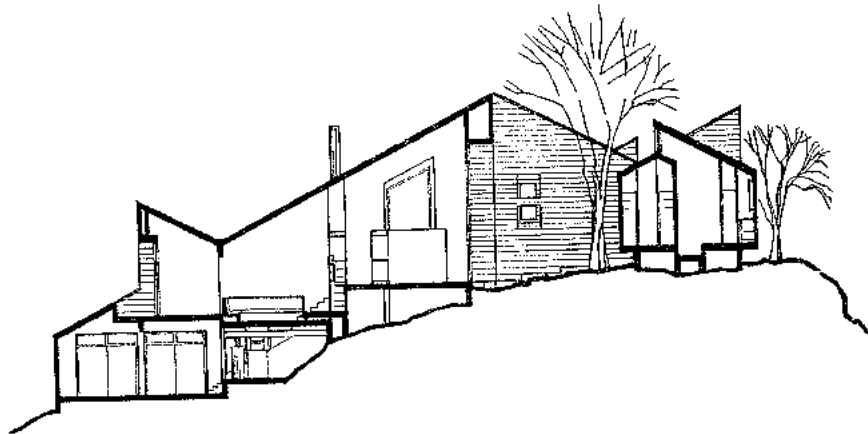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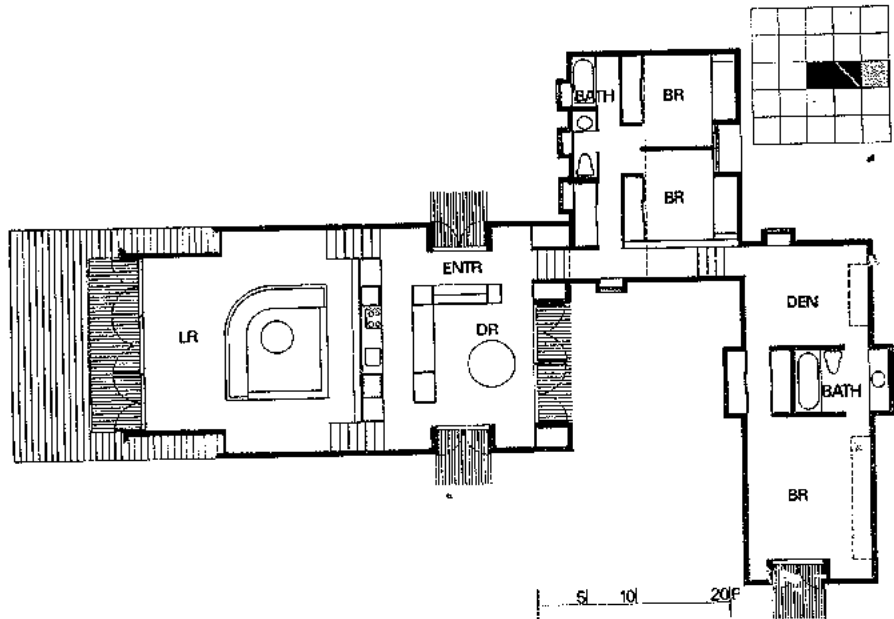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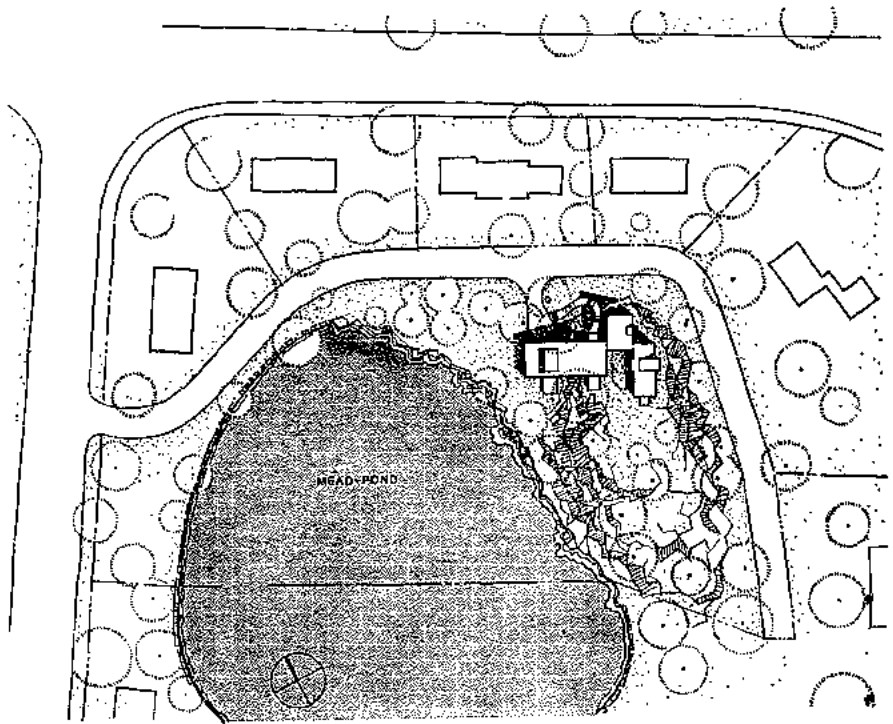
설계 : 버나드 A. 마손





알란 앤더슨 부처의 집 Residence for Mr. and Mrs. Allan Anderson

소재 : 뉴욕
설계 : 알란과 바바라 앤더슨
구조설계 : 알란과 바바라 앤더슨
기계설계 : 알란과 바바라 앤더슨
전기설계 : 알란과 바바라 앤더슨
건물면적 : 2,600sq. ft.
완성년월 : 1970년
공사비 : \$ 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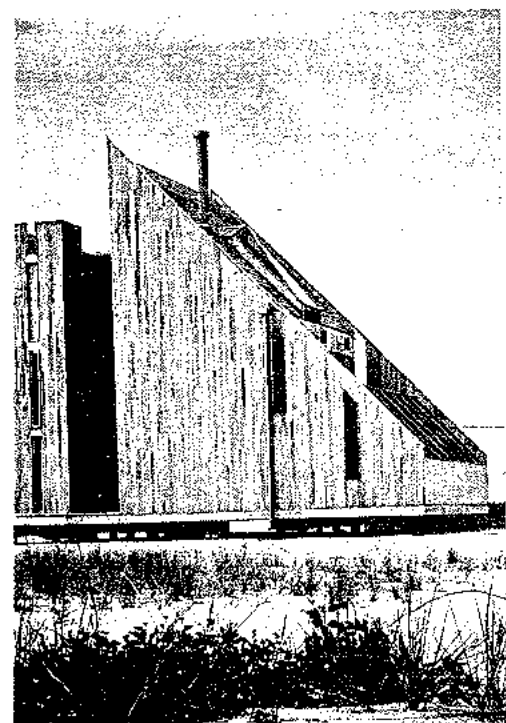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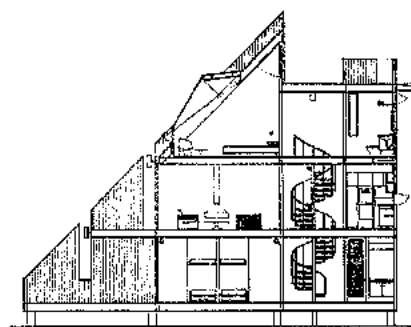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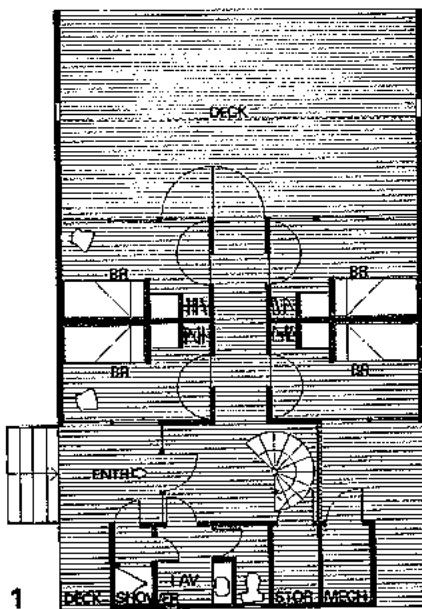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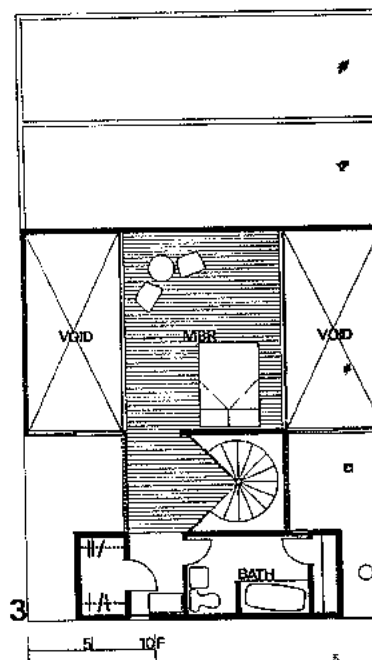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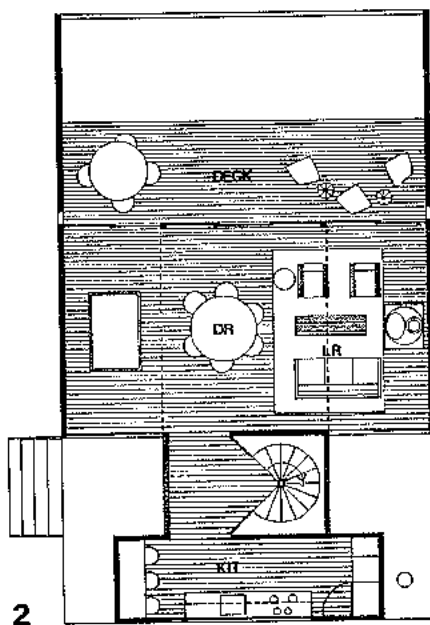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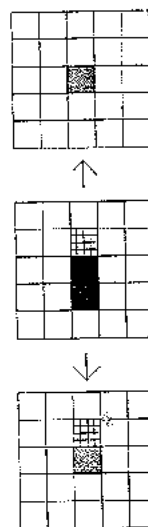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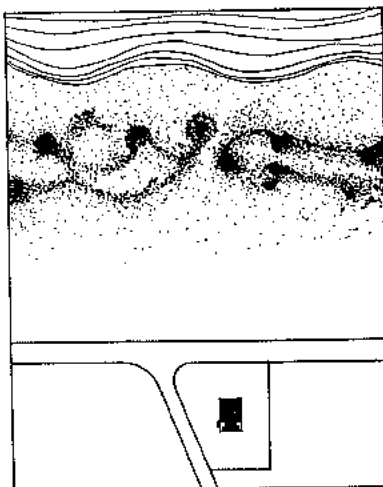
비이치 하우스 Land Beach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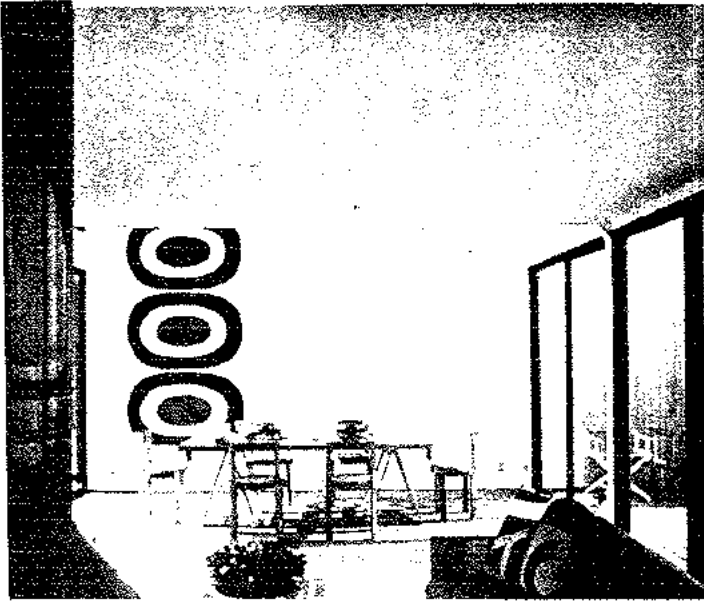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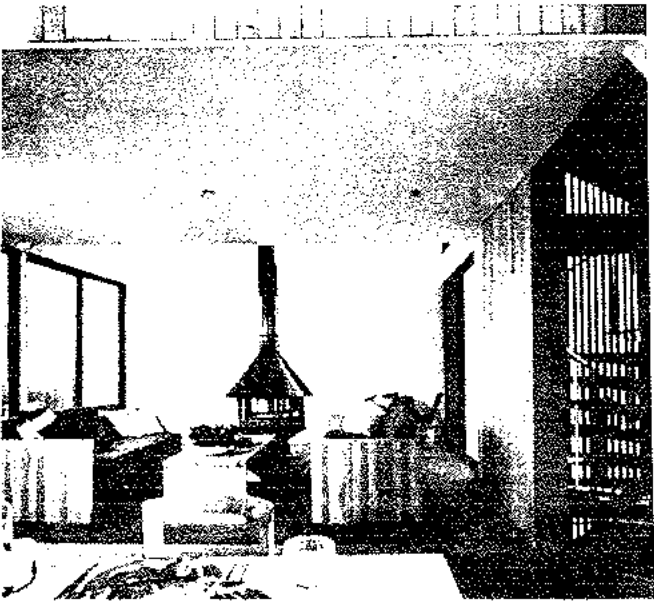
소재 : 델러웨어주 레오보스

설계 : 휴 네윅 아폴슨

구조설계 : 칼 한센

완성년월 : 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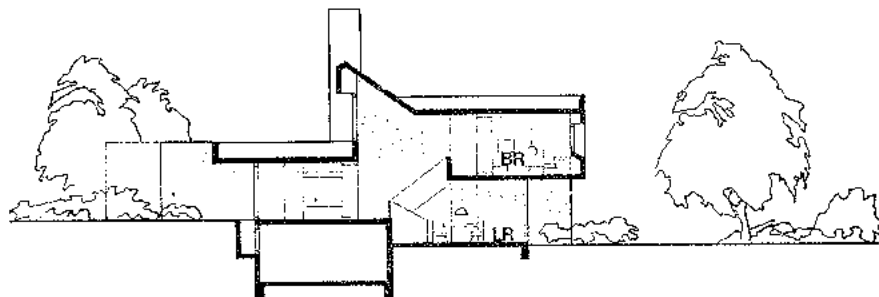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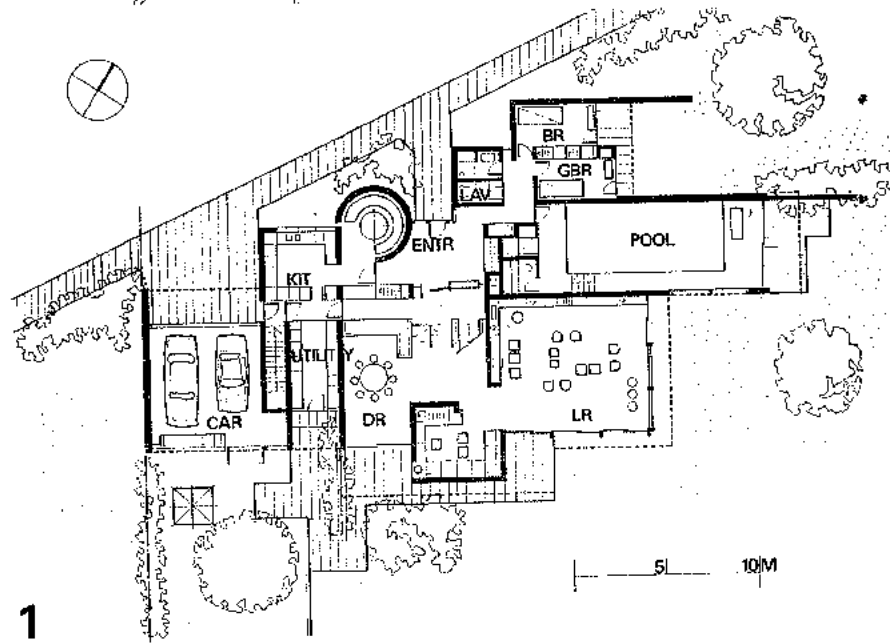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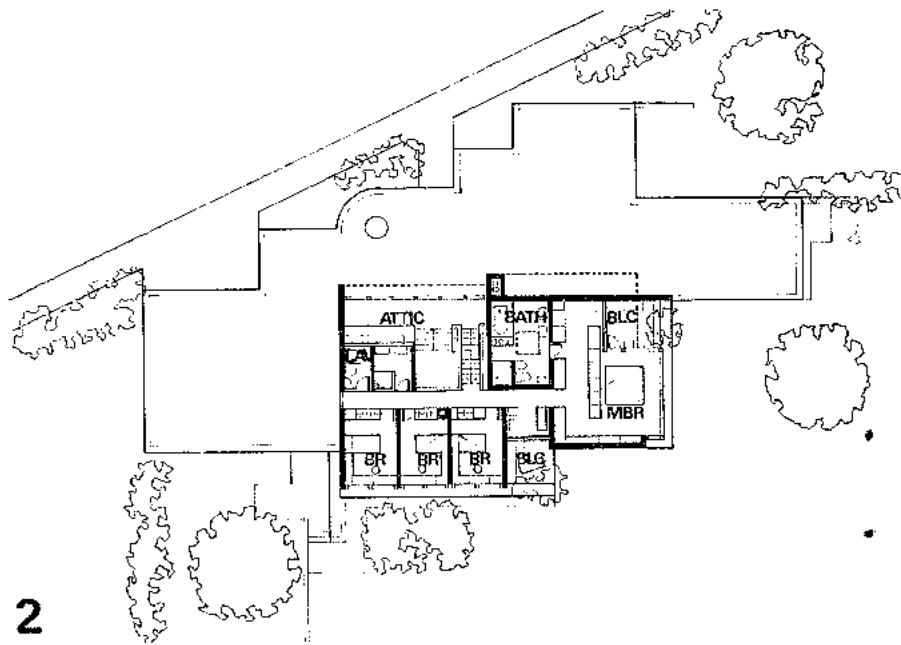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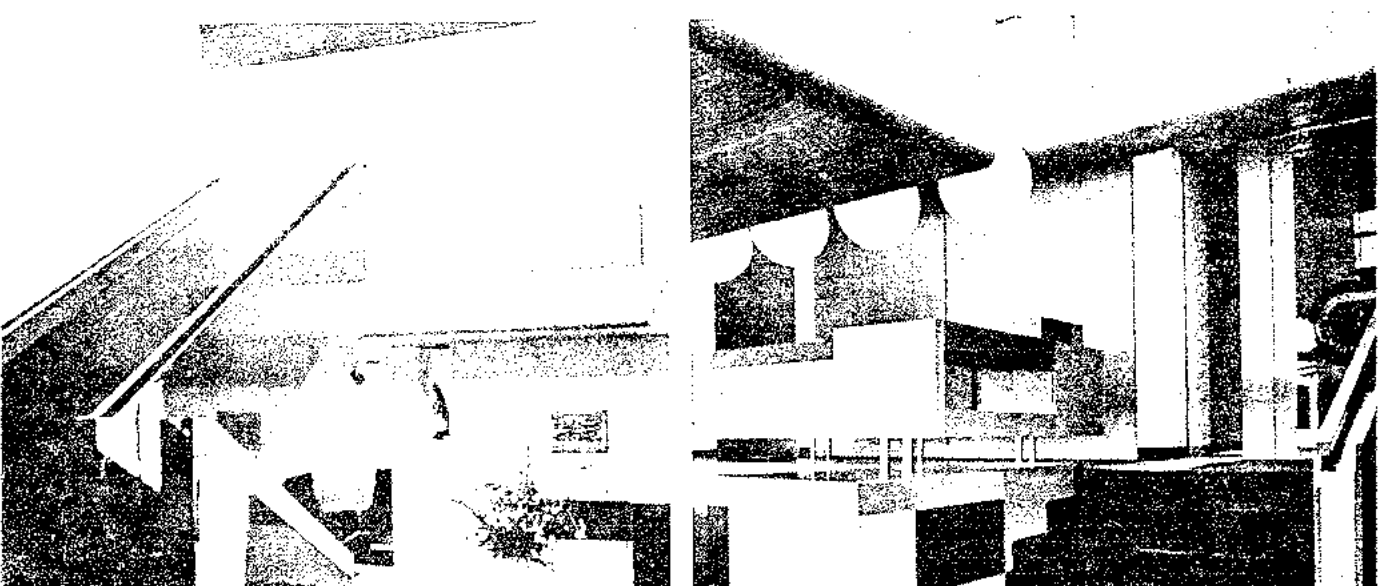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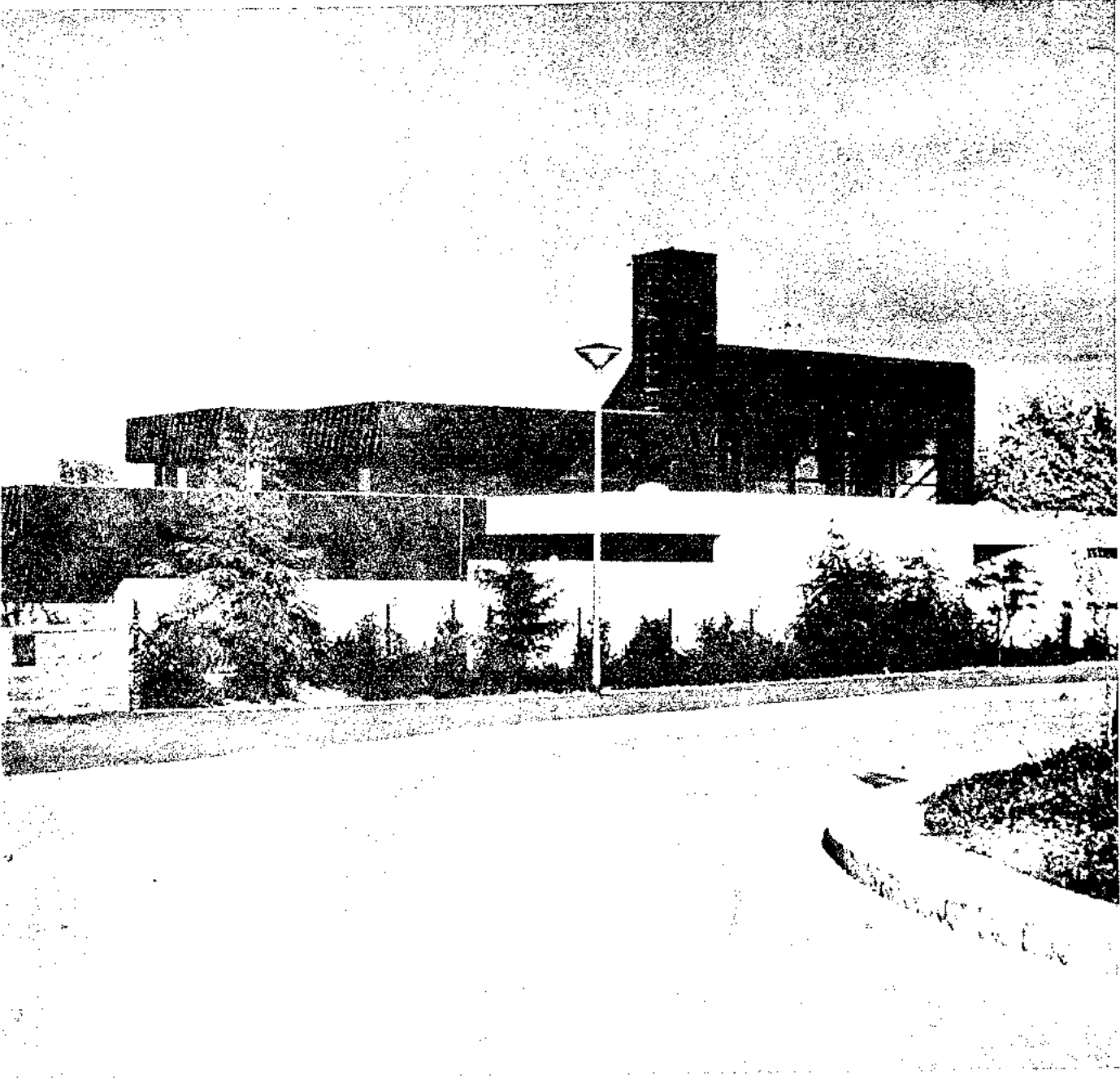


콘즈의 집 Konz House

소재 : 바이브링겐 독일

설계 : 한스 캄페넬과 바르텔 펠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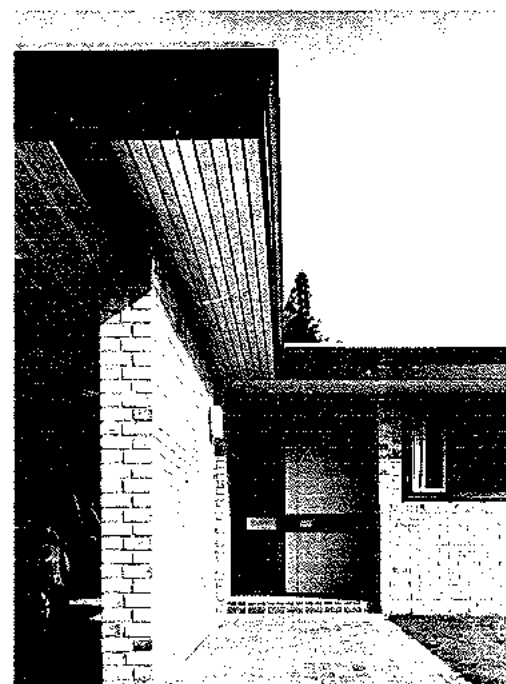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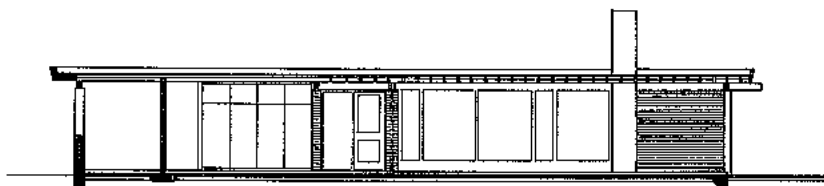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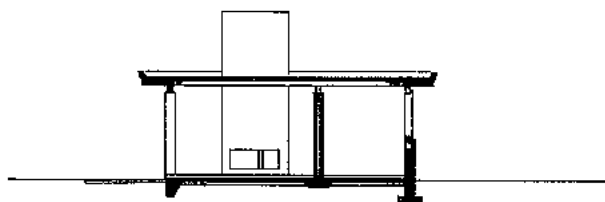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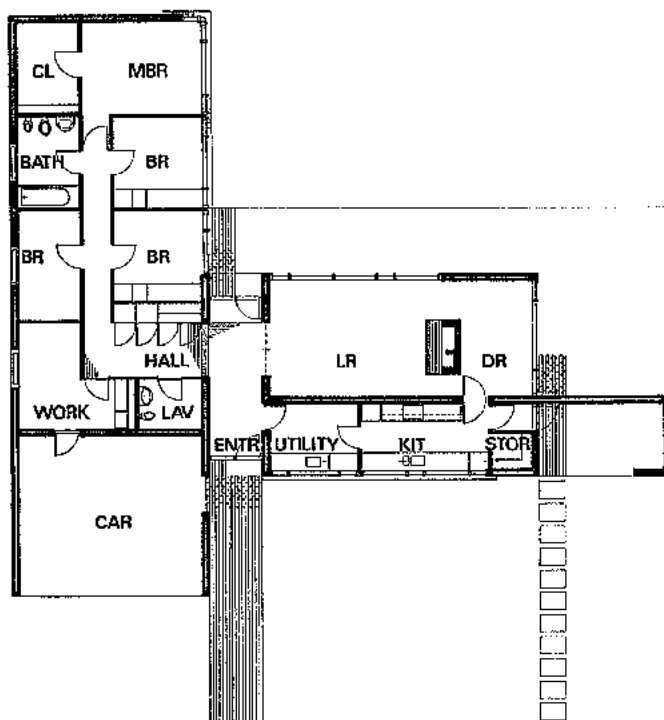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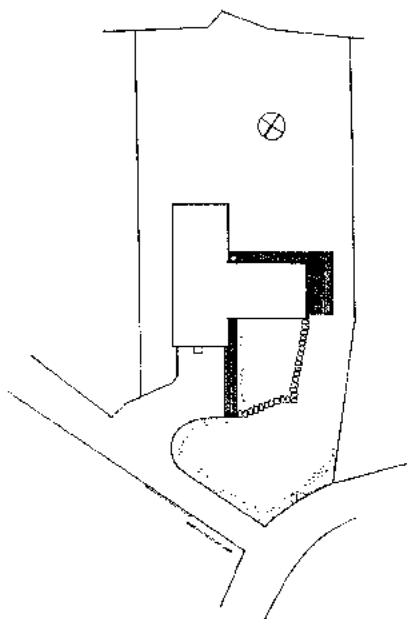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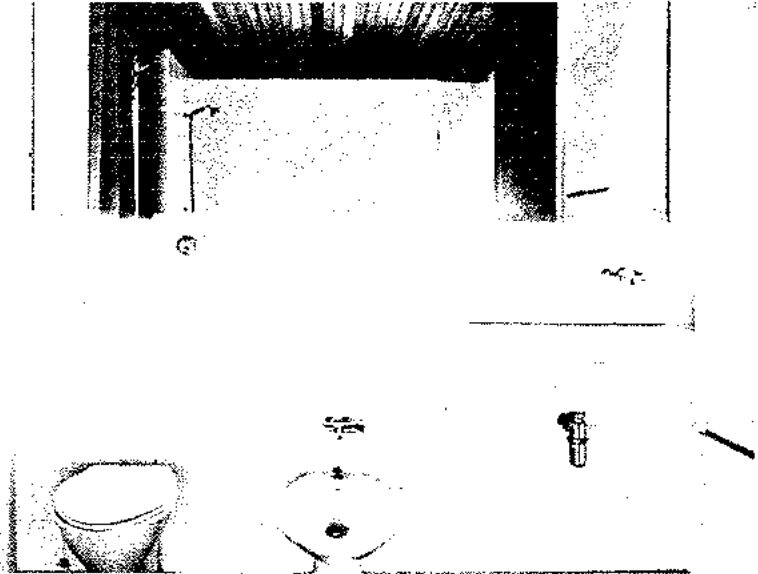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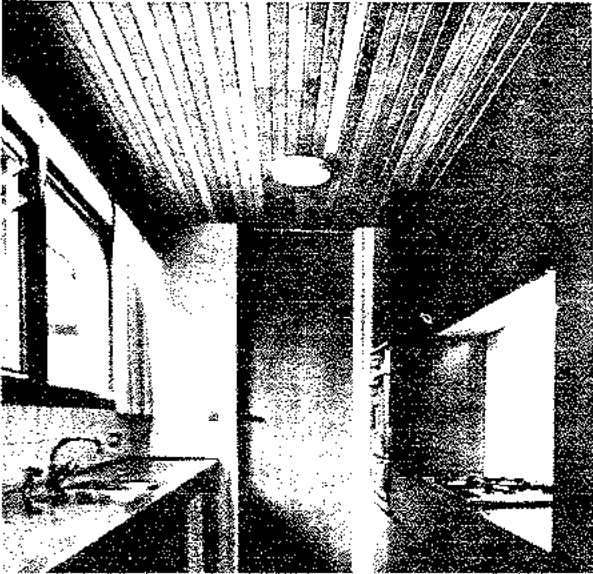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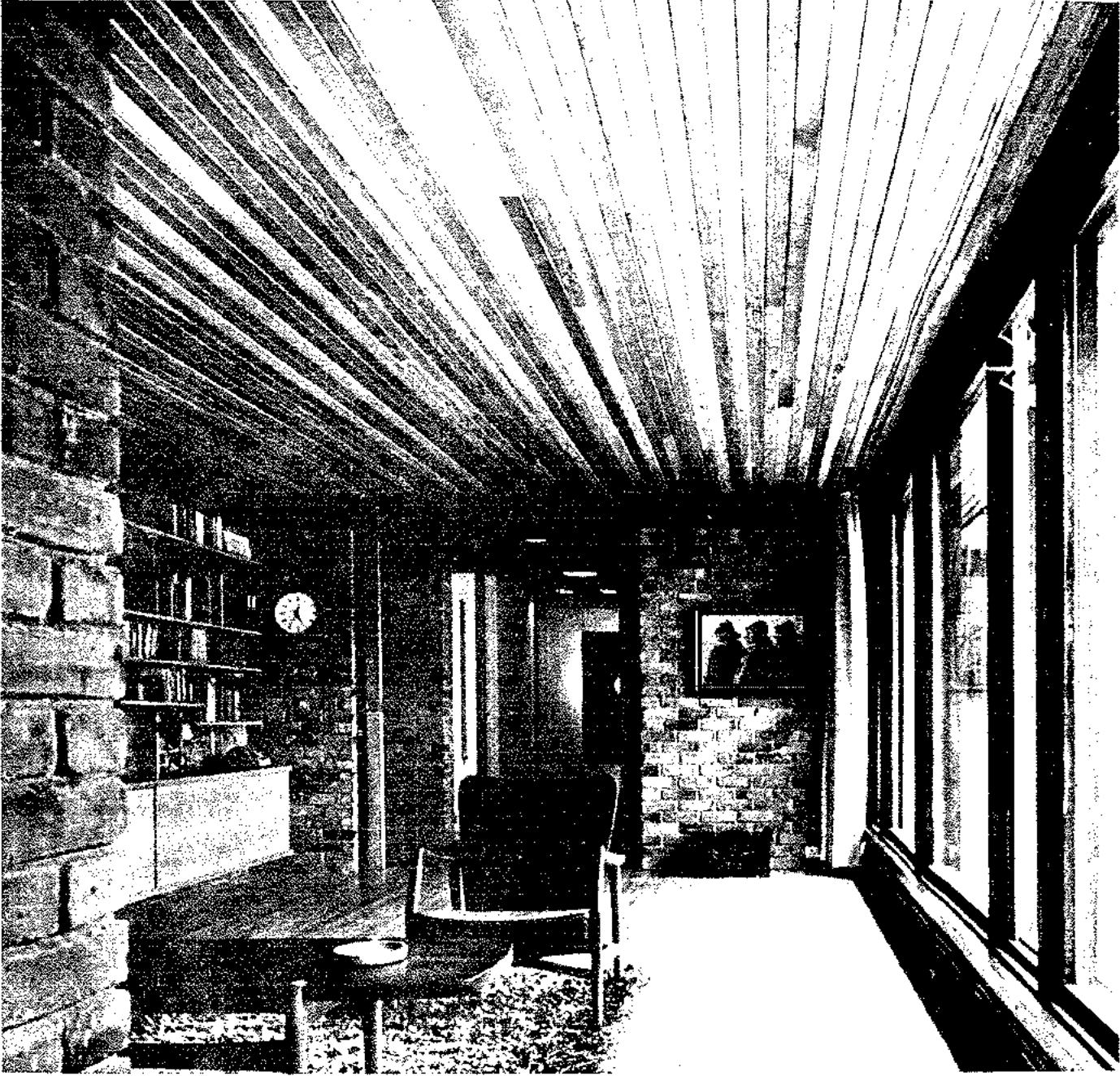


한센 부처의 집 House for Mr. and Mrs. P.A. Hansen

소재 : 하커드셔주의 하펜덴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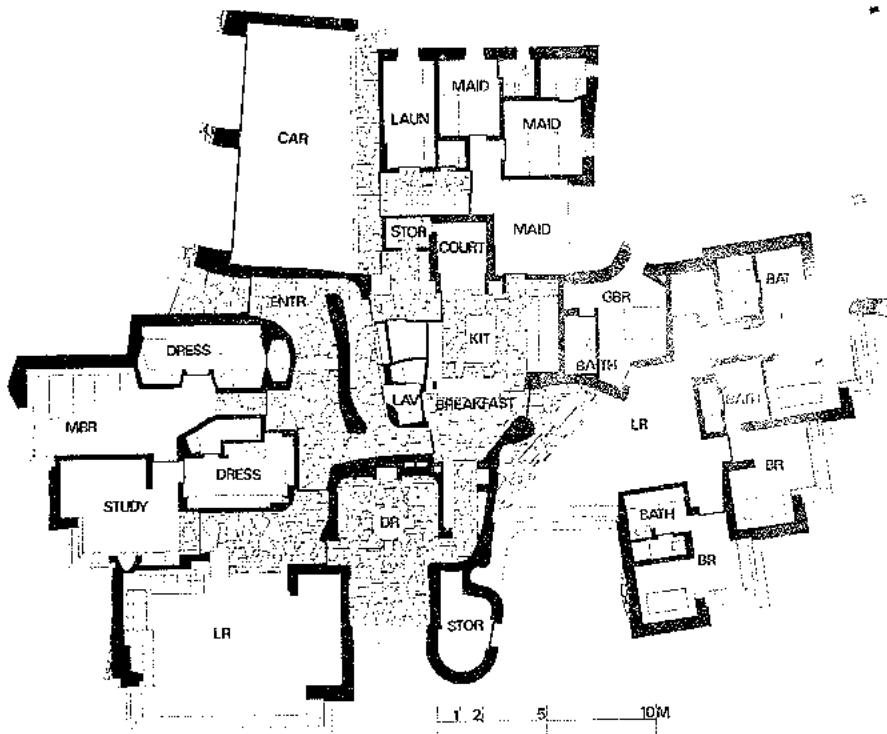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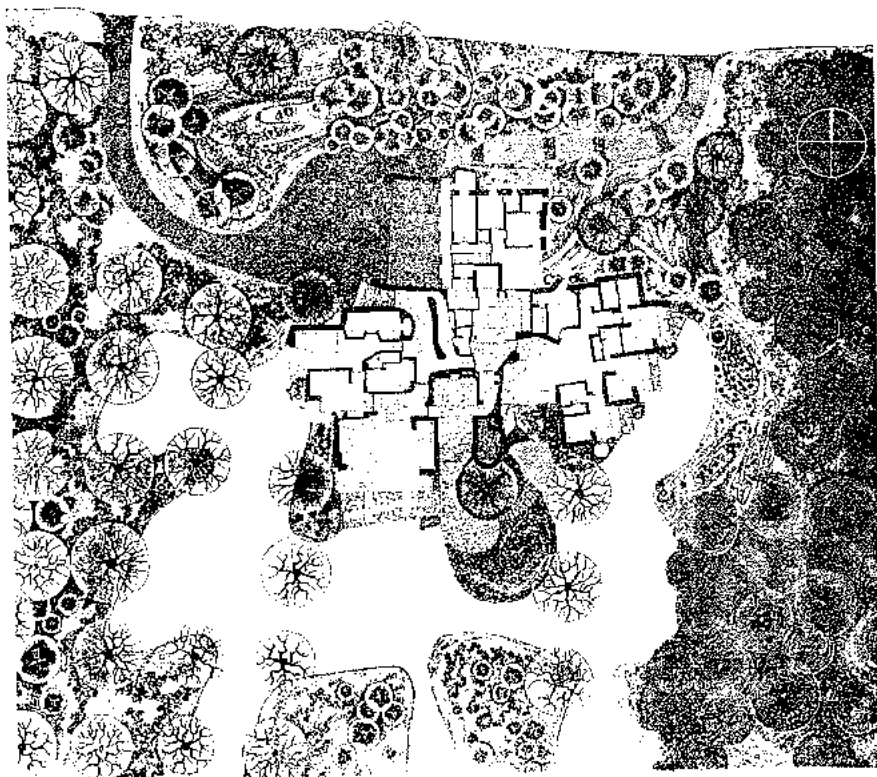
설계 : 미터모로와 미겔렐리쉬 (보조)
론 구드릭크, 앙돌레이 브론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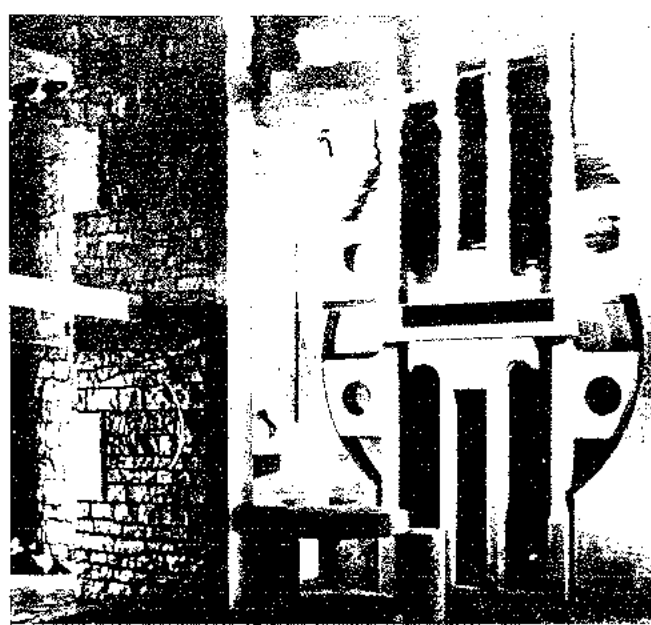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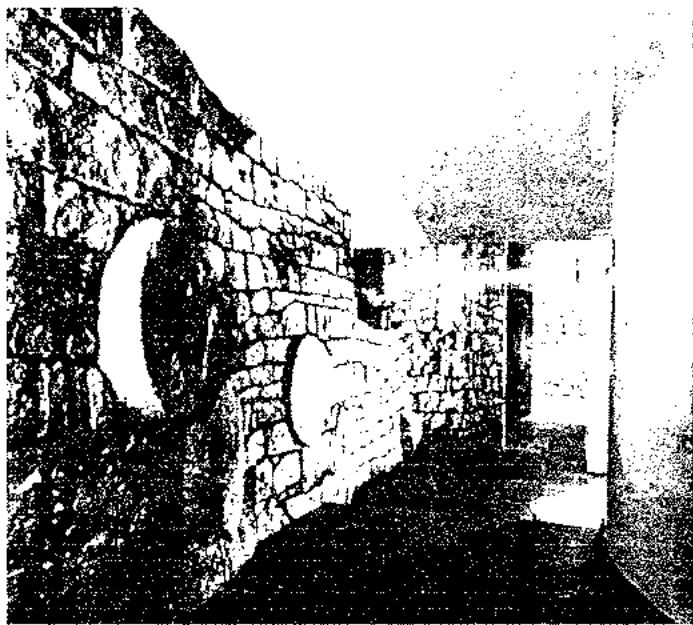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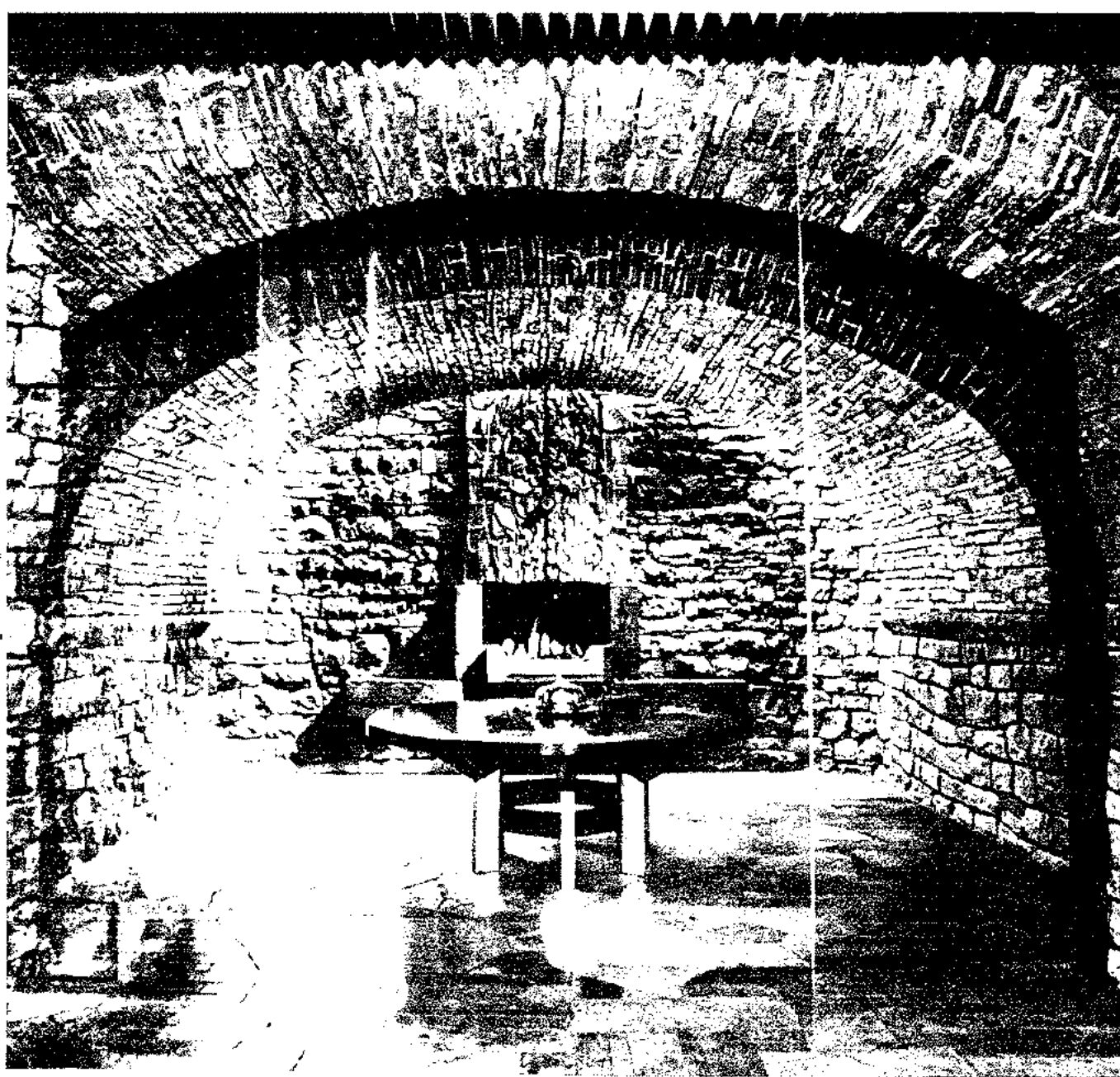




래버 하우스 Laval House

소재 : 룩셈부르크 벨기에
설계 : 앤드레 야코만과 니코 비크만스
부지면적 : 15,000 sq. m
건물면적 : 약 1,000sq. m
완성년월 : 1971





會員의 質疑應答

〈새마을 공장 건립에 관한 질의〉

질의자 : 이 중일('74. 3. 21) 회 신 : 건설부 장관('74. 3. 21)

○ 1.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 제12항에 읍면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내에서는 새마을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바, 시 도시계획구역인 타 읍면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내에서도 새마을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여부는?

○ 1. 건축법 시행령 제 14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서의 새마을 공장은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내라 한지라도 주무부 장관이 건설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시의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새마을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2 및 별표3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및 동별별표 8에 해당하는 것 제외)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 제12항에서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시의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읍·면의 관할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소재지의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구역을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의 복적인 지역의 순화, 공해방지 등의 면에서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 제12항의 규정은 완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화국선의 인입배관 설치에 관한 질의〉

질의자 : 전남지부장('73. 9. 5) 회 신 : 배선부장관('73. 10. 5)

○ 1. 건축법 시행령 제 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은 배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 대지내에 관리실이 별도로 있고 용도상 전화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660평방미터 이상의 창고, 교실 등을 별도로 건축하는 경우의 전화국선의 인입배관, 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여부는?

○ 1. 본 건축물과 별도로 건축되고 전화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창고, 교실 등에 관하여는 전화국선의 인입 및 배관시설의 설치는 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건물에 전화가입절약 또는 전화기 설치 장소 변경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없는(전선전화규정 제224조 및 제225조) 것이오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중 연면적에 대한 질의〉

질의자 : 대한건축사협회('73. 6. 19) 회 신 : 건설부장관('73. 9. 1)

○ 1. 건축법 시행령 제 6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연면적이라 함은 동일 대지내에 있는 각층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일동의 건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질의 회신을 바랍니다.

○ 1.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제 4 호에 세기한 연면적은 적용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됨.

가 지상층 설치기준

지상층의 연면적을 말하며 동일 대지안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나. 공사 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 및 소방법에 의한 현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 :

상동 단위로 계산함.

建築界 뉴 - 스

◇ 洋灰工業協會에서 建築抑制 緩和를 建議

韓國洋灰工業協會에서는 建築物의 抑制措置로 因해 시멘트의 심각한 需要 減退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을 指摘코, 建設部에 建築物의 抑制措置를 大幅 緩和해 줄것을 建議했다.

同協會의 建議內容은

- ① 全國 一國에 적용된 建築物의 抑制措置를 道庁所在地에 局限시키고
- ② 政府 및 地方 自治團體의 建築物만 제한하고 나머지 銀行, 公共團體, 公益法人의 建築物은 解除
- ③ 사치성 建築物 中 劇場, 百貨店 等 商業用은 解除
- ④ 1.14 措置로 유보된 今年度 予算額 5 백억원은 全額 庶民住宅資金으로 轉用하고, 來年度 事業을
앞당겨 올해에 工事하는 方案 等を 建議했다.

◇ 工団 管理庁 管掌 아래 總 131件 建築許可

工業団地 管理庁은 지난 8 月부터 韓國輸出産業工業団地內의 建築許可 業務를 管掌한 以來 7 個月
동안 總 131件의 建築許可事務를 處理했다.

• 3 月20日 現在 団地別 建築許可 件數

• (月別 許可件數)

	月 別	新 築	増改築	計
1 団地~18件	'73. 8 月	6	9	15
	9 月	14	12	26
2 団地~15件	10月	17	11	28
	11月	9	21	30
3 団地~56件	12月	12	6	18
4 団地~13件	'74. 1 月	4	4	8
	2 月	3	2	5
5 団地~28件	3 月	1		1
6 団地~1 件	計	66	65	131

◇ 大韓建築學會 會長에 金熙春氏를 選出

大韓建築學會는 任期가 滿了되는 金正秀會長의 後任으로 現 副會長인 서울工大 教授인 金熙春氏를
選出했다.

同 學會의 任員選出委員會에서 選任한 새 任員陣은 오는 4 月下旬경에 召集될 定期總會에서 認准
을 받아야 하는데 그 任員은 다음과 같다.

會 長 金熙春(現副會長, 서울工大 教授)

副會長 咸性權(留任, 漢陽工大 教授)

副會長 劉應鎭(新任, 青光建築研究所 代表)

參與理事 金正秀, 尹張燮, 李光魯, 朴胤成, 李熙雨

監 事 洪思天(留任) 黃尚一(新任)

◇ '74, 1月 全國 建築許可 總面積 81만 3천m²

昨年 同期에 비해 106.1% 増加

前月 對比 19.9% 減少

지난 1月中 全國 建築許可 總面積은 前月에 비해 19.9%가 減少된 81만 3천m²를 나타냈으며 非需要期에의 建築活動의 鈍化相을 보였다.

3月5日(經濟企劃院의 2月中 經濟動向 報告) 1月中 全國 建築許可面積은 前年同期의 39만4천m²보다 1백6.1%가 増加했는데 用途別로는

△ 工業用이 前年同期의 11만 1천m²에 비해 26만 1천m²로 1백34.5%가 増加되었고

△ 住居用이 32만 4천m²로 1백18.7%

△ 商業用이 14만 2천m²로 61.6%

△ 文教·社会·其他用이 8만 6천m²로 83.8%가 増加되고 있다. (都合 81만 3천m²)

一月中 用途別 建築許可 面積은 前月에 比하면

住居用 25.4% 商業用 28.4%

工業用 9.3% 文教·社会·其他用 9.5%

가 各各 減少되고 있다.

1月中 用途別 建築許可狀況

	1 月	1973. 1		1974. 1.		
		前月比 %	前年同月比%	1 月	前月比 %	前年同月比%
住 居 用	148	- 2.6	18.4	324	-25.4	118.7
	88	-37.6	33.3	142	-28.4	61.0
	111	-42.8	236.4	261	- 9.3	134.5
	47	-60.8	67.9	86	- 9.5	83.8
	394	-35.1	55.7	813	-19.9	106.1

◇ 釜山市, 各区庁에 建築許可 當分간 抑制 指示

釜山市는 정부의 主要建資材 消費節約對策의 一環으로 當分間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庁舎建築物을 비롯하여 政府가 既히 許可한 公益法人의 事務室用 建築物 및 公共建物の 建築許可를 3月5日 부터 抑制할 것을 各区庁에 指示했다.

釜山市는 이밖에도 民間建築物中에서 劇場, 興行場을 비롯, 卞, 카바레, 料亭, 그리고 사치성 浴湯, 會議室, 오락장, 展示場, 百貨店 및 觀望시설等 4層 以上の 事務室用 建築物에 대해서도 抑制키로 하고, 또 個人住宅의 경우 面積 165m² 以上の 住宅과 世帯當 延 132m² 以上の 共同住宅에 대해서도 建築許可를 當分간 抑制키로 措置했다고 한다.

그런데 公共機關 및 國營企業체의 地方移轉計劃에 따라 移轉하는 建築物과 外國人合作 投資業者가 建築하는 建物は 建築許可 抑制대상에서 除外됐다.

◇ 金二淸 教授(淑大) 「地熱住宅」研究로 명예 理學博士 學位

地熱을 住宅에 利用함으로써 燃料문제와 公害問題를 解決코자 하는 研究로 25日 淑大에서 명예 理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한편 金교수는 이 「地熱住宅」建築이 가능할 때까지 구체적인 研究를 계속한다고 한다.

◇ 全南 光州市에 建築品

2 月末 現在 6 百 5 件으로 昨年 同期의 3 倍 増加

全南 光州市內에 建築品이 일어 올들어 2 月末 現在의 建築許可 件數는 지난 해보다 3 倍인 6 百 5 件에 達했다고 한다.

이 許可件數는 住居用이 4 百 72 件으로 小住宅 品을 보이고 있는 것은 光州市內의 住宅 不足率이 44%나 되는데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고 한다.

◇ 住居地域, 四層 以上 建築 規制

서울市 審議委 거친 뒤 許可.

採光, 通風等「高層公害」防止위해

서울市는 3 月 27 日 高層建物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데를 막고, 高層建物로 말미암아 근처에 사는 住民들이 햇볕을 못보거나 通風, 防火, 騒音(소음) 등 各種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날부터 새로 建築되는 모든 아파트와 商街아파트, 그리고 四層以上 또는 높이 12m 以上の 建築物로선 住居地域內의 간선 도로변(노폭 12m 이상)에 접하지 않는 空地에 세우는 建築物은 모두 서울特別市 建築審議委員會의 事前 審議를 거친 뒤 建築許可를 받게 되었다.

◇ 都心 建築規制 완화 <再開發計劃 修正>

8 個地區 解除, 12 個 地區는 一部만

서울市는 3 月 27 日 지금까지 서울市가 都心地再開發 事業地區로 指定告示, 新規建築 과 増築, 改築 등을 일제 抑制해 왔던 24 個 都心地 再開發事業地區(總面積 1 百 79 萬 7 千 6 百 20 坪) 가운데 麻浦區 孔德地區, 城東區 약수地區, 中區 長충二街地區 등 8 個地區 6 萬 6 千 6 百 32 坪에 대해 地區指定을 完全히 解除하고 돈화문~퇴계로地區 등 12 個 地區 75 萬 2 千 餘坪에 대해서도 地區指定을 一部 解除했다. 이번 再條正된 再開發地域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完全解除地域>

1. 공덕地區(4,976坪) = 공덕洞一部, 염리동一部
2. 약수地區(12,107坪) = 신당동一部
3. 장충二街地區(1,428坪) = 장충동一部
4. 충현地區(2,046坪) = 신당동一部
5. 필동地區(3,786坪) = 예장동一部
6. 청과二街지역(1,030坪) = 청과동一部
7. 옥수地區(29,797坪) = 옥수동一部, 금호 4 街一部
8. 의주로地區(11,465坪) = 의주로二街一部

<一部解除地域>

1. 돈화문~퇴계로地區(17坪, 320坪) = 권농, 와룡, 봉의, 모洞, 원남, 인의, 충로三, 四街, 장사, 예저, 입정, 산림, 乙支路3,4,5街, 인현, 예관, 충무路 4 街의 各一部 地域
2. 쌍룡地區(14,758坪) = 아현동一部, 염리洞一部
3. 장충地區(3,000坪) = 신당동一部
4. 영천地區(39,885坪) = 현저洞, 냉천洞, 충정路2,3街一部
5. 신당地區(100,000坪) = 신당, 하왕십리, 상왕십리, 금호二街 各一部
6. 한남地區(71,680坪) = 한남洞一部

7. 용산地區(51,250坪) = 용산洞二街 一部, 후암洞一部
8. 신공덕地區(220,000坪) = 아현, 중림, 만리, 충정路三街, 신공덕洞 각각 一部
9. 낙산地區(31,130坪) = 황진, 중산, 송인, 신설동 각각 一部
10. 남창地區(12,036坪) = 남창동一部
11. 남대문地區(33,840坪) = 서소문, 남대문路4,5街, 봉래洞 각각 一部
12. 와룡地區(4,500坪) = 성북구 一部

〈不良地區 再開築地로 變更地區〉

1. 방릉, 장충, 영천, 신당, 한남, 용산, 신공덕, 낙산, 와룡동 9개지역(844,152坪)

〈再開築地區로 그대로 두는 地域〉

1. 돈화문~회계로지구(25,200坪)
2. 남창地區(4,500坪)
3. 남대문지구(26,160坪)
4. 도화地域(4,143坪)
5. 서울운동장주변(15,519坪)
6. 소공地區(3,919坪)
7. 부교地區(55,000坪) 等 7個地區 = 134,434坪

— 公 告 —

大韓建築士協會

1974年度 第一回 臨時總會 召集公告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974년도 제 1회 임시총회를 소집하오니 대의원 궐위께서는 기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日時: 1974年 4月 13日(土) 午前 10時
2. 場所: 建設會館 大講堂
3. 議案: ① 197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決算承認의 件
② 197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第一回 追加更正豫算案 承認의 件
③ 기타 사항

1974年 4月 3日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韓 昌 鎮

建築物 建築抑制 擴大에 對한 建議書

政府에서 '74. 3. 5부터 實施中에 있는 建築物의 建築抑制擴大에 關하여 關係機關에 다음과 같은 建議書를 '74. 3. 15 제출했다.

73年 7月12일부터 必要불급한 建築物의 建築抑制를 실시하여 오던 정부는 74年 3月5日 부터 50坪이상의 단독주택물허등 建築抑制를 擴大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자원과중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國家 資源의 효율적인 供給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 임을 인식하고 정부 당국의 고충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폐협회에서는 建築억제의 확대 조치가 거목 뇌었을 때 이러한 조치가 회원들의 업무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견 하면서도 國家정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아무런 의견조차 구신하지 않았던 것이으나 지난 3月5日 建築抑制의 확대조치가 실시된 이후 그간의 동향등을 열렬히 검토한 바 급박 조치가 내포하고 있는 根源的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浮現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대책(요망사항)을 건의 하오니 검토하시와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 제 점

1. 土地이용도의 측면에서 본 문제점

土地 이용의 효율화가 절실한 우리나라 現狀面에서 더우기 서울 등 대도시의 계속적인 팽창 상충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建築物의 建築에 있어서는 토지이용 면적의 극소수와 空間 이용의 극대화가 必要한 과제이므로 일반 주택에 있어서도 최소한 2층의 고층화가 불가피하고 수년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터에 50평으로 건축 규모를 억제한 관계상 실용도 높은 2층의 주택건축이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 住宅장래성의 측면에서 본 문제점

우리는 지금 80년대의 100억불 수출과 국민소득 1,000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총 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는 實現될 것이 확실하므로 80년대의 國民生活수준은 현재의 3배로 향상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주택수요 증가와 주거면적의 향상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주택수명은 60年 乃至 150年(조적조, 원근콘크리트)이나 되므로 지금 建築하는 주택은 80년대에도 사용될 것이며 또한 그때의 생활 수준에 적합한 住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의 장래성과 80년대의 國民生活수준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고 볼지나만 장래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 주택 수요 및 실용도의 측면에서 본 문제점

3月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建築物의 建築抑制 內容을 보면 기존 建物과 지하실 차고 등 부대시설들을 포함한 연건평 50坪이상의 건축을 억제하고 있어온데

- 1) 다음의 住宅의 각종 建築面積 표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실 부대시설 등을 제외하고서도 5인 가족의 경우 29.66평, 8인 가족 47坪, 10人 가족 61.62坪이 최소한의 必要面積이므로 50평 이상의 건축을 억제하면 大家族制度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가족이 많은 세대 는 그들의 家族을 수용할만한 크기의 住宅을 건축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전국적으로는 25% 서 울시의 경우는 50% 이상이 무주택자인 關係상 도시에 있어서는 한 住宅에 2世代 이상이 사실상 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50坪 이상의 建築抑制는 주택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 建築法 제22조 3항 및 동시행령 113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지하실은 하나의 의무규정인 동시에 적극적인 권장 사항일 뿐더러 유사시에 대박한 필수불가결의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다 보면 자연 建物の 연건평이 증가되지 마련되고 더우기 지반의 傾斜로 인하여 지하실이 자연 형성 경우도 허다한데 이러한 지하실 면적을 연건평에 포함시킨다면 住宅의 實사용面積이 더욱 적어 집니다. 또한 지하실, 복도, 현관, 차고등 공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약 30%이므로 비율로 건평 50坪의 住宅의 實사용면적을 산출하면 35坪미만이 되어 주택 실용도의 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3) 住宅은 그 나라 國民의 경제 및 문화수준의 척도이고 보다 더 좋은 住宅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本能임을 감안할 때 100坪이상을 호화住宅으로 規定하고 신축을 抑制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제한 규모를 50坪으로 책정한 것은 최소한의 문화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욕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우리의 경제 및 문화수준을 척도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주택 정책面에서 볼 때에도 정부나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建築하는 住宅과 민간 자본에 의한 일반 住宅은 구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급변 抑制조치는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책 (건의사항)

1. 단독주택의 신축억제선을 현재의 50坪에서 최소한 70坪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향과 같은 재조정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지하실, 차고, 부속시설 등의 面積은 연건평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각종 면적 표준

	최 소 면 적	참 고	5인가족	8인가족	10인가족	비고
현관	1.8×1.8M 이상	3.24	3.24M ² 1평이상	3.24M ² 1평이상	3.24M ² 1평이상	
거실	1인당 최소면적 6M ² 이상 서민 3~4평		30M ² 9.1평이상	48M ² 14.54평	60M ² 18.14평	
침실	어린이1.5평이상 부부2평이상 어른1.5평이상 큰아이1.5평이상		7평이상	11.5평이상	16평이상	
식당	면적 4.6M×4.0M 18.4M ²	5인 1.5평이상 8인 3.0평이상	3평	5.57평	8.18평	
부엌	15평이상 1~1.5평 16"~25" 1.5~2.5평 26"~50" 2.5~3.5평	연면적 7%	1.62평	2.562평	3.03평	
소계			24.72평	39.17평	51.35평	
공지	면적의 20% 공유면적		4.94"	7.93평	10.27평	
총계			29.66"	47평	61.62평	

단 1. 외국 서적 및 한국 데이터에 의한 산출 2. 상거비율은 가족수에 따르는 건축설계상의 면적배분표임.

会 員 動 静

서울特別市支部

新入会員

金甲中

名 稱：大宇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西大門区葛岬洞391-14
TEL. 38-3025
登録番号：2-318
入会年月日：1974. 2. 28.

李相旭

名 稱：京都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城東区반포洞113-1
TEL. 54-0461
登録番号：1-581
入会年月日：1974. 3. 2.

朴晃仁

名 稱：에일 건축연구소
所在地：冠岳区新大方洞346-11
TEL. 68-0523
登録番号：2-332
入会年月日：1974. 3. 2.

朴喜六

名 稱：한일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西大門区응암洞78-2
TEL. 39-3898
登録番号：2-329
入会年月日：1974. 3. 4.

洪性夫

名 稱：大宇建設株式会社
所在地：中区 桃洞 1 街 3 의106
TEL. 28-7823
登録番号：1-579
入会年月日：1974. 3. 4.

金賢培

名 稱：英信建築研究所
所在地：東大門区회경洞319-3
TEL. 96-3633
登録番号：2-317
入会年月日：1974. 3. 5.

韓中樞

名 稱：진한건축공사
所在地：城東区신사洞467
TEL. 54-5357
登録番号：2-328
入会年月日：1974. 3. 6.

曹龜鉉

名 稱：曹龜鉉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中区南大門路 4 가17-16
TEL. 22-0477
登録番号：1-58
入会年月日：1974. 3. 6.

李喆鎬

名 稱：동광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城東区新当一洞47
TEL. 54-3218
登録番号：2-330
入会年月日：1974. 3. 7.

朴乙植

名 稱：매원건축기술공사
所在地：東大門区상봉洞133-2
TEL. 97-2834
登録番号：2-333
入会年月日：1974. 3. 7.

韓永源

名 稱：광익건축연구소
所在地：城東区논현동129구획
영동시장 214호
TEL. 53-0791
登録番号：2-321
入会年月日：1974. 3. 8.

金亨仁

名 稱: 세한건축기술공사
所在地: 道峯區미아동483-15
TEL. 99-2592

登錄番號: 1-552
入會年月日: 1974. 3. 8.

黃斗植

名 稱: 삼우건축기술공사
所在地: 永登浦區화곡洞445-36
TEL. 63-5031 交394

登錄番號: 2-334
入會年月日: 1974. 3. 14.

金洸烈

名 稱: 효성건축기술연구소
所在地: 冠岳區奉天洞2가7-100
TEL. 68-6557

登錄番號: 1-587
入會年月日: 1974. 3. 18.

엄준세

名 稱: 동양건축개발공사
所在地: 鍾路區鍾路二街39
뉴파고다 빌딩210호

登錄番號: 1-573
入會年月日: 1974. 3. 18.

前元東

名 稱: 正和建築研究所
所在地: 城東區舞鶴洞1
TEL. 53-3560

登錄番號: 2-335
入會年月日: 1974. 3. 18.

尹始德

名 稱: 희망주택설계사무소
所在地: 城東區반포동 113-1
TEL. 69-2486

登錄番號: 2-331
入會年月日: 1974. 3. 21.

崔濟允

名 稱: 대영건설공사
所在地: 道峯區수유동174-17
登錄番號: 2-336 TEL. 99-6544
入會年月日: 1974. 3. 22.

金長源

名 稱: 동우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永登浦區가미봉동 93-4
登錄番號: 2-337
入會年月日: 1974. 3. 26.

安將元

名 稱: 新組建築研究所
所在地: 中區乙支路二街9-1 (배외공업BD B동)
登錄番號: 1-585 TEL. 22-2951
入會年月日: 1974. 3. 26.

李應默

名 稱: 세한건축문화연구소
所在地: 中區회현동2가6
TEL. 22-9441

登錄番號: 1-570
入會年月日: 1974. 3. 27.

朴康平

名 稱: 상아建築研究所
所在地: 鍾路區貫鉄洞252 (대흥BD 109호)
登錄番號: 1-590 TEL. 72-3184
入會年月日: 1974. 3. 28

事務所移轉

황인무 (1-457)

名 稱: 인왕건축연구소
移轉地: 城東區송정동68-49
移轉年月日: 1974. 3. 11.

한종언 (1-228)

名 稱: 금정건축연구소
移轉地: 中區수하동22
TEL. 22-7130
移轉年月日: 1974. 3. 11.

김현국 (1-295)

名 稱: 신화건축연구소
移轉地: 中区忠武路 2 가12-20
TEL. 28-7379
移轉年月日: 1974. 3. 11.

허 진 (1-139)

名 稱: 수도종합설계공사
移轉地: 城北區삼성동 5 가324
TEL. 94-6241
移轉年月日: 1974. 3. 11.

박길남 (1-437)

名 稱: 배아건축설계사무소
移轉地: 城東區무학동 1 번지
TEL. 54-5750
移轉年月日: 1974. 3. 11.

이종금 (1-149)

名 稱: (株) 世代建築
移轉地: 中区忠武路 1 가23-17
TEL. 28-6100
移轉年月日: 1974. 3. 11.

최정식 (2-248)

名 稱: 원창건축연구소
移轉番: 冠岳區奉天洞59-2
TEL. 68-7262
移轉年月日: 1974. 3. 11.

주영백 (1-413)

名 稱: 동산건축연구소
移轉地: 종로구수송동108-4
TEL. 75-6055
移轉年月日: 1974. 3. 11.

이관구 (2-290)

名 稱: 삼원합동건축설계사무소
移轉地: 성동구신사동78-5
TEL. 54-6309
移轉年月日: 1974. 3. 11.

신헌범 (1-277)

名 稱: 신건축설계감리사무소
移轉地: 종로구백수동20번지302호
移轉年月日: 1974. 3. 11.

資格更新 (二級에서 一級으로)

金得洙 (1-572) 旧 (2-151)

名 稱: 三美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 永登浦洞 2 가143
TEL. 62-0567
更新年月日: 1974. 3. 11.

轉入會員 (京畿支部에서)

김재경 (1급)

名 稱: 삼협건축연구소
所在地: 中区저동 2 가2-1
TEL. 26-9425
轉入年月日: 1974. 3. 11.

이기만 (二級)

名 稱: 가람건축연구소
所在地: 西大門區응암洞97-1
TEL. 39-2351
轉入年月日: 1974. 3. 11.

休業會員

안기태

名 稱: 同和建築研究所
所在地: 中区乙支路 2 가101-27
TEL. 27-4256
休業期間: (1974. 2月~1975. 12月)

釜山市支部

新入会員

安永豊

名 稱：안승풍건축연구소

所在地：釜山市中区신창동 1가36

TEL. 22-6452

登録番号：2-196

入会年月日：1974. 3. 26.

都敬泰

名 稱：都敬泰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釜山市中区大橋洞 2가21

TEL. 43-1213

登録番号：1-198

入会年月日：1974. 3. 26.

金鍾國

名 稱：國榮建築設計社

所在地：釜山市東萊區福泉洞326-3

TEL. 52-3938

登録番号：2-199

入会年月日：1974. 3. 26.

南鎮貴

名 稱：唯進建築研究所

所在地：釜山市東萊區수안동477

TEL. 53-3209

登録番号：2-200

入会年月日：1974. 3. 26.

商号変更 및 事務所移転

김인규

名 稱：(旧) 동래건축설계사

(新) 시민건축설계사

移転地：동래구명륜동598

TEL. 52-0073

登録番号：(동래구) 2-28

移転年月日：1974. 2. 4.

許 仁

名 稱：(旧) 世運設計社

(新) 和良建築設計社

移転地：釜山鎮區釜田洞259-2

TEL. 3-9626

登録番号：(부산진구) 2-35

移転年月日：1974. 2. 9.

윤영명

名 稱：성일건축설계사무소

移転地：釜山市東萊區명륜동627-3

TEL. 53-0627

登録番号：2-48

移転年月日：1974. 2. 21.

許 泰

名 稱：(旧) 흥진건축설계사

(新) 大同建築事務所

移転地：釜山市東萊區명륜동336

TEL. 52-4964

登録番号：2-40

移転年月日：1974. 3.

転入会員〈慶南支部에서〉

黃琮鎬

名 稱：정진건축사무소

所在地：釜山市東萊區福泉洞326-3

TEL. 52-3938

登録番号：2-197

転入年月日：1974. 3. 15.

休業会員

徐勳燮

名 稱：도성건축연구소

所在地：釜山市中区大橋洞2가21

登録番号：2-88

休業期間：'74. 3. 4. 부터 (一年間)
'75. 3. 5. 까지

閉業会員

金鍾弘

名 稱：홍국건축사무소

所在地：釜山鎮區폐암동836-18

登録番号：(부산진구) 2-57

閉業年月日：1974. 3. 14.

京畿道支部

新入會員

高允植

名 稱：유진건축연구소

所在地：京畿道시흥郡西面광명리141-8

登録番号：2-54

入会年月日：1974. 3. 2.

朴鍾尹

名 稱：국일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京畿道화성郡오산邑오산3里575

登録番号：오산2-1

入会年月日：1974. 3. 2.

崔炳相

名 稱：二和綜合設計事務所

所在地：水原市校洞23

TEL. 5947

登録番号：2-64

入会年月日：1974. 3. 18.

忠北支部

新入會員

崔浩珍

名 稱：동방건축연구소

所在地：忠北永洞郡永同邑계산리698-6

登録番号：2-112

入会年月日：1974. 3. 8.

忠南支部

新入會員

張亮淳

名 稱：당진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당진군당진읍읍내리517-1

TEL. (당진)41

登録番号：(당진)2-2

入会年月日：1974年3月20日

全南支部

新入會員

金容訂

名 稱：東和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여수시교소동370

TEL. 5403

入会年月日：1974. 3. 18.

事務所移転

金德泰

名 稱：中央設計事務所

移転地：木浦市내안동1의1

TEL. 2-2840

移転年月日：1974. 3. 11.

姜炯宰

名 稱：和信設計事務所

移転地：木浦市내안洞8의5

TEL. 2-0582

移転年月日：1974. 3. 11.

吳龍甲

名 稱：近代設計事務所

移転地：木浦市호남洞1

TEL. 2-5152

移転年月日：1974. 3. 18.

慶北支部

新入會員

趙 成 顯

名 稱：경일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慶州市노동동55 TEL. 4035

登録番號：(경주)1-2

入会年月日：1974. 3. 28

黃 鍾 周

名 稱：黃鍾周建築事務所

所 在 地：大邱市中区東門洞20-11

TEL. 2-8807,

登録番號：1-44

入会年月日：'74. 3. 28.

崔 龍 男

名 稱：가나建築事務所

所 在 地：大邱市中区덕산동95 TEL. 5-5834

登録番號：2-46

入会年月日：1974 3. 28.

沈 相 和

名 稱：황제건축설계연구소

所 在 地：慶北칠곡郡왜관邑왜관동1구251

登録番號：(세관) 2-1 TEL. (세관) 726

入会年月日：1974. 3. 28.

金 命 來

名 稱：三井建築事務所

所 在 地：大邱市西區미산동388-8

登録番號：2-43 TEL. 2-6221

入会年月日：1974. 3. 28

都 正 基

名 稱：메도건축연구소

所 在 地：慶北상주郡상주邑남성洞7-8

TEL. (상주) 687

登録番號：상주 2-1

入会年月日：1974. 3. 28.

宋 吉 煥

名 稱：가람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慶北安東市西部洞149

TEL. (안동) 1700

登録番號：(안동) 2-1

入会年月日：1974. 3. 28.

慶南支部

新入會員

金道淳

名 稱：福地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慶南金海邑동상洞896

登録番號：(김해) 2-2 TEL. 52

入会年月日：1974. 3. 2.

柳龍九

名 稱：신진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居昌邑김천洞398-2

登録番號：(거창) 2-1

入会年月日：1974. 3. 9.

池英鎭

名 稱：광장건축설계사

所在地：梁山郡梁山邑북부동386-5

登録番號：〈양산〉2-3

入会年月日：1974. 3. 12.

朴海一

名 稱：三美建築設計社

所在地：蔚山市玉橋洞188

登録番號：(울산) 1-5

入会年月日：1974. 3. 8.

李康鎭

名 稱：合成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馬山市中央洞1가3의4

登録番號：2-8 TEL. 2297

入会年月日：1974. 3. 18.

金汶德

名 稱：東宝建築事務所

所在地：慶南梁山郡機張面大羅里418

入会年月日：1974. 3. 20. TEL. 가장21

事務所移転

趙浩濟

名 稱：空間建築設計事務所

移転地：慶南金海郡金海邑서상동76-6

登録番號：(한양) 2-1 TEL. 1118

移転年月日：1974. 2. 20.

濟州道支部

新入會員

高英重

名 稱：大盛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濟州市三從洞1421

登録番號：1-11 TEL. 4234

入会年月日：1974. 3. 2.

文子源

名 稱：濟州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濟州市三從洞991

登録番號：2-12 TEL. 2014

入会年月日：1974. 3. 2.

姜 榮

名 稱：영진건축연구소

所在地：濟州市三從洞1421

登録番號：2-11 TEL. 6385

入会年月日：1974. 3. 8.

月間動向

1974年 3月分

〈6回〉

理 事 會

3月8日(金) 16時~20時 本會會議室

出席者：會長 韓昌鎮，總務理事 金枝泰，理事 李春相，李圭福，李明煥，吳雄錫

- 〈議案〉 1. 1974年度 追加予算案치청의件
2. 其他事項

監 查

本會 監查 實施

3月9~13日 9時30~20時

本會 會議室

監事：尹希俊，康晉參

1974年度 第一回 臨時總會 對備

3月14日 10時~12時

監查 結果 講評會

出席：會長 韓昌鎮，理事 金枝泰，李春相，吳雄錫。

〈7回〉

理 事 會

3月21日(木) 16時~20時 本會會議室

出席：會長 韓昌鎮，總務理事 金枝泰，理事 李春相，李圭福，李明煥，吳雄錫。

監事 康晉參

서울支部長 金萬盛

- 〈議案〉 1. 1974年度 第1回 追加予算 審議의件
2. 其他事項

企劃委員會

3月27日(水) 14時~17:30

本會 會議室

出席：會長 韓昌鎮，總務理事 金枝泰，

理事 李圭福，李明煥

委員長 李春相，委員 金圭泰，鄭銀鎔，金鍾敏，蔡奎鎔，李根庠，李丞雨，成永，金斗燮，韓鍾燮，金奉勲

- 〈議案〉 1. 1974年度 第1回 追加更
正予算審議의件
2. 其他事項

支部長會議

3月28日(木) 14時~16時 本會會議室

出席：會長 韓昌鎮，總務理事 金枝泰，理事 李春相，李圭福，李明煥，吳雄錫。

支部長 (서울) 金萬盛, (부산) 金圭泰
(경기) 鄭銀鎔, (강원) 李相哲
(충북) 鄭銀鎔, (충남) 金鍾敏
(전북) 崔錫珪, (전남) 蔡奎鎔
(경북) 李根庠, (경남) 尹商鳳
(제주) 康奇汀

- 〈議案〉 1. 1974年度 第1回 追加更
正予算審議의件
2. 其他事項

出席：會長 韓昌鎮，總務理事 金枝泰，理事 李春相，李圭福，李明煥，吳雄錫。

支部長 (서울) 金萬盛, (부산) 金圭泰
(경기) 鄭銀鎔, (강원) 李相哲
(충북) 鄭銀鎔, (충남) 金鍾敏
(전북) 崔錫珪, (전남) 蔡奎鎔
(경북) 李根庠, (경남) 尹商鳳
(제주) 康奇汀

- 〈議案〉 1. 1974年度 第1回 追加更
正予算審議의件
2. 其他事項

서울특별시건축사협회합동21회22
(73)6047김
유진건축사무소
김

會館建立委員會

3月28日(木) 16時~18時30分

本會會議室

- 議案：1. 會館建立委員選出의 件
2. 其他事項

회관건립위원 명단

위원장 한창진

부위원장 김만성

위	원	강	기	정	이	명	환
		강	진	삼	이	상	현
		김	규	태	이	승	우
		김	봉	규	이	규	복
		김	누	섭	이	춘	상
		김	중	민	이	장	복
		김	지	배	이	홍	수
		송	판	석	정	은	용
		송	민	구	정	진	억
		오	웅	서	채	규	당
		유	경	철	최	석	규
		윤	상	봉	최	창	규
		윤	희	준	한	용	섭
		이	근	상		제	29명

(8回)

臨時 理事会

3月29日 16時~19時 本會會議室

出席：會長 韓昌鎭, 總務理事 金枝泰

理事 李春根, 李圭福, 李明煥

吳雄錫

- 議案：1. 1974年度 第一回 追加更正

予算案 審議의 件

2. 其他事項

(3回)

編纂委員會

3月30日(土) 14時~15時30分

本會會議室

出席：委員長 吳雄錫, 委員 金仁錫,

馬春景, 安鍾爽, 俞景哲,

劉熙俊, 尹道根, 李廷德,

- 議案：1. 4月號 編輯計劃案 審議의 件

2. 其他事項

建築士

發行人兼 編輯人：韓 昌 鎭

登錄番號：第 라-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 23日

通卷 第64号 1974年 4月 30日 発行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中區太平路1街60-17

☎ 03 9491, 9492

印刷所：高星文化印刷株式會社

〈非賣品〉

스프레이 코트

SPRAY COAT



한국스레트

(交) 22-2141~5 24-2441~3
直 28-0873

待望裡에 드디어 建築界에 登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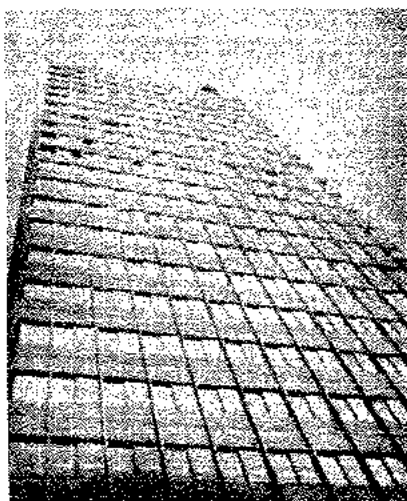
H-BAR式
T-BAR式
M-BAR式

輕量鉄骨天井틀에 시리카톤

資材를 選擇할 권한은 여러분들께 주어졌습니다.
建築物을 火災로부터 解放시켜 주십시오!

特 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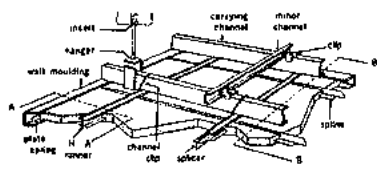
- ① 완전 불연재료이다.
- ② 중량이 목재의 3/5에 불과하다.
- ③ 조립식이므로 공기가 단속된다.
- ④ 아연 도금 처리가 되어 부식의 우려가 없다.
- ⑤ 천정 연판 공사의 시공이 용이하다.
- ⑥ 장기적으로 변형이 없고 건물의 유지비가 경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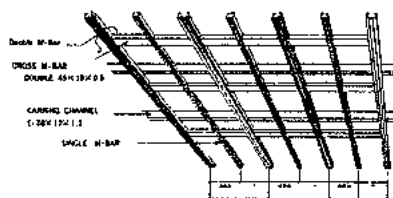
본사가 시공한 무역화관 빌딩

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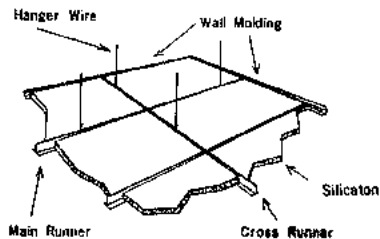
- ① 완벽한 불연성
고열에 "가스"나 악취를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우수한 흡음력
재료의 초화된 배열과 다공성으로 우수한 흡음성
- ③ 풍부한 흡수력
경로현상이 없다.
- ④ 우수한 단열효과
주재료의 열전도율이 극히 적다.
- ⑤ 간편한 시공
못질, 대패질, 톱질 등이 가능하다.
- ⑥ 강한 내후성 절연성
풍화, 변질,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 ⑦ 색상 선택이 용이하다



H-BAR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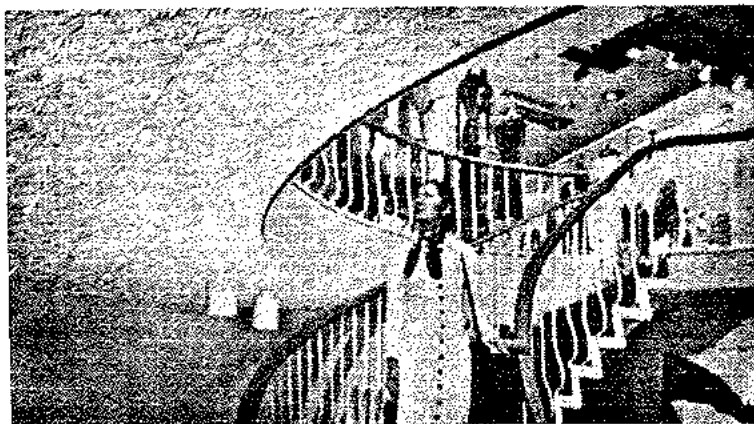
M-BAR式



T-BAR式

主要施工処

- 삼 일 로 빌 딩
- 국립종합박물관
- 남 산 맨 손
- 무 역 회 관
- 한 국 조 폐 공 사
- 한 국 과 학 원
- 서울대종합캠퍼스
- 종한산업대전공장
- 정부종합청사
- 도 규 호 텔
- 센 타 빌 딩
- 남산외인아파트
- 대 연 각 호 텔
- 국 회 의 사 달
- 미원모방수원공장
- 기타약 90여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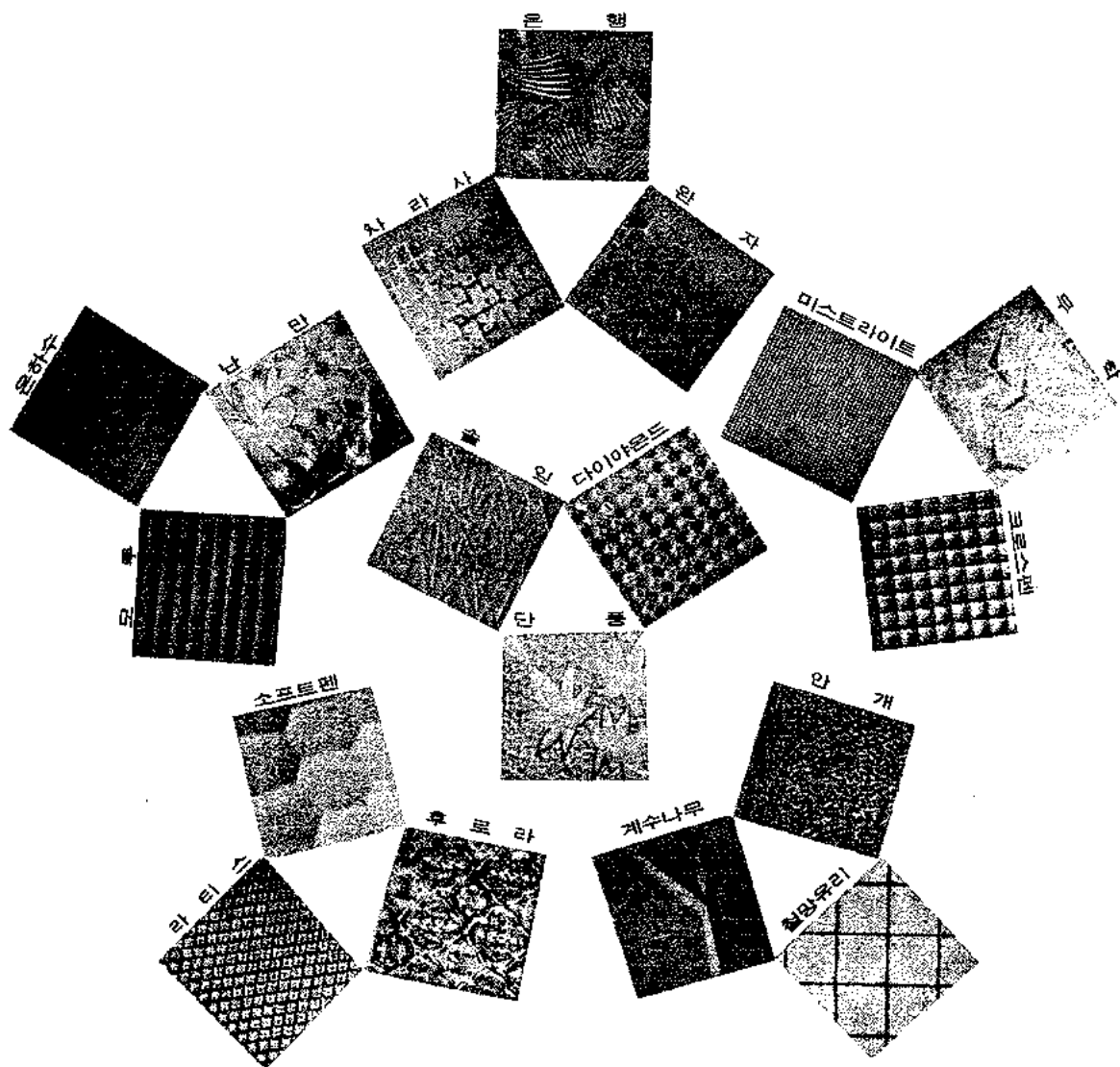
日本昭和造機KK와
技 術 提 携

韓 寶 建 設 株 式 會 社

第一스레트공업주식회사와
서울 경기도구 총판 체결

本社工場: 서울特別市 麻浦区 望遠洞五七番地
中央私書箱5182号

☎ 32-8288, 34-1442



선생님이 설계하시는 취향에 알맞는 다양한
무늬유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선택하여 보십시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 社 : 서울 特別市 西大門區 西小門洞 75 / 電話 : (02) 7141~45
工 場 : 仁川市 東區 萬石洞 2 / 電 話 : 仁川 (3) 0111~0119

便利하고 合理的인!

一實用新案 特許 第 9497 號 一

東光 DW 型 水管式 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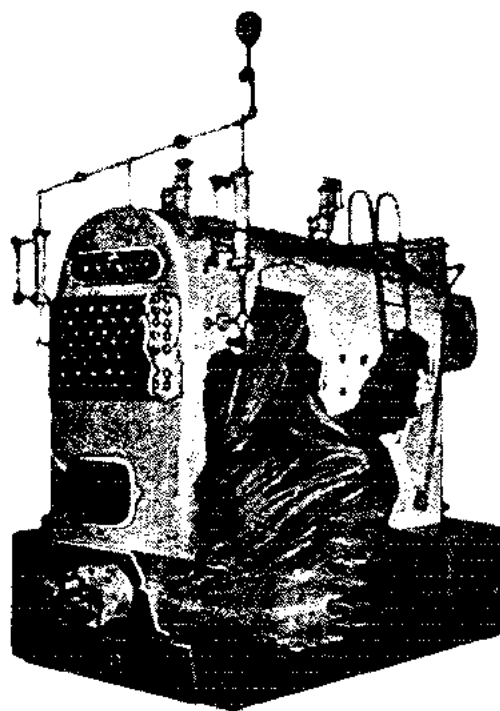
低壓 暖房用으로는 더욱 效率이
좋고 燃料가 현저히 절약됨.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
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
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國會議長의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大法院長의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 및 科學技術賞 受賞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시온제과 Co.
自由선 타
産業銀行
大田皮革 Co.
서울여자學院
韓一染色 Co.
世宗호텔
中央産業 Co.
釜山鐵道廳

三岡産業 Co.
仁川團藝組合
國防部建設本部
春川聖心大學
美八軍洗濯所
大韓體育會
大韓重石 Co.
宇盛化學 Co.
東洋紡織 Co.
首都醫附屬病院

大韓染織 Co.
同和藥品 Co.
柳韓洋行 Co.
韓國유리 Co.
韓國나일론 Co.
大韓콜크 Co.
清溪商街아파트
大韓造船公社
울림포스호텔
웅당산호텔

호수호텔
韓獨商社 Co.
聖바오루病院
大興선유 Co.
聖心綜合病院
大韓生命保險
公務院訓練院
林業試驗場
南大門警察署
大韓産藥

京畿農産 Co.
廣日별딩
韓國洋灰
麗水觀光호텔
第一病院
自動車保險
새한별딩
江原道庁
韓獨産藥
韓國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4의 1

電話 ④ 1673 ④ 9775-6
(용산구청앞)

工場：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